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미국, 한국, 스페인 영화에 나타난
특정대화함축 비교분석
- 대화격률위반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 경 희

2019년 2월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에 나타난
특정대화함축 비교분석
- 대화격률위반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용 준

고 경 희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고 경 희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위 원_____

위 원_____

위 원_____

위 원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Analysis of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in the Movies of America, Korea and Spain

Kyong-hee Ko

(Supervised by Professor Yong-Jo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February 2019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문제	6
1.3 논문의 구성	7
II. 이론적 배경	9
2.1 함축의 정의와 종류	9
2.1.1 고정함축	11
2.1.2 일반대화함축과 특정대화함축	14
2.2 대화격률과 격률위반으로 실현되는 특정대화함축	19
2.2.1 Grice의 네 가지 대화격률과 협력원리	19
2.2.2 격률위반과 특정함축의 양상	24
2.2.2.1 질의 격률위반과 함축 실현 양상	28
- 은유, 반어, 유머, 과장, 완서	
2.2.2.2 양의 격률위반과 함축 실현 양상	35
- 항진명제, 과장, 공손	
2.2.2.3 관련성의 격률위반과 함축 실현 양상	39
- 유머, 간접화법, 은유, 공손 위배	
2.2.2.4 태도의 격률위반과 함축 실현 양상	44
- 공손, 중의성, 풍자, 강조	
2.3 대화함축의 문제점과 문화적 요소	47
2.3.1 대화함축의 문제점	47
2.3.2 문화적 요소의 영향	51
III. 연구 방법	58
3.1 자료 수집 및 선정 방법	58
3.2 자료 분석 방법	62

IV. 연구 결과	65
4.1 영화에 나타나는 격률위반과 특정함축의 실현양상	65
4.1.1 미국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65
4.1.2 미국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68
4.1.3 한국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86
4.1.4 한국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90
4.1.5 스페인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102
4.1.6 스페인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105
4.2 세 문화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함축의 차이 비교 및 보편성 ..	125
4.2.1 격률위반의 문화 간 양상 비교	125
4.2.2 하위 함축 실현의 문화 간 양상 비교	130
4.2.3 양의 격률 유형 비교	133
4.2.4 격률의 동시적 위반	139
4.2.5 격률위반에 미치는 공손성의 영향	144
4.2.6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격률위반의 보편성	148
V. 결론	150
참고문헌	154
Abstract	160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화함축 실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 화자의 격률위반 현상을 화용론(pragmatics)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언어는 소리라는 형식에 의미를 담고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물인데 언어 사용의 목적이 의사소통이나 의미의 전달이라고 할 때, 언어의 본질을 밝혀내야 하는 언어학의 주된 과제 중의 하나는 의미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성범(1999)은 의미란 그것이 어떤 언어이든 모든 언어의 내용을 이루며, 언어의 궁극적 존재이유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목적과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는 문장이 사용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이 지닌 의미 자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전통적인 의미론적 분석방법으로, 문장 의미해석의 대상이 된 텍스트는 주로 일상생활 속 발화가 아닌 문어체에 집중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논리학자들은 진리 분석을 통해 문장이 참(truth)이나 거짓(falseness)이나를 논하였고 일상적인 발화가 아니라 언어의 실제 사용과는 동떨어진 문장을 중심으로 문법적인 구조와 논리적 진리 값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 있어서 발화의 의미는 항상 진리 조건적 관점에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문장이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다 그 문장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의미가 더 핵심적일 수 있다.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 만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적인 요소, 화자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 하는지,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습관,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는 화자와 청자, 맥락, 그리고 배경이 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Wittgenstein(1953)의 사용론(use theory)¹⁾, Firth(1957)의 맥락론(contextual theory), Austin(1962)과 Searle(1969)의 화행론(speech acts theory)등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안병철, 1997). 이렇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의 전달과 이해는 단순한 언어적 소통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되어 왔다.

최명원(2002)은 “언어는 사용될 때만 지시한다”는 Ricoeur(1976)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표현의 의미가 구체적 맥락을 배제한 채 언어 사용을 떠나 단순한 명제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어떠한 문장이 ‘사용’되기 위해 표현되었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그 이면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맥락 조건은 동전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나 그 동전의 사용 목적을 위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언어들에 있어서 사용적 측면에서의 맥락의 고려는 이 동전이 어떤 기능으로 또는 어느 나라의 화폐로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동전에 대해 생각할 때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등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생각한다. 그 동전이 어떤 물리적 요소로 어떤 화학적 결합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따지지 않는 것처럼, 사용 목적을 떠난 언어의 존재가치를 논한다면 이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Ochs(1979)는 맥락 설명에 대해 주어진 시간에 작용되는 언어사용자의 사회적, 심리적 세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맥락의 영역은 적어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상황에 관한 언어사용자의 믿음과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에 이루어 졌거나, 진행 중이거나 미래의 행위,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관심의 상태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문장의 진위 여부 혹은 문장 자체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일상생활 속의 실제 담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화가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분석방법인 화용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화용론의 등장으로 일상생활 속 실제 발화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1) For a large class of cases-though not for all-in which we employ the word "meaning" it can be defined thus: 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 (Wittgenstein, 1953: 43)

Carnap(1938)에 의하면 화용론은 의미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발화맥락을 통한 의미양상의 연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문장(sentence)과 발화(utterance)의 구분은 의미론과 화용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언어 사용자인 화자가 분명히 언급된 경우, 즉, 언어 사용자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화용론으로 보고, 언어 사용자를 제외시키고 표현과 그 지시물들 사이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을 의미론으로 나누고 있다. 즉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에 발화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문장은 본질적이고 문법이론 내에서 즉 언어사용과 분리된 언어자체로서 정의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발화는 실질적인 발화맥락에서 문장이 말해진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결국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에 대해 Levinson이 내리고 있는 화용론의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화용론은 의미론에서 포착되지 않은 모든 의미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Levinson, 1990: 12)²⁾

즉, 화용론의 과제는 우리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기제를 밝히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인간은 대화를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적이 언제나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의미를 ‘what is conveyed’라 한다면, 이 중에는 말해진 것(what is said), 즉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된 그 이상의 의미(what is implicated)가 있기 때문이다(Grice, 1975).

또한 발화에 있어서 화자의 말이 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자가 불충분하게 결정된 형식으로 발화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가 평균적으로 초당 7음절에서 18음절인데 반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조음기관까지 전달하

2) Levinson(1990: 12): Uter Pragmatik versteht man die Lehre all jener Bedeutung-saspekte, die von einer Semantiktheorie nicht erfabt werden.

는 조음 전 속도(prearticulation rate)³⁾는 이보다 훨씬 빠른 조음 속도의 최소 3~4배로서 조음과 개념화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Levinson, 2000).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여러 수단을 강구 하는데, 꼭 조음기관을 동원해서 전달해야 할 부분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청자가 추론해서 찾아낼 부분을 나누어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을 크게 줄임으로써 인간의 의사소통 시 개념화에서 조음으로 넘어가는 병목현상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함축(implicature)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축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불완전한 체계로서 인간의 언어를 그나마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생각하기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기제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제 중의 대표적인 것이 함축인 것이다 (김경애, 2012). 함축을 통해 인간은 하고자 하는 표현을 극대화 하고 언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Grice는 함축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여, 함축으로 인해 화자와 청자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협력을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노력한다는 것이며, 만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생길 경우 추론하려는 노력으로 보충이 되게 하며, 바로 이때 일어나는 추론을 함축이라고 하였다(Grice, 1975). 이러한 대화 협력 원칙의 대 전제하에 Grice(1975)는 협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가지 격률(maxims)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함축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원만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화자와 청자는 이 네 가지 격률을 지켜 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 이 격률들이 지켜지지 않고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함축이 요구된다. 배경지식이나 대화맥락 등의 영향으로 내용이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 간의 공통된 이해는 함축의 성공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교류의 기회가 늘어나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

3) Speech production is a bottleneck on the whole language system: at about an average of seven syllables per second, speech can be estimated to have a bit-rate of under 100 bps. Studies of language production show that prearticulation processes run three or four times faster than actual articulation. (Levinson, 2000: 28)

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함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장이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발언에 사용되면, 문장의 진리조건에 기여하지 않는 함축이나 또는 전혀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함축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의사소통에서 표출되는 새로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언어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 할 수 없을 때 문화 간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 대화의 충돌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격률위반과 함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함축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언어 수행에서 함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문화 간 함축을 비교 분석한 경험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간 함축 실현의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진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대륙에 있는 이 세 개의 문화는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위치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상이함으로 이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문화 간 언어 실현양상의 다양성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인간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universality)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화용적인 능력, 즉 실제 대화에서 필요한 능력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rice(1975)의 대화함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의사소통 시 대화함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그 함축의 유형, 빈도를 분류 및 분석하여 Grice(1975)의 이론이 일상생활의 언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의 격률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위반이 될 때는 언제나 함축을 수반하게 되는데, 종종 의도적으로 격률을 위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예도 표면적으로는 대화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대화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여 대화 협력 원칙이 지켜진다. 바로 이 함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대화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나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함축은 인간의 창조적인 언어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교 대조 분석은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스페인인의 사고의 차이 및 사회, 문화 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사용의 다양성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문제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 화자들의 영화 속 대화의 격률 위반과 대화 함축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 두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미국, 한국, 스페인 영화 속 대화에 나타나는 격률 위반의 전반적 양상은 무엇인가? 둘째, 미국, 한국, 스페인 영화 대화의 상위 격률 위반에 따라 하위 범주로 실현되는 함축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음으로 논문의 구성 및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미국, 한국, 스페인 세 개 국가의 영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본 논문의 저자는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고,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였으며, 스페인어권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회사 근무 경험 등으로 총 10여 년간 스페인어와 스페인어 문화권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에서 느낀 언어외적 요소,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연구에 넣고자 스페인 영화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통역 대학원 한영과 과정과 영어 언어학으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포함하여 이들 세 개의 언어 및 각각의 문화적 요소를 비교해 보고, 이들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문화가 다른 각각의 언어의 화자들이 하나의 공통 언어 대화한다고 할 때, 그 대화 참여자들은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발화의 동기에 대해 서로 이해 할 수 없어 당황해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언어 이면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함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세 국가의 화행 비교 시 영어와 스페인어는 라틴어에 뿌리를 둔 언어이고 서양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한국어가 이 두 개의 언어와 전혀 다른 뿌리와 동양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연구 대상 선정의 한계가 있지만 세 개의 문화는 각각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1.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화함축의 실현양상을 고찰 하는데 있으며 본문은 다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무엇을 연구 문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본 논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함축의 정의와 대화 함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고 요약한다. 우선 그 기본이 되는 함축을 설명하겠으나, 함축 중에서 격률의 위반을 통해 나타나는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어휘나 문장구조에 따라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의한 함축인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은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문장 요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화 참여자의 화용적 능력으로 인해 추론되는 대화함축만이 화용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Grice의 대화협력원리와 격률, 그리고 격률위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격률위반의 실현 양상들은 영화에 나오는 실질적인 일상 대화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의 장에서 격률위반과 관련된 함축 실현 양상을 소개하면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 쓰임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 영화 대본 외에 신문기사, 광고, TV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인용하였다.

본 연구는 Grice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분석 하도록 하겠다.

〈질의 격률〉위반은 반어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으로, 〈양의 격률〉위반은 항진 명제와 과장된 표현으로, 〈관련성의 격률〉은 간접화행과 유머로, 〈태도의 격률〉은 공손한 표현과 중의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Grice, 1975: 53)

이 사항을 목차 상 분류해 화자의 의도와 대화 참여자의 추론 과정을 설명하였다. 격률위반을 통한 대화함축은 대화의 전략으로 사용된다. 반어를 통해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은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며, 항진명제(tautology)⁴⁾라는 형식을 통해 그 논리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자랑하기, 감탄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대화 참여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는 것은 과장으로 실현 되고, 간접 화행을 사용하면 요청이 되며, 유머는 관련성 불일치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 공손한 표현으로 거절을 공손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중의적 표현을 통해 1차 함축 해석과 2차 함축 해석으로 대화 참여자의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

제3장은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로써 분석 자료 선정 방법과, 선정 영화에 대한 소개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함축의 문화적 양상 비교 연구를 위해 각국의 영화 각각 4편씩, 총 12편의 영화 대본을 이용하였다. 미국영화로는 *LADYBIRD*(2017), *THE INTERN*(2014), *NOTTING HILL*(1999) 그리고 *YOU'VE GOT MAIL*(1998), 한국영화로는, *써니*(2011), *미나 문방구*(2013), *건축학개론*(2012), *수상한 그녀*(2013), 마지막으로 스페인영화로는 *CIEN METROS*(2014), *MAR ADENTRO*(2004), *TODO SOBRE MI MADRE*(1999), 그리고 *HABLE CON ELLA*(2002)를 각각 선정하였다.

제4장은 연구 결과로 미국, 한국, 스페인 각 국가별로 영화 대본에 나타난 격률위반의 양상과 격률위반으로 인해 실현되는 함축을 자세히 기술한다. 즉, 영화의 대사 분석을 통해 대화에서 함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Grice가 말하는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네 가지 격률 별 예와 관련 함축 발생 시현상, 원인, 양상이 각 문화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문화의 차이를 격률위반 및 함축양상의 측면 및 격률의 동시적 위반, 격률위반에 미치는 공손성의 영향 등의 면에서 비교하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으로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논문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4) The interpretation of tautological utterances of the form, e.g., if it rains, it rains has generally been characterized in the literature as a case of Gricean conversational implicature. (Grice, 1975) 항진명제는 원문에 어떠한 진리치를 부여하여도 항상 참인 명제이다. 문장의 진리치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중간은 없는 항상 진리인 문장을 말한다. (윤평현, 2008: 308)

II. 이론적 배경

2.1 함축(Implicature)의 정의와 종류

함축은 문장에 직접 표시되지 않은 화자의 의미나 의도로서 어떤 문장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화 되었을 때 그 문장의 명시적인 의미 외에 맥락의 도움을 받아 전달 될 수 있는 가능한 의미이다. 말하기와 생각하는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간언어의 중요한 특질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It's dazzling.”이라는 문장의 뜻은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이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물어보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다. 엄마가 야외 바비큐 파티를 하자고 조르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We can't have a barbecue party outside today.”라며 비가 오니 밖에서 바비큐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리는 이슬비를 보고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라면 비가 그리 많이 내리지 않으니 행사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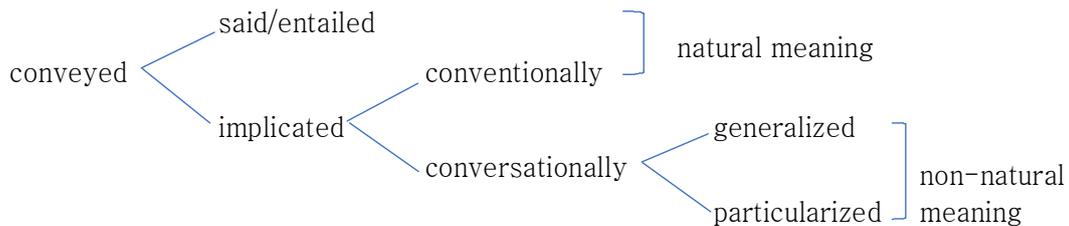
이 외에 함축은 자신의 의도를 명시적이거나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할 때 쓰인다. 또는 청자를 배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때로는 추론이라는 우회적 과정을 한 단계 거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도 하며 청자를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 think he's a good guy.”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라도 발화가능한데, 이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그에 대한 실망과 비난의 감정을 속으로 표현함으로써 암시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의미란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14세기 경 수사학자인 Servius와 Donatus는 ‘꼭언법’⁵⁾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말은 적게

5) Litotes, a Greek word, like many rhetorical terms, means ‘plainness,’ ‘simplicity,’ or ‘smallness,’ with alternate spellings such as liptote, lyptote and leptotes. It first shows up in the rhetorical tradition with the first century BCE rhetorician Dionysius of Halicarnassus, who uses it in a general way to characterize the muted, understated style of Isocrates, and begins to associate with a specific device in the fourth century CE. The Grammarian Servius, for instance, calls it a “kind of figure” which “indicates the contrary.”

하되 뜻은 더 많이 표하는 수사법'이다.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주시경선생이 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음을 국어 문법에서도 밝혔고 이를 '속뜻(속마음)'⁶⁾이라 하였다. 그 이후에 현대적 함축의 시작은 Grice가 1967년 하버드 대학의 William James Lectures에서 행한 강연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을 구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Grice(1975)는 함축의 개념을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과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구별하고, 대화함축을 다시 일반 함축(generalized implicature)과 특정 함축(particularized implicature)로 구별하였다. Levinson(1983)도 이와 비슷하게 함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내용의 종류를 구분한 바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다.



(Levinson, 1983: 131)

위의 표에서 함축된 부분(what is implicated)이 화행론에서 주목할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특정대화함축이다. 표층의 의미로는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지만 기저 의미로는 대화격률을 준수하는 특정대화함축이 사회, 문화, 관계적인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함축이므로 이를 집중

6) 한국어 최초의 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최광옥의 『대한문전(大韓文典)』(1908)과 유길준의 『대한문전(大韓文典)』(1909)은 그 이전 서구 선교사들의 문법 기술과 서구 전통문법에 기반을 둔 일본 문법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주시경의 문법은 서구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국어문법』(1910)에서는 '속뜻(숨은 뜻)'과 '기본일(기본 문장)' 등의 개념을 통해 후기 구조주의 문법에 해당하는 변형생성문법의 성격도 보이지만 구조주의 문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의 초기 문법 이론이라는 점에서 역시 전통문법으로 묶인다. (이병기, 2016)

7) Horn(1988, 2004)에 의하면 Grice의 원래 아이디어의 일부는 14세기의 웅변가 세르비우스와 도나투스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 이후 19세기 영국 철학자 밀(J. S. Mill)과 드 모르간(A. De Morgan)에서 다시 나타난다. (Huang, 2007)

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 말해진 명시적인 것(what is said)과 고정함축은 상례적 의미로서 자연적인 의미(natural meaning)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위 표의 나머지 것들의 의미는 비자연적 의미(non-natural meaning)이며 특히 특정대화함축은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대화 참여자인 화자, 청자, 행위 유형, 담화 사건의 화제,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그 함축 의미가 결정된다. 이제 각각의 함축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1.1 고정함축

우선 형식에 의한 함축인 고정함축을 살펴보기로 하자. 함축을 고정함축과 대화함축으로 나누는 것은 발생과정상의 분류이다. 고정함축은 어휘나 문장구조라는 형식에 의한 것으로 고정적이다. 다음의 Karttunen 과 Peters(1979)의 예문과 주장을 보면,

- (1) Bill likes Mary.
- (2) *Even* Bill likes Mary.

위의 (1)과 (2)의 문장의 의미치는 진리조건적인 면에서는 같다. 즉, Bill 이 현재 Mary를 좋아하면 참이고, 좋아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진리치는 두 문장이 동일하다. 그러나 (2)의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청자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다음의 두 문장을 다 포함한다.

- (3) Other people besides Bill likes Mary.
- (4) Of the people under consideration, Bill is the least to like Mary.

고정함축은 위의 (2)의 *Even*이라는 특정 어휘 항목에 달려있는 비진리조건적 추론임을 알 수 있다.

- (5) He *managed* to find a job.
- (6) He found a job.

역시 진리 조건적 의미치는 두 문장이 같으며 두 문장 다 직업을 얻었다는 뜻이지만 *manage* 라는 단어로 인해 고정함축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직업을 얻었다는 진리치는 같지만 *manage* 라는 낱말의 사용은 문맥의 영향이나 다른 추론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하고 고정적인 함축을 발생시킨다. 즉, 이 한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는 어떤 특정 노력을 했고 직장을 힘겹게 얻게 된 것임을 청자는 추론하게 된다.

이런 고정함축이 일어나는 것은 ‘*also, so, moreover, therefore, only, and, but, too, either, however, still actually, yet*’ 등의 불변화사와 ‘*forget, realize*’ 등의 사실동사, ‘*manage, fail*’ 등의 함축동사와 같은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다. 어휘적인 고정함축의 예를 몇 가지 더 보기로 한다.

a) p therefore $q \Rightarrow q$ follows from p ⁸⁾

(7) He is a Chinese; he *therefore* knows how to use chopsticks.

그는 중국인이고 *therefore*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실이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고정함축을 만들어 낸다.

b) p but $q \Rightarrow p$ contrasts with q

(8) John is poor *but* he is honest.

(9) Our sales have gone up *but* theirs have gone down.

*but*이라는 단어는 대조의 의미로 p 문장의 정보와 q 문장의 정보를 대조시키는 고정함축을 불러일으킨다(Grice, 1989: 25, 88).

c) Even p contrary to expectation

8) 기호 ‘ \Rightarrow ’는 ‘고정적으로 함축한다’를 의미한다. (Huang, 2007)

(10) *Even* his wife didn't think that John would win the by-election.

예상치 못한 놀라움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담고 있는 *Even*이라는 단어로 고정된 함축이 일어난다(Kempson, 1975).

d) p moreover $q \Rightarrow q$ is in addition to p

(11) Xiaoming can read German. Moreover, he can write poems in the language.

q 문장에서 생성된 내용이 p 문장에서 만들어진 내용의 부가적이라는 것을 *moreover*라는 단어가 고정적으로 함축한다(Grice, 1989: 121).

e) p so $q \Rightarrow p$ provides an explanation for q

(12) Mary is taking Chinese cookery lessons. So her husband has bought her a wok.

위의 (12)문장에서 Mary에게 그녀의 남편이 중국제 요리 냄비를 사준 것의 원인적 이유가 그녀가 중국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임이 *so*로 인해 고정적으로 함축된다.

이렇게 어휘적인 영향을 받아 고정함축이 일어나는 경우 외에도, 구조적인 형식의 영향을 받아 고정함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분열문과 유사 분열문이 이에 해당된다. 구조적인 고정함축의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한다.

(13) *It wasn't* Mary *who* got the job.

(14) Someone got the job.

(15) Someone *besides* Mary got the job.

위의 (13)의 문장의 진리치는 메리가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만, 분열문이라는 구조로 인해 취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Mary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정함축이 일어난다. (15)의 문장 역시 Mary가 취직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이외에 강조나 아쉬움을 고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위의 (13),(14),(15)의 세 문장의 진리치는 모두 Mary가 취직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이번에는 어휘가 아닌 구조적인 형식을 빌려 즉, 분열문과 전치사구조를 통해 고정함축의 의미를 유발한다. 즉, 고정함축은 비교적 확정된 의미를 가지며 정해진 고유의 함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힘 (conventional force)이라는 특성 때문에 삭제와 취소가 불가능하다.

2.1.2 일반대화함축과 특정대화함축

다음으로는 대화 참여자의 화용적 능력으로 인해 추론되는 대화함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고정되어 이미 정해진 고정함축이 아닌, 문맥에 따라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영향으로 다른 이해를 요하는 대화함축이라고 하였는데,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함축이 생기게 되므로 소통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특정한 상황과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 발화 맥락을 이용하여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의 원칙하에 추론을 통해 문장 이면의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다음의 (16)의 예를 보도록 하자.

(16) He is from Chicago.

누군가가 어디 출신인지를 묻는 상황이라면 문자 그대로(literal-meaning) 시카고에서 출생했다는 뜻이겠지만, 발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함축이 일어난다. 위의 (16)의 문장이 만약 누군가가 어떤 동호회에 들어오고 싶은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그 구성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추론이 일어날 수 있다. ‘시카고 출신은 믿을 만하니까 끼워주자’ 또는 ‘시카고 출신은 믿을 수 없

어. 난 반대야’, ‘나는 시카고 출신 사람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할 말이 없네’라는 뜻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고정함축과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장 내의 어떤 어휘나 문장 형식 등의 구조에 의해 고정적으로 연결된 함축이 아니라 어휘나 구조가 약간 다르더라도 역시 같은 의도의 함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e was born and raised in Chicago’라는 다른 형식을 취해도 같은 함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화함축이며 Grice(1975)가 말하는 추론이다.

Grice는 대화함축이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취소성(cancellability), 비분리성(non-detachability), 계산성(calculability), 비고정성(non-conventionality), 비확정성(indeterminacy)이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대화함축의 취소성에 대해서는 대화함축이 의미하는 바가 전후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를 보면,

(17) 지금 통장에 50만원이 있어요.

(18) + > 지금 통장에 정확히 50만원이 있어요.⁹⁾

(17)의 문장은 (18)의 문장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나 위의 발화가 은행이 배경이고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자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보의 추가로 인해 (18)문장의 함축의미는 잔액금액의 정확성이 아니라, 은행 상품 가입에 필요한 기준잔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분리성에 대해서 Grice는 대화함축은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같다면 어휘나 구조적으로 모양이 바뀌어 다른 형태를 가지더라도 그 함축 의미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다음 (19)의 문장을 보자.

(19) 참 잘한다.

9) +>부호는 앞문장의 발화가 이 내용을 ‘대화상으로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uang, 2007).

- (20) a. 참 훌륭한 학생이야.
- b. 이 정도는 해야지.
- c. 다른 애들 하나도 안 부럽다.

아들에게 꾸짖는 내용으로 (19)의 문장처럼 반대의 내용을 반어적으로 (20a), (20b), (20c)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어휘와 구조를 바꿔 말하고 있어도 그 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

셋째, 대화함축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발화가 특정 맥락 안에서 발생되었다면 청자가 의도된 함축을 계산할 수 있다는 예측성을 말한다. 모든 함축은 맥락을 바탕으로 발생하므로 합리적이고 추론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자의 발화에 대한 추론 과정을 일련의 논증과정으로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 화자 S는 P를 말한다.
2. S가 대화 격률 또는 적어도 협력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3. S는 P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 격률 또는 협력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Q를 생각해야만 한다.
4. S는 자신이 협력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Q가 가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상호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5. S는 청자가 Q를 생각하는데 아무 방해도 하지 않는다.
6. 그러므로 S는 대화 참여자가 Q를 생각하도록 의도 한다. 그리고 P를 발화하여 Q를 함축한다.

(Levinson, 1983)

넷째, 대화함축은 비고정적이다. 즉,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어휘나 구 등 p의해 의미가 고정되는 고정함축과는 다르다. 앞서 설명한 취소 가능성과 비분리성이라는 다른 특성들에서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화함축은 불확정적이다. 어떤 발화가 지니는 대화함축은 어느 한 가

지 표현으로 결정내리기가 어렵고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축을 지닐 수 있다.

(21) John's a machine.

(Levinson, 1983: 118)

(21)의 예문을 듣고 화자가 의미하는 것이 John이 기계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만 한다는 것인지, 감정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 된다.

이러한 대화함축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데 대화에서 표면적으로 대화 격률의 규칙을 준수하여 생기는 일반(표준) 대화함축(standard or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¹⁰⁾과 화자가 고의로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특정 대화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¹¹⁾이다. 표준 대화함축은 바로 이어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Grice의 대화의 협력원리인 대화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화함축이 추론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22) A: Where's my box of chocolate?

B: It's in your room.

(Leech, 1983: 94)

위의 (22)의 대화에서 A의 질문에 대해 화자의 초콜릿 상자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화자 자신의 방에 있다 것을 함축한다. 표면적으로 대화 격률의 규칙을 준수하여 생기는 함축에 의해 초콜릿 상자는 거실이나 부엌 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 곧 이어 설명하게 될 Grice의 협력 원칙과

10)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GCI): A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s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is carried by a saying of a proposition p in most ordinary contexts of utterance. (Blome_Tillmann, 2013)

11)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PCI): A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s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is carried by a saying of a proposition p in particular contexts. (Blome_Tillmann, 2013)

격률들이 준수되어 함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러한 표준 대화함축인데, 앞서 살펴본 고정함축과 일반 대화함축은 화용론에서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대화 표준의 의미로는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지만 기저 의미로는 대화 격률을 준수하는 함축인 특정 대화함축이 화용론의 주된 관심사이고 본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특정대화함축의 개념을 명백히 하여, 분석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미를 막연하게 말해진 것과 함축되어진 것, 또는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와 화용론적 의미(pragmatic meaning)로 구분하지만, 실제 경험적인 자료에 접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문자적 의미인지를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것을 진리 조건적 의미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진리 조건적 의미라는 그 한계가 모호한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언어 사용이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제인 특정대화함축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의미의 유형을 논의하고, Grice의 협력원리와 격률들이 함축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함축의 생성과정을 밝히고 특정대화함축의 내용과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Grice의 네 가지 대화 격률을 설명하고 그 격률을 위반하여 나타나게 되는 특정대화함축의 실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2.2 Grice의 대화격률과 격률위반으로 실현되는 특정대화함축

2.2.1 Grice의 대화격률과 협력원리

Grice(1975)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대화행위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려 하였다. 이성적 사고에 근거하여 대화에 있어서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위한 지침을 공식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의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서로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Grice는 이를 대화협력원칙(Conversational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격률(maxim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협력원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협력적인 언어사용을 위한 기본서가 된다. 즉,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화자는 쉽고 정확하게 적절한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고 청자는 들은 내용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Cooperative Principle(CP, 협력원리)

- Make your conversational contribution such as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현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도록 대화가 일어나는 현시점에 요구되는 기여를 해야 한다).

Conversational Maxims(대화의 격률)

a.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

-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specially
(진실하게 말할 것, 특히):
 - (i)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것을 말하기 말 것).

(ii)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b.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

(i)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현재 대화의 목적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ii)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 그 이상을 제공하지 말 것).

c. maxim of relation (관련성의 격률)

-Make your contribution relevant

(관련된 것을 말할 것).

d. maxim of manner (태도의 격률)

-Be perspicuous, and specially

(명확하게 말할 것, 특히):

(i) Avoid obscurity

(모호한 것을 피할 것).

(ii) Avoid ambiguity

(중의적인 것은 피할 것).

(iii) Be brief

(간결할 것).

(iv) Be orderly

(순서대로 말할 것).

(Grice, 1975: 45-46)

위의 Grice의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에 의하면 우리가 참여한

대화는 일정한 목표나 방향이 있고 대화 참여자들은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공헌 하라고 말한다. Grice는 이 협력 원리에 대한 하위 원칙인 기본적인 대화격률 네 가지를 제시한다. a의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은 대화에 공헌하도록 화자가 사실로 여기는 충분한 증거의 것만 말하라는 것이고, b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은 대화의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c에서 설명하는 <관련성의 격률(maxim of relation)>은 제공되는 정보가 대화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동문서답 식 대화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d의 <태도의 격률(maxim of manner)>은 제공되는 정보가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률들은 대화 참여자가 최고로 협력적, 이성적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화 하고 있다.

Grice의 CP와 각 격률이 준수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우선 <질의 격률>은 대화에 진실 된 기여를 하여, 거짓이라고 믿는 것이거나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격률이다.

(23) a. John has two PhDs.

b. +> I believe he has, and have adequate evidence that he has.

c. ?? John has two PhDs but I don't believe he has.¹²⁾

d. Does your farm contain 400 acres?

e. +> I don't know that it does, and I want to know if it does.

(Levinson, 1983: 105)

(23a)는 (23b)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준수한 발언이며, c는 b와 같은 함축이 있음에도 그 함축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또한 d는 e와 같은 함축을 지니고 있는 <질의 격률>을 준수하는 발언이다.

다음으로 <양의 격률>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의 격률>은 진행되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12) ?? 표시는 해당 문장이 화용론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임을 의미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4) a. Nigel has fourteen children.

b. The flag is white.

(Levinson, 1983: 106)

위의 (24a)에서 만약 Nigel 이 14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14명이라 단언한 것은 거짓이지만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Nigel에게 14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단언했기 때문에 단지 14명의 자녀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자녀가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Levinson, 1983: 106). (24b)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깃발은 다른 색이 없는 오직 흰색의 깃발이며, 다른 색상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양만 제시하라는 <양의 격률>을 지킨 예이다.

<관련성의 격률>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문의 발화는 현재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있다.

(25) Pass the salt.

+> Pass the salt now.

위의 (25)의 예문에서 명령문의 발화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에 소금을 전해 달라는 것으로서 현재의 시점과 관련성이 있다.

(26) A: Can you tell me the time?

B: Well, the milkman has come.

위의 (26)의 예문은 B의 대답이 A의 질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대화가 이해된다. 그러므로 A의 질문에 B가 CP를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B가 정확한 시각을 말하는 대신 우유배달부가 다녀간 것이 간접적인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우유배달부가 다녀간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될 것은 <태도의 격률>로, 이 격률은 대화를 명료하게 하고, 모호하고 중의적인 대화를 피하고 간결하고 순서에 맞게 말하라는 것이다. <태도의 격률>중 하위격률인 ‘간결하게 하라(be brief)’를 준수 했을 때의 예를 살펴보자.

(27) Open the door.

(28) Walk up the door, turn the door handle clockwise as far as it will go, and then pull gently towards you.

‘문을 열어라’는 명령을 하면서 위의 (27)의 문장을 발화하면 문자적 의미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로서 ‘간결하게 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준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의사소통에서는 특수한 경우, 즉 공동작업 중에 작업의 절차상 일어나거나, 청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의사소통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27)의 문장이 적절한 상황에 (28)의 문장을 발화한다면, 태도의 하위 격률 ‘간결 하라’를 어긴 것이고, 반면 문을 열기까지의 절차를 특정한 이유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면, (28)의 문장은 적절하며 <태도의 격률>을 준수한 것이다. 태도의 격률이 준수된 또 다른 예를 보자.

(29) Alfred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some whisky.

(30) Alfred bought some whisky, and went to the store.

(29)의 문장은 <태도의 격률> 중 또 다른 하위격률인 ‘순서대로 말하라(be orderly)’의 사례이다. 영어에는 두개의 의미를 가지는 and 가 있는데 하나는 순서에 관계없이 연결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순서를 가지는 의미가 있다. 위의 (29)의 예문에서 and는 두 번째 의미인 and then의 순서를 가지는 의

미이므로 그 가게에서 위스키를 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령 (30)의 문장이 상황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위스키를 그 가게에서 샀다는 함축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게에 가기도 전에 위스키를 샀다는 모순으로 청자의 이해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소통의 대화에서는 격률 준수에도 화행을 표현하는 발화수반력¹³⁾과 사회적 함언 등의 함축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함축의 영역에서는 발화수반력은 다루지 않고, 사회적 함언은 공손이론의 관심이 되고 있다.

2.2.2 격률위반과 특정대화함축의 양상

협력원리의 네 가지 하위격률을 지키게 되면 대화는 협력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31) A: 지금 몇 시인지 말해주세요.

B: 현재 시각은 오후 네 시입니다.

위 (31)예문은 앞서 말한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하는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다. 필요한 양만큼, 관련성 있는 답변,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여 간결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에서는 보통 위의 (31)의 대화가 더 어색하고 오히려 아래의 (32)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32) A: 지금 시간이 몇 시지?

B: 죄송해요.

13) Austin(1962: 98-101)은 후기 이론에서 발화 유형을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수정하였다. 발화행위는 발화행위를 하는 물리적인 행위들, 발화수반행위는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장이나 명령, 약속, 축하, 경고, 질문 같은 관습적인 행위들, 발화효과행위는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확신이나 설득과 같은 결과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80킬로인 거리를 100킬로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석 옆에 앉은 사람이 “이곳은 제한 속도가 80킬로이구만!”이라고 새삼 강조를 할 경우에, 이 발화는 단순히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가 아니라, 속도를 줄여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가 될 것이다.

격률을 지키며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관련성과 양의 법칙에 의하면 시간을 물었으니 지금 현재 시각을 답해야 하는데,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죄송해요’라는 대답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답변에 대한 필요한 양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습관적으로 늦는 학생이 이번에도 수업에 시각을 하여 선생님이 (32A)라고 말했다면 (32B)의 ‘죄송해요’는 문맥요소가 배경이 되면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을 충실히 지키는 문장이 된다. 즉, 보통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대화 참여자라면 (32)의 대화를 듣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게 된다.

(33) A: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수업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B: 죄송해요.

+> 수업에 늦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상위의 원리인 협력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발화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화 참여자가 상호 공유하고 있는 맥락인 수업에 늦은 상황으로 인해 (33)의 ‘A’의 발화가 단순히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대해 야단치는 것임을 알아차렸고 (33)의 ‘B’는 현재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맥락을 배제한 채 격률만을 지켜서 ‘현재 시간은 몇 시 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격률은 위반되었으나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의미를 해석하려는 추론의 기여를 통해 함축된 것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고, 격률의 상위 원칙인 협력원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Grice 또한 이 격률들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격률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상 의미 전달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격률의 상위 에 있는 협력원리로 인해 말해진 것(What is said) 이상의 의미인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이 대화 참여자의 추론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였다. Grice(1975)는 이러한 화자의 격률위반에 대해 ‘의도적 위반(flouting)¹⁴⁾’이라고 하며, 이때 그 발화는 ‘함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앞 서 언급한 ‘특정 대화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일반 대화함축의 추론 과정 보다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통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대화 참여자라면 대화가 성사되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원칙에 의해 이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34) A: Where is Jack?

B: There is an SUV outside Bill's house.

(Levinson, 1983: 102)

위 (34)예문의 ‘A’의 명시적 의미를 듣고 (34)의 ‘B’는 빌의 현재 위치를 답해 주어야 하는데,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을 어기며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는 ‘B’의 말에 관련 점을 찾게 된다. 즉 빌과 SUV차량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게 되어 그것이 잭의 자동차임을 알게 된다. 결국 ‘잭이 자동차를 빌의 집 앞에 세우고 그 집에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대화상 격률은 위반되었으나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의미를 해석하려는 추론의 기여로 그 이면의 함축의미를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상위 원칙인 협력 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Grice는 대화함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화자가 p 를 통해 q 를 함축할 때

- 1) 화자는 대화 격률 또는 적어도 협력원리를 준수한다고 가정된다.
- 2)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자가 q 를 생각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14) Ideally, people should apply the cooperative principle that consists of four maxims of conversation in their communication. Speakers usually obey these maxims to reach the purpose of the conversation that they are in to avoid any miscommunication. Flouting of maxims is a situation wherein a speaker manipulates a particular maxim that results in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Amer, 2018)

3) 화자는 1)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실상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고 화자와 청자는 상호 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Grice, 1975: 50)

또한 다음을 알고 있어야 대화함축 q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 a. 발화된 문장 (*p*)의 고정적 내용
- b. 협력 원칙과 대화 격률
- c. *p*의 맥락(예: 그것의 관련성)
- d. 배경 정보(예: *p*는 분명히 거짓이다)
- e. ‘a~e’는 화자와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는 상호 지식이다.

(Grice, 1975: 50)

Grice(1975)의 정의를 통해 대화 참여자의 추론 과정에는 대화 격률과 협력원리, 맥락, 배경 정보,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 실제 발화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화용론이라는 취지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화함축 중에서도 특정 대화함축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특정대화함축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는데, 언어철학, 화용론, 대화분석 등이 분야이다. 그 외에도 Sperber와 Wilson의 관련성 이론¹⁵⁾, Horn의 Q-원리, R-원리¹⁶⁾등 거의 모든 화용론의 이론들 역시 이 유형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도 Grice의 협력원리와 격률을 중심으로 특정대화함축의 실제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이 함축의 실현 양상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음의 (35)와 (36)의 예를 보도록 한다.

(35) A: Where are the keys?

15) Principle of Relevance: Every act of inferential communicatio carries a gurantee optimal relevance. (Sperber & Willson, 1995: 158)

16) The Q-principle matches the first Quantity maxim: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The R-principle incorporates the second Quantity maxim: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t is required. and furthermore the Maxims of Relevance and Manner.(Horn, 1984)

B: They're on the table in the hall.

(Thomas, 1995: 64)

(36) A: What on earth has happened to the roastbeef?

B: The dog is looking very happy.

(Levinson, 1983: 126)

(35)의 문장은 명료한 내용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했고 적정량을 지켜 말했으며 질문과 관련된 답을 함으로서 네 가지 격률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서 특정 함축은 발생하지 않았다. (36)의 문장은 반대로 네 가지 격률을 모두 어기고 있다. 소고기 구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대답에 개의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대화에서는 CP(협력원리)가 준수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가 기분이 좋다는 것은 즉 그 쇠고기를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쇠고기를 개가 먹어버렸다고 함축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는 격률위반에도 CP를 가정함으로서 특정대화함축을 생성하고, 청자는 CP를 가정함으로서 이 발언에서 새로운 해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35)의 문장과 같은 사례는 특정대화함축이 일어나지 않지만, (36)의 문장에서는 격률을 위반함으로서 특정대화함축이 일어난다.

이제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실현양상을 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Grice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대화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도적 위반 또는 활용(floutings or exploitations)이라 했다. 또한 Thomas(1995: 65)는 격률위반이란 화자가 의도적으로 격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할 때에 함축이 발생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화규칙을 어김으로 화자는 청자가 그 명제를 확대 해석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2.2.2.1 질의 격률위반과 함축실현 양상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는 다음 대화를 보도록 하자.

(37) A: Teheran's in Turkey, isn't it?

B: And London's in America I suppose.

(Levinson, 1983: 110)

위의 (37)의 대화에서 B가 런던이 미국에 있다고 말한 이유는 고의로 <질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A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함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은유의 예문에서도 <질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은 예를 살펴 볼 수 있다.

(38) Harry's a real fish.

- +>a. He drinks like a fish.
- +>b. He is cold-blooded like a fish.
- +>c. He is slimy like a fish.
- +>d. He swims like a fish.

(Brown & Levinson, 1987: 222)

(38)의 예문에서 사람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참이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어도 위의 예문은 a-d를 함축할 수 있다. 이것은 물고기의 특성을 빌어 Harry를 묘사한 것으로 오히려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다. Grice의 격률위반이 언제나 의사전달의 최대 효율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Sperber와 Wilson(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성을 모색하는 추론과정의 노력도 높게 나타나지만, 함축의미로 화자의 내용 전달의 효과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문의 a의 함축 내용을 사실 그대로만 묘사하여 'He drinks a lot.' 이라고 하는 것보다 'He is a real fish.' 라고 하는 것의 전달 효과와 인상이 더 클 수가 있다. <질의 격률> 위반의 실현 양상은 일반적으로 수사적 표현과 관련되고, 은유법(metaphor), 반어법(irony), 과장법(hyperbole) 그리고 완서법(litotes)¹⁷⁾ 등으로 나타난다(Grice, 1975). 이외에도 <질의 격률>을 어긴 경우가 유머(humor)로 실현되기도 한다.

우선 은유법으로 실현되는 격률위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은유라는 도구를

17) 완서법은 의도하는 바를 약하게 표현하여 오히려 강하게 전달하려는 수법을 말한다. 가령, 화자가 어떤 사람을 폭행하여 다 죽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약간 손 좀 봐줬지'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 발화된 것보다 화자의 힘이 세다는 강조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이현진, 2000: 85)

이용해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주장을 강화한다. Levinson(1983)에 의하면 은유법은 명사 은유, 술어 은유, 문장 은유로 나눌 수 있다고도 하였다.

1. nominal metaphor(명사 은유):

Iago is an eel (Iago는 장어이다.)

2. predicative metaphor(술어 은유):

Mrs. Grandhi steamed ahead (Grandhi 여사는 전속력을 냈다.)

3. sentential metaphor(문장 은유):

A: What kind of mood did you find the boss in? (사장에게서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B: The lion roared(사자가 으르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Levinson, 1983: 172-174)

다음은 신문 기사의 한 부분과 이를 보고 올린 독자의 댓글이다.

(39) A: 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진실’... 후배 K씨는 ‘거짓’

(스포츠 서울, 2013.04.01)

B(이를 보고 독자가 올린 댓글): 이 드라마 진짜 흥미진진하네.

실제의 사건을 ‘드라마’로 지칭한 명사 은유의 예이다. 실제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은유하여 사건의 ‘흥미진진함’을 강조하고 있다.

(40)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다.

(매일경제, 2018.10.02)

이 (40)의 예문 역시 실제 뜨거운 감자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명사 은유를 통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반어법으로 실현되는 격률위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반어법은 화자의 본래 의도와 반대되는 진술을 통해 특정 대상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 및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본요금(3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다” (중앙일보 2018.10.02)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아파트가 20억 가는데 4천원쯤이야 ...” 의 ‘...쯤이야’라는 말은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의미인데,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더불어 택시요금 인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영화 속에 나타난 <질의 격률> 위반 사례를 미국영화, *NOTTING HILL*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례의 <질의 격률> 위반을 통해 화자는 반어법, 그 중에서도 이 대화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41) ① William: Excuse me.
 ② Thief: Yes.
 ③ William: Bad news.
 ④ Thief: What?
 ⑤ William: We've got a security camera in this bit of the shop.
 ⑥ Thief: So?
 ⑦ William: So, I saw you put that book down your trousers.
 ⑧ Thief: What book?
 ⑨ William: The one down your trousers.
 ⑩ Thief: I haven't got a book down my trousers.
 ⑪ William: Right well, then we have something of an impasse. I tell you what I'll call the police and, what can I say? If I'm wrong about the whole book-down-the-trousers scenario, I really apologize.
 ⑫ Thief: Okay. What if I did have a book down my trousers?
 ⑬ William: Well, ideally, when I went back to the desk, you'd remove the Cadogan guide to Bali from your trousers, and either wipe it and put it back, or buy it. See you in a sec.

(*NOTTING HILL*, 2005)

위의 (41)의 영화에서 William은 서점 주인인데 서점에서 책을 몰래 훔치는 도둑을 CCTV를 통해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다. William의 목적은 훔친 책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간단하게 ‘Return my book’이라고 발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William이나 도둑 모두 책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의사 전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Grice의 격률들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담화사건에서 thief(도둑)은 책을 훔친 사실을 발언차례가 6회가 지나도록 부인하고 있었으며, ⑫에서 가정법 과거형 구문, ‘What if I did have ...?’으로 현재 사실의 반대로 표현하면서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즉, 책을 훔친 사실을 명시적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표현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지만 오히려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훔친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함축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thief의 발언 ⑫에 대한 응대로서 A가 한 발언 ⑬에서도 현재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구문, ‘When I went back..., you'd remove ...’으로 현재 사실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질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사실을 나타내는 함축을 표현하고 있다. 책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이 담화 사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William은 7회의 발언차례를 진행하다가, ⑦에 이르도록 B가 훔친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양의 격률>또는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William 이 ①③⑤에서 간접표현을 한 것은 thief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공손성의 의도로 Grice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Leech, 1983), ①③⑤⑦의 William의 발언 ‘비명시적 표현을 하라’는 소극적 공손 책략 중 ‘힌트를 주라’는 책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 Levinson, 1987: 213). ⑬의 가정법 구문의 발언도 <질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것은 Thief에 대한 공손 책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rice(1975)의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동기는 Leech(1983),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hief가 발언한 가정법 구문인 ⑫를 현재 사실의 반대로 해석하지 않고 책을 훔친 사실을 thief가 인

정한 것으로 William은 해석했지만, William은 공손의 책략으로 가정법 구문인 ⑬으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지만 thief로 하여금 실제사실로 해석하도록 함축하고 있다. Arudale(2001)의 의사소통의 공동구성이론과 신 해석 원리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발언으로 새로운 해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웃음이나 해학을 유도하는 예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 A: I'm the prettiest in the class.

B: I'm the president in the country.

교실에서 한 학생이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하고 있는데, 친구의 대답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라는 대답을 한다. 사실이 아닌 발화로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즉, 이 친구의 대답은 자신이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Parker & Riley, 2010). 이처럼 특별 한 의견을 피력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댓글의 화자는 <질의 격률>위반을 통해 유희적인 발화를 수행하며, 이로써 유머와 해학이 촉발되었다.

과장법 역시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실현되는 현상이다. 한국영화 *건축학 개론*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보겠다.

(43) ① 서연: 내가 주말에 와서 다 치웠어. 쓸고 걸레질 다하고. 이제 여기 내 집이야. 여기다 꽃을 심었거든.

② 승민: 가을에도 꽃을 심어? 무슨 꽃인데?

③ 서연: 궁금하지? 안 가르쳐 줘.

(*건축학 개론*, 2011)

주인공인 서연은 시골 가난한 집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친척집에서 자기 방도 없이 조카와 눈치를 보며 생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한 한옥 촌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학교 친구인 승민과 우연히 빈집을 발견

하게 되었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었던 서연이 그 집을 조금씩 치우고 가
 끈다. 이를 어느 날 승민에게 공개하는 장면이다. ①번 발화에서 서연은 자신의
 집이 아니지만 “이제 여기 내 집이야.” 라고 말하며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 이
 는 자신이 얼마나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싶은지를 과장하여 말하는 것
 이고,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지만, 청자인 승민은 CP를 추론하여 그 뒤에 숨은
 서연의 마음을 읽는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가을에
 도 꽃을 심어? 무슨 꽃인데?”라고 자연스럽게 마치 이 집이 서연의 집이 된 것
 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 그 빈도는 낮으나 완서법도 나타나고 있고
 했는데, 완서법이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규모나 중요성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
 거나 적게 나타내는 화법이다. 그 예를 한국영화 ‘과속스캔들’의 한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4) ① 현수: 네. 앞 분이 너무 잘 해 주셔서 긴장되시겠어요. 앞 분보
 다 더 잘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신 노래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그럼, 들어보시죠~.
 (정남의 무대가 시작된다.)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은 두 사람.)
- ② 현수: 좀 합디다?
 ③ 정남: 좀 하죠.

(과속 스캔들, 2008)

현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젊은 시절에 실수
 로 자식과 거기에다 손자까지 생기게 된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던 그는 이 사실
 에 놀라며 절대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하지만 결
 국 현수가 진행하는 라디오 쇼의 노래경연에 딸 정남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 딸이 못 마땅하며 아직도 인정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을 난처하게 하
 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현수는 정남이 정말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고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는 전혀 알 지 못했고, 무대를 통해 알려진 모두가 놀랄만한

정남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대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좀 합디다?(②)”라고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 매우 잘 하지만 ‘좀 한다’라며 실제보다 훨씬 그 정도를 적게 표현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질의 위반을 통해 표현하였고, 청자 역시 CP의 기본 추론 하에 같은 맥락으로 “좀 하죠.(③)”라고 마찬가지로 <질의 격률>위반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위의 (44)의 예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완서법은 보통 부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흔히 쓰이는 ‘나쁘지 않아’, 또는 ‘보통 숨씨는 아냐’ 같은 표현이다. 조직 폭력배가 다른 패를 거의 사망에 이르기 까지 폭력행사를 하고 와서는 ‘손만 조금 봐주고 왔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완서법은 대체로 삼가서 말함을 뜻하는데, 고대 영시와 아이슬란드 사가(saga)에 나오는 특유한 문체인 곡언법도 완서법의 한 형태로 이 작품들의 특징인 금속적 절제에서 연유한 것이다.

2.2.2.2 양의 격률위반과 실현 양상

<양의 격률>의 위반 되는 경우는 보통 자신의 믿음을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대화 참여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과장법이나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공손성, 또는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자랑, 감탄을 표현하기 위한 향진명제 등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대화 상대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용하며, 기쁨, 슬픔, 화남, 변명, 핑계, 당황, 과시, 주장, 동조, 이해를 얻고자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함축을 유도한다. 다음의 <양의 격률>이 위반된 예를 보자.

(45) A: I am out of petrol.

B: There is a garage around the corner.

(Grice, 1975: 51)

위의 (45)에서,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A의 발화인데, 차의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묻는 내용으로 전개된 것임을 B의 답변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A는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

저 기름이 떨어졌다고만 했는데도 B는 장소를 알려 주었다. A는 자신의 상황을 B와 함께 하고자 하는 친근감을 나타내고자 함축적인 표현을 하면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청자는 CP를 가정하고 화자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추론한 것이다. 즉, 이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CP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6) A: Where does he live?

B: Somewhere in the south of France.

(Morgan, 1975: 51)

위의 (46)의 예문에서 B의 대답은 A의 질문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답변으로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말해주지 않고 의미 없을 정도의 큰 장소인 프랑스 남부라고 답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을 적게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준수한 것이거나, 대화의 목적상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는 것이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지 않기 위해 <양의 격률>을 지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제 발화에서는 맥락과 CP준수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는 <양의 격률>을 어기면서 대화 상대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함축을 나타내고자 한다.

(47) A: What are you reading, son?

B: I'm reading...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주어진 질문에 적절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위의 (47)의 예문에서는 필요한 양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 어머니가 A의 질문을 책을 보고 있는 아들에게 하고 있다. “뭘 읽고 있니?”라는 이 질문에 아들은 “책 읽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양의 격률>을 따른 알맞은 대답은 바로

‘어떤 책’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아들의 대답은 그 대답의 양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양의 격률>을 어김으로서 아들이 자신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알려주기 싫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기 싫은 상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자 하는 것이다(Parker & Riley, 2010). 우선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사례로 과장법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48) ① Marion: Your Father does not have a job. He lost his job, okay? Do you need him to come in here and explain that to you? Of course he wouldn't do it anyway, he's Mr. Nice Guy. I always have to be the Bad Guy.
- ② Ladybird: Can we please talk about this tomorrow?
- ③ Marion: You can't look like a rag because that makes us look like rags. And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re's the truth: some of your friends' fathers could employ your father and they won't do that if it looks like his family is trash.

(LADYBIRD, 2017)

이 담화사건의 참여자는 모녀관계이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 Ladybird의 행동이 항상 못마땅한 엄마 Marion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실직이라는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남자친구와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딸의 정리 안 된 지저분한 방을 보고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다. ①번의 남편의 실직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반복해서 필요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하자고 하는 딸의 ②번 발화에 엄마는 ‘방을 오늘 치우라’던가, 아니면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 하는 대신에 그 이전의 쌓인 감정을 더해 과다 정보를 제공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번 발화, “이런 식으로 녀마 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허름해 보이면 안 돼. 사실을 알고 싶어? 사실은 바로 이래. 아마 네 친구들의 아빠들 중에 너의 아빠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고용할 사람의 가족들이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걸 보게 되면 채용하고 싶겠니?” 라고 필요 이상의 정보 제

공으로 Grice의 <양의 격률>을 위반하며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절실히 전하고 싶은 것이며 방과 옷을 잘 정리하라는 내용을 과장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항진명제(tautology)로 실현되는 격률위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항진명제란 술어의 언어가 달라도 문제가 없이 항상 진리인 문장을 말한다. 즉, 항진명제는 언제나 성립하는 명제로서, 예를 들어, ‘ p 이면 p 이다’처럼 언제든지 성립하는 명제이다. $p \Rightarrow p$ 로 쓸 수 있고 이와 비교해서 조건명제는 만약 p 이면 q 이다와 같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참이 되는 명제이다. 항진명제의 예를 들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은 낙마이다’ ‘War is war’, ‘If I perish, I perish(Esther, 4:15)’ 등 이고, 항진명제라는 논리성에 기대어 가르치기, 자랑하기, 감탄하기의 함축을 나타내고자 한다. 현대에는 특히 광고를 통해 항진명제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다음은 독일의 광고 카피들이다.

- (49) Nur der Aspirin ist Aspirin (아스피린만이 아스피린이다). (*Aspirin*-아스피린 광고)
 - (50) Persil bleibt Persil (퍼실은 퍼실로 남아 있습니다). (Waschmittel-세제 광고)
 - (51) Wer hat, der hat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가?). (Cross, Schreibgeräte-필기구 광고)
 - (52) Damit nichts passiert, wenn was passiert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Ihre Unfallversicherer-손해 보험 광고)
- (이민행, 2000:6)

독일의 광고를 통해 격률위반을 함축과 관련하여 연구한 이민행(2000)의 논문에 따르면 수많은 광고 카피들이 항진문장과 공유지식이 요구되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함축하는 공손성에 대한 사례이다.

(53) Sarah: Did you enjoy the party last night?

Anna: There was plenty of oriental food on the table, lots of flowers all over the place, people hanging around chatting with each other...

(*DINNER FOR SCHMUCKS*, 2010)

위의 영화 (53)의 장면에서 Sarah는 Anna에게 전날 파티에 대해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파티가 훌륭했다, 또는 흠족하지 못 했다 로 충분하나 “테이블에는 동양 음식이 엄청 많았고, 사방에 많은 꽃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라며 필요 이상의 정보로 <양의 격률> 을 위반하고 있다(Khosravizadeh & Sadehvandi, 2011). 파티를 준비한 SARAH에 대한 배려의 표현으로 파티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여러 문장을 통해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2.2.2.3 관련성의 격률위반과 실현 양상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발생하는 대화함축의 빈도는 비교적 높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함축을 추론할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고 문화를 공유하기에 대화의 시점에서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도 화자와 청자는 충분치 않은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 할 수 있고 결국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시야?’라고 하는 남편의 질문에 ‘신문 이미 왔네요’ 라고 부인이 대답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겠으나, 부인의 대답은 시간과는 관련성이 없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부인의 말은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문이 이미 왔으니 대략 평소에 신문 오는 시간이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상황이다(Parker & Riley, 2010). 같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상황이다. “몇 시야?”라고 묻는 질문에 한 친한 친구가 “시계는 고물상에 팔아버렸어?”라고 답한다면 몇 시라고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시계의 소유 여부를 묻는 관련성 없는 답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화자가 의도하는 함축의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유머로 나타나는 함축이다. 진행되

고 있는 상황 정보와 발화 내용의 관련성이 불일치되는 발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직접화법으로 표현하기보다 간접화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간접화법이란 사실 진술이나 설명을 하는 문장구조인 평서문이나 질문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구조인 의문문 형태를 빌어 간접적으로 명령이나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로 풍자나 비난을 함축하고 네 번째로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흐름을 무시한 채 본인의 생각을 갑자기 제시하며 공손함을 위배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공손함은 한국에서 손윗사람에게나 상사에게 대하는 공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공손성이 위반된다고 하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손성 이론(politeness theory)의 기념비적인 연구로 볼 수 있는 Brown 과 Levinson(1978)이론을 보면, 이 이론의 핵심은 Goffman(1967)의 ‘체면(face)’개념인데 그들은 이를 약간 수정하여 공손이론의 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두 가지 체면을 그 요소로 한다.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방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the want of every competent adult that his actions be unimpeded by others)’인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적어도 일부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마음(the want of every member that his wants be desirable to at least some others)’이라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으로 나뉜다.

- a. The universality of face, describable as two kinds of wants.
- b. The potential universality of rational action devoted to satisfying others' face wants.
- c. The universality of the mutual knowledge between interactants of (a), (b).

(Brown & Levinson, 1987: 243-244)

〈관련성의 격률〉에서 ‘관련된 것을 말할 것’(Grice, 1975: 49)라고 했지만 우리는 일상대화에서 항상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현재에 대화에 관련

된 것만을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갑자기 다른 사건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 화제 전환을 하고 싶거나,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돌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흐름을 갑자기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발화는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소극적 체면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대화의 흐름이 다른 사람의 발화에 의해 방해 받거나 중단되기를 바라지 않는 소극적 체면이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 모두 미묘한 대화보다는 재미와 멋을 더하기 위함이어서 비교적 독창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된다.

다음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함축이 유머로 나타나는 경우를 영화 ‘킬러들의 수다’ 대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재영: 그래 그냥 막말로 가서 쏘고 오면 돼. 그럼 끝나. 근데 어떻게 나와... 우리가 계획했던 곳들 경찰들이 다 깔렸어. 들어갈 입구는 많아도 출구는 하나도 없는데 공연 중간에 나가.

정우: 그건 실례지.

(킬러들의 수다, 2001)

영화에 나오는 재영과 정우는 전문적인 킬러다. 의뢰인들은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그들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날짜에 일을 처리해 준다. 위의 (54)의 장면에서도 이 두 사람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청부살인을 위해 마구 총을 쏘고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작전을 짜며 공연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 재영의 말에 공연 중간에 나가는 건 관객으로서 실례라는 말로서 작전 전개 분위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말로 긴장감이 도는 상황에 유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공손성을 위배하는 경우의 예이다.

(55) A: Mrs. X is an old bag.

B: The weather has been quite delightful this summer, hasn't it?

(Grice, 1975: 54)

위의 (55) Grice의 예문을 보면, 화자 A는 Mrs. X를 할망구(old bag)라고 속어를 사용하면서 비방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화자 A의 발화에 청자 B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날씨라는 화제를 꺼낸다. 화자의 맥락을 이어서 같이 응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금 Mrs. X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성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이 대화에서 대화참여자의 협력 원칙에 의해 B는 A가 함축하려는 바를 추론하게 되면 대화는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의 사례 역시 공손성을 위반하여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56) Father to daughter at family dinner: Any news about the SAT results?

Daughter: Ice-cream anyone?

성적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묻는 상황에서 흔히 위반되는 관련성의 사례이다. SAT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딸은 성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이 있느냐고 화제를 전환한다. 대화 협력의 원칙하에 아버지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관련 없는 주제를 꺼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번에는 풍자, 비난으로 나타나는 <관련성의 격률> 위반의 경우를 다음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57) A: Hey, Sally, let's play marbles.

B: How is your homework getting along, Johnny?

위의 (57)의 예문을 보면, 화자 A는 Sally에게 구슬치기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 아이들의 놀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숙제라는 화제를 꺼낸다. 놀이 이야기를 하는데 숙제 이야기는 관련성이 없지만 대화에의 기여라는

CP에 따라 숙제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서 Sally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비난 섞인 의도를 화자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격률을 어기더라도 대화당사자들은 그 상위 원칙인 CP를 지키려고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즉, 화자의 의도가 처음부터 청자와 대화를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을 어기게 되어 하위 함축이 일어나지 못해 결국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청자는 이해하지 못해 대화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경우이다. 미국영화 ‘TRUMAN SHOW’ 중 한 장면인 다음 (58)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관련성을 어기는 경우로 이를 어김으로서 실현될 수 있는 ‘유머’, ‘간접 화법’, ‘공손’, ‘풍자’ 및 ‘은유’ 중 그 어떤 함축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화자의 대화 협조 의지의 부재로 시작된 발화여서 이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는 실패로 끝난다.

(58) ① Truman: Why do you want to have a baby with me? You can't stand me.

② Meryl: That's not true! Why don't you let me fix you some of this new Mococoa drink. All natural cocoa beans from the upper slopes of Mount Nicuragua, no artificial sweeteners.

③ Truman: What the hell are you talkin' about? Who you talkin' to?

④ Meryl: I've tasted other cocoas. This is the best.

⑤ Truman: What does this hafta' do, with anything? Tell me what's happening!

(TRUMAN SHOW, 1998)

이 대화 사건에서 Truman은 부인인 Meryl에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 “왜 아이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날 견딜 수 없을 텐데(①).”에 대해 부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새로 나온 코코아 음료인데 좀 타 줄 까요? Nicuragua 산의 저 높은 곳에서 생산한 천연 코코아 원두

로만 만든 건데, 인공 감미료도 전혀 안 들어 간 거예요(②).”와 “다른 코코아도 다 먹어 봤는데, 이게 최고더라고요(④).”라며 아이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Mount Nicuragua라는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Truman 자신만 모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이 매일 생방송 리얼리티로 방송되고 있다는 설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씩 서로의 대화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상품을 광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이 장면 역시 아이를 가지는 이야기로 음식을 선전하고자 하면서 이 관련성을 청자인 Truman은 알 수 없다. 그러나 Truman은 부인의 발언에 대해 CP를 가정하며 부인이 이 대화 사건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으며 관련성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부인이 Truman을 현실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전혀 청자가 이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대화이다.

Leech와 Thomas(1988: 15-16)가 Grice 이론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중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알려면 그 맥락에서 참여자 모두 동일한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제한점이 있다. 만일 대화 참여자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화자와 청자는 의도했던 화용론적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거나 대화성립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격률의 의도적 위반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지는 않고, 대화참여자들이 CP하에 함축이 일어나 대화가 성립되는 경우들과 그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격률위반 현상들을 대부분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칫 밋밋하고 건조할 수 있는 대화를 풍요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2.2.2.4 태도의 격률위반과 실현 양상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함축은 1차적인 해석 뒤에 숨겨진 2차 해석을 요구하며 대화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의성과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풍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부풀려 강조하거나, 공손성 또는 공손하게 거절하기로 실현된다. 다음 예문을 통해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 (59) a. Miss X produced a series of sounds corresponding closely
with the score of 'Home Sweet Home.'
- b. Miss X sang 'Home Sweet Home.'

(Morgan, 1975: 55)

〈태도의 격률〉은 ‘모호한 것을 피할 것,’ ‘중의적인 것을 피할 것,’ ‘간결할 것,’ 그리고 ‘순서대로 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9b)에서처럼 “Miss X는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간결한 표현을 쓰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59a)의 “Miss X는 ‘Home Sweet Home’의 악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소리를 만들어 냈다”고 표현한다면 Miss X의 노래 솜씨가 형편없다는 것을 함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결하게 말하라는 하위 격률을 여기는 〈태도의 격률〉위반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격률을 위반으로 일어나는 함축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되는 진리조건과는 관계없이 청자로 하여금 논리적이 아닌 일상적인 추론으로 새로운 해석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손성으로 실현되는 격률위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 (60) ① Tarquin: You've brought her flowers?
- ② William: No -- they're... for my grandMother. She's in a hospital nearby. Thought I'd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 ③ Tarquin: I'm sorry. Which hospital?
- ④ William: Do you mind me not saying -- it's a name of the hospital rather gives it away.
- ⑤ Tarquin: Oh sure. Of course.
- ⑥ Karen: Mr. Thacker. You've got five minutes.

(NOTTING HILL, 2005)

Tarquin이라는 기자는 William이 한 여배우의 기자회견장에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고 그 용도를 묻는다. 이것이 이 대화사건의 화제이다. “그녀에게 주려고 꽃을 가져 온 거 예요(①)?”라고 기자가 William이 가지고 있는 꽃다발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William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에게 드릴 거 예요. 이 근처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처에 온 김에 드리면 되니까 일거양득인 셈이죠(②).”라고 말한다. 이 발언에서 꽃다발을 가져온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으며, 기자는 William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자는 William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William은 기자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자에게 자신의 발언의 진실성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기자가 William에게 꽃다발을 가져온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William은 그 꽃다발을 여 주인공인 배우 Ann에게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여 Ann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차릴 것을 염려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William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Brown 과 Levinson (1987: 104)의 적극적 공손의 책략 중 ‘청자에 대한 관심, 인정, 공감을 과장하라’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Grice의 <질의 격률>과 할머니의 병명을 애매모호하게 돌려 말함으로서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태도의 격률>도 위반하고 있다.

2.3 대화함축의 문제점과 문화적 요소

2.3.1 대화함축의 문제점

Grice(1975)의 대화격률과 대화함축은 화용론에서 의사소통과 이미지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Grice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일반적인 당위성에 대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대화 격률은 의사소통에 준수하여 추론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61) A: Today, March 23rd, the Mate was drunk.

B: Today, March 26th, the Captain was not drunk.

(Searle, 1980: 179)

위의 (61)의 대화를 보면, Mate는 항해사이고 술을 매우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선장은 반대의 성향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술이라는 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관계라고 가정해 보자. Mate를 징계하려고 기회를 보던 선장이 어느 날 술에 취해 난장판을 벌이는 Mate를 보고 기록계에 ‘금일, 3월 23일, Mate가 술을 마심(61A)’이라고 적어 놓는다. 며칠이 지나고 Mate는 기록계를 확인하다가 이 글을 발견하고 ‘금일, 3월 26일,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음(61B)’이라고 적는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글만을 보면, 선장이 다른 날에도 술을 안 마셨고, 26일에도 술을 안 마셨다는 것인지, 26일 하루만 제외하고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후자의 문장으로 해석되는 의도로 화자가 기록한 것이라면 <질 의 격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므로(Searle, 1980: 179), 청자와 화자 간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Mey, 1993: 71). 즉,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한다고 할 수 있는 대화함축이론은 추론 과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John is a tiger’라는 예문의 해석은, John이 학예회나 다른 모임에서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호랑이 역을 맡

게 되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가 호랑이처럼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자와 화자 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상황 맥락 속에 그 함축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는데 대화함축이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둘째, Gazdar(1979: 54)에 의하면 대화함축은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다. Grice의 격률이론을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람마다 각각의 성격이나 언어 습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말 할 때에는 더욱 더 그 차이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화자와 청자는 정상적인 대화함축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대화함축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One such community is discussed in Keenan(1976), where she shows that Malagasy speakers make their conversational contributions as uninformative as possible.

(Gazdar, 1979: 54)

위의 Gazdar의 주장에 따르면 말라가시어의 경우, 화자는 대화의 발언내용을 가능한 한 비정보적(uninformative)으로 하고자 한다고 한다. 말라가시어 화자는 기술된 문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행위자를 생략한다. ‘John spilt the juice yesterday’라는 문장을 말라가시어 화자들은 주어 생략하고 ‘Spilt the juice yesterday’라고 쓴다. 또한 화자 자신이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도 직접 호칭을 피하고 보통명사 someone이나 a girl등을 사용 한다¹⁸⁾. 동작이나 상황의 주체를 드러내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이들의 언어, 문화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주라’는 <양의 격률> 위반과,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료하게 말할

18) 말라가시어(Malagasy language)에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예절의 규칙이 요구되므로, 일인칭 대명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A라는 이름의 소년이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 자기의 누이동생인 B의 이름을 빌어 “B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Fasold, 1990)

것'이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떠한 함축을 실현하는 것인지 대화 협력의 법칙에 따라 청자는 추론하게 되겠지만, 말라가시문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이다. 이처럼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대화함축이론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There is the issue of the inter-cultural differences as to what people assume to be cooperative behaviour; in this respect, cultures can be very different, with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 naive, would-be cooperative conversationalist.

(Mey, 1993: 174)

위의 Mey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화 할 때 서로 협조한다고 하는 바로 그 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한다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

Kussmaul(1995)은 문화권 사이의 거리가 멀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서양에서는 용은 악을 상징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의 상징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Dobrzyska(1995) 역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은유적 발화가 동일 언어권 화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명료하지만, 전제가 되는 공통의 지식이 좁아질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hawks and doves'의 경우 '매와 비둘기'라는 문자적 의미 외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즉 '강경파와 온건파'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경우 비슷한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불어권에서는 'faucous et colombes'라고 해당 대상을 그대로 바꿔 옮길 수 있지만 해당 상징이 일치하지 않는 동양권의 경우에는 '저 사람은 매이다' 또는 '이 사람은 비둘기이다'라는 함축을 그대로 옮겼을 경우 서양권의 사람들 보다 이해도가 떨어진다. 물론 이는 이제는 익숙한 표현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강경파라고 부가 설명을 붙이지 않고 바로 다짜고짜 '당신은

비둘기 입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는 의사소통에 무리가 있다.

Nida와 Taber(1969) 역시 함축의 문제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기술하면서 ‘심장(heart)’의 예를 들고 있다. 사물의 중심이 되는 곳이나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심장’을 아프리카인들은 해당 표현에 ‘간(liver)’을 사용한다고 한다. 일차적 의미에서 파생된 부차적 의미를 토대로 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Nida 와 Taber는 이러한 표현들이 중의적인 경우가 많고 관습적이어서 특정 문화나 언어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여우(fox)는 서구 유럽문화권에서는 ‘deceptively clever’라는 속성으로 유효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와 유사한 동물로 ‘토끼’나 ‘거미’ 등 다른 동물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대화 함축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행위가 선호되는지 주지시켜주지 못한다. 실질적인 대화협력은 의사소통행위 이전의 범주에 속한다(Levinson, 1983: 103).

(62) A: I've just run out of petrol.

B: Oh, there's a garage just around the corner.

(Levinson, 1983: 104)

위의 예문에서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62A).”는 말에 청자는 “오, 모퉁이를 돌면 주유소가 있어요(62B).” 라고 답한다. 그러나 주변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화자의 이 발언이 과연 주유소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것인지, 견인차를 불러 달라는 것인지 또는 그 외의 다른 요청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격률위반의 문제는 대화 협력원리의 화용면에서 언어 행위가 선호성을 가지느냐에 주의하여 말을 해야 한다.

넷째, Leech 와 Thomas(1988: 15-16)는 하나의 함축으로 화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격률위반으로 청자는 화자가 의도했던 화용론적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시간이 지연된다. 또한 특정대화함축에서의 격률위반의 경우 대화참여자 간에 모두 동일한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발화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다.

다섯째,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곧 도덕적인 가치를 어긴다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고 Mey(1997)는 주장하고 있다. <질의 격률>의 예를 들어 Grice의 이론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ey의 주장을 준수하여 대화를 할 경우 매번 발화시 대화참여자들은 반드시 증거가 분명한 한지를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의 양은 크게 줄어들거나 언제나 조심스러운 대화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심리라는 요소에 의해 어떤 격률이 우선되는지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면을 그 어떤 면보다 중요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격률은 어길 수 있어도 <질의 격률>은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화자 자신의 발화나 청자의 입장에서 <질의 격률>위반을 매우 큰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이를 대화 협력원리의 큰 틀로 이해하여 추론을 해야 하는 경우 추론이 이루어 지지 않고 대화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격률의 중요도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실현되는 것을 대화함축이 모두 설명해 주지 못한다(강미경, 2001).

2.3.2 문화적 요소

위에서 설명한 대화함축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 중에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언급한 ‘대화함축이 문화적인 차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Gazdar, 1979: 54)’는 점과 마지막인 여섯 번째로 언급한 ‘사람의 심리에 따라 격률의 중요성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강미경, 2001)’이다.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실제 대화에서 Grice의 대화의 격률들이 지켜지지 않고 위반되는 경우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특별한 함축이 요구되는데, 대화 참여자 간 배경지식이나 대화맥락 등의 영향으로 내용이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 간의 공통된 이해는 함축을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점이라는 것이다. 위의 함축의 문제점 중 여섯 번째로 언급되었던 대화 참여자의 심리에 관련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중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문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화 함축의 실현 양상을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문화라는 것은 음악, 미술 등 예술에 반영된 지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인류학적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 삶의 모든 측면, 즉 광의의 문화를 뜻한다고 이해승은 주장한다. 인간 활동의 한 측면인 언어도 그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적 함축은 어휘나 해당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서 해당 문화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문화적 배경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어휘의 문자적 의미 외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연적, 간접적 함의를 이해해야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함의가 특정 문화권 구성원들 사이에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승, 2008)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화함축의 실현 양상을 연구하고자 본 논문은 미국, 한국, 스페인의 영화를 대상으로 각 언어 화자의 격률위반 양상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이 세 국가의 영화 비교분석을 통해 각 문화별로 어떤 격률이 어떤 양상으로 위반 되어 함축을 발생시키는지 문화별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화용적 말하기 사건을 둘러싼 가장 거시적인 차원의 맥락(이성범, 2012)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참여자들의 개인적 믿음이나 생각의 수준을 넘는 사회적 공론, 사상, 제도와 문화 등이 발화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⁹⁾.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요인의 예를 보면, 영어 문화권에서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호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비해 한국어의

19)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기준 시간은 그 특정 말하기 사건만을 위한 특정시간으로서의 단일 연대기적 시간(monochronic time)이 아니라 그 사건의 유형화를 통해 일반화된 다중 연대기적 시간(polychronic time)이며 기준 공간도 그 말하기 사건이 일어난 특정 공간으로서의 단일 장소적 공간(monolocal space)이 아니라 그 사건의 유형화를 통해 일반화된 다중 장소적 공간(polylocational space)이 된다. 즉 이런 수준에서의 발화는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다른 비슷한 화청자에 의해 재연이 가능하고 반복될 수 있는 말하기 사건으로 유형화 되고 대화참여자는 각자가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를 공공의 무대(public stage)에 보여주는 배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된다. (이성범, 2012: 38-39)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구나 그 상대가 성인 여성인 경우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이모’ 등으로 부르며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지칭하는 방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란 다른 사람에게 불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의 대화를 진행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회피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라는 의사소통의 기본 법칙(Grice, 1975)보다 문화의 규범이 우선하는 경우이다.

1960년대 이후 화행이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강현석, 2014), 지난 40여 년 동안 화행 연구에는 실제 문맥과 유리된 발화를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실제 자료에 바탕을 두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경험적인 자료에 토대를 둔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언어나 문화권에서는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대조 분석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의 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상호작용 스타일 때문에 문화 간 오해가 어떻게 초래되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문화 간 차이와 관련된 화용론 연구 중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칭찬 및 칭찬반응(compliments & compliment responses) 화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차이의 영향으로 다른 문화권 청자는 칭찬에 대해 화자가 의도하지 못한 추론으로 오해가 생기거나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의 초대로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받은 미국인이 ‘솜씨가 대단하세요’라고 칭찬한다고 할 때 초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뭐 차린 것도 없는데요’라는 칭찬반응을 보인다. 미국 등 서양인들이 이에 대해 예상하는 칭찬반응은 ‘감사합니다’와 같은 수용적 반응으로 한국인에게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예상한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오늘 가방이 참 멋지네요’라고 칭찬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은 ‘뭘요, 이거 아무거나 가지고 나온 건데

요' 등의 부정하는 칭찬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칭찬을 부인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실제로 서양인 청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비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인은 Brown 과 Levinson(1987)이 주장하는 데로 서양의 문화권에서 연구된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에 따라 '감사합니다' 또는 '정말 멋지죠, 칭찬해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한국인의 부정적인 칭찬반응에 당황하거나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추론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 다른 연구로 Wolfson(1982: 22)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칭찬 화행 중 어떤 부분은 다른 문화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인들의 칭찬은 너무 '헤프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아마도 다른 목적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칭찬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사회적, 관계적 이익을 얻으려 의도적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주장한다. 이처럼 어떤 화행이 사용 빈도수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화행이 실현되는 데에 어떤 책략이 선택되는가 하는 문제도 문화 간 오해를 야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손이론에서는 사용 언어나 성별, 국가, 문화 등에 상관없이 마치 Chomsky(1965) 문법에서의 '이상화된 모국어 화자(idealized native speaker)²⁰⁾'에 비견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MP: Model Person)'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지킬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안한다(이성범, 2015). 그러나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겸손(modesty)'이라는 문화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이나 능력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따라 칭찬을 부인하거나 칭찬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화행과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Matsumoto(1988, 1989)와 Ide(1989)는 일본어에 대해, 그리고 Gu(1990), Mao(1994), Yu(2003)는 중국어에 대해 연구하였고, 폴란드어의 화행을 분석한 연구로는 Wierzbicka(1991), 그리스어와 독일어는 Wierzbicka(1985, 1991)가 연구하여 문화가 다

20) The term 'native speaker' is not well-defined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objective of SLA as achieving native-like mastery seems utopian. However, the native speaker was centralized in applied linguistics as a result of the Chomskyan paradigm, suggesting 'idealized native speaker' or an 'ideal speaker-listener'

르면 화행의 체계도 다름을 언급하였고, 대부분의 화용론에서 다루는 보편성은 개개인의 권리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앵글로 색슨(Anglo-Saxon)의 관습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Wierzbicka(1991)는 화행론이 개념화와 언어화(verbalization)²²⁾의 다양성에 미치는 문화와 언어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각 문화권마다 사회언어학적 규범이 다르게 형성되고 상호 작용되는 모습의 다양성으로 인해 화행이 실현되는 양상이나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적용하는지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간 차이로 인해 오해가 야기 될 수 있고 문화에 의한 의사소통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행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각 문화의 특성을 간과한다면 언어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화 간 연구인 대조화용론(cross-cultural pragmatics²³⁾)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각 문화권에 따라 화행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 각 국가별 의사소통의 양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문화 공동체 또는 언어 공동체 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은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로 말할 때 모국어의 의사소통 방식이 전이될 수 있다는 화용 전이(pragmatic transfer)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즉, 전통적인 언어 대조 분석 영역이었던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의 분야를 넘어서 문화 간 화용 실현 유형의 차이를 연구하는 노력이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일본문화에 대해 연구한 Matsumoto(1989)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이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사회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가에

21) 보편성(universality)은 앵글로 색슨 중심 문화인 서구 문화에서는 적용되지만 그 외의 문화권, 특히 동양권에서는 이 화행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Wierzbicka(1991), 김태나(2011), Yu(2003), Ide(1989), Matsumoto(1989) 등의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22) 말은 본래 문법 구조에서 탄생한 제품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욕구에서 비롯된 생산물이다. 공동체적인 삶의 욕구란, 사회라는 조직체에서 함께 생존해야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생기는 의문, 해답, 발론, 동조, 회의, 요구, 거부 등의 무수한 상호행위(interactions)를 서로 엮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무수한 행위들이 각각 음성에 기초한 형태로 유연화(有緣化, motivated)되면서 이 결과물인 언어는 자신의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게 되었다. 곧 언어화(verbalization)가 일어난 것이다(김하수, 문제로서의 언어1: 사회와 언어, pp 45)

23) The study of cross-cultural pragmatic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area of applied linguistics and is concerned with, among other things, both illocutionary and sociolinguistic competence of learners acquiring an additional language (Kasper & Dahl, 1991; Blum-Kulka, 1982, 1987a, 1987b; Hudson, Detmer & Brown, 1992).

24) 화행 실현 유형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등의 대조 화용연구가 Blum-Kulka와 Olshtain등을 주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 행동 규범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Ide(1989) 역시 일본어에서는 분별(discernment)²⁵⁾의 개념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u(2003: 16-85)는 중국문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Brown과 Levinson(1987)이 주장하는 체면이 개인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중국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사회의 판단에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사회적이며 대인 관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성 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독일인에게서 나타났다. 개인적인 대화 또는 비판, 토론을 할 때에도 내용과 진실성을 지향하는 면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 즉 연대감을 지향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이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Byrnes, 1986; Korrhoff, 1989; Golato, 2002). 진실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다른 이와 의견대립이 생기거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표현한다. 이에 비해 미국인들은 연대감이 독일인들 보다는 높게 나왔고 미국인들의 이런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Golato, 2002: 565). 한국인들의 경우는 미국인들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연대감을 중시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겸손성향이 커서 자신의 의견을 말 할 때 명시적으로 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돌려서 암시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곽지영, 2012: 186).

정리해 보면 대화를 움직이는 힘은 각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까지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발견되었는데, 우선 함축은 그 추론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면이 있고, 대화 함축 시 어떤 행위가 선호되는지 주지 시켜주지 못한 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함축을 위해 추론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질의 격률의 경우 대화의 양이 매우 줄어들거나 필요이상으로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심리와 문화에 따라 격률의 중요도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5) Discernment, in Japanese context, clear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questions of politeness. (Ide, 1982)

이렇게 문화적인 요소는 상이한 문화권 사이의 의사소통 활동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적 함축은 특정 표현이 해당 문화권 대화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역사, 생활관습, 신화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문자적 의미 외에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므로 상이한 문화권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이해라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및 선정 방법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 그리고 영화에서는 인간의 독창적인 언어 사용을 그 어떤 장르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유롭고 창의력 있는 언어로서의 말뭉치(corpus)²⁶⁾를 연구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비 격식적인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언어 사용은 실제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본 모습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사회, 문화, 관습적인 인간 언어의 총체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어려움 때문에 분석 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여러 곳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함축의 본질은 인간의 독창적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창적 언어 사용이 실제 일상의 언어 사용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창조적인 작품의 분석이 유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실제 언어적 측면과 독창적 언어 사용측면 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함께 살려 연구 할 수 있는 자료인 영화대본을 수집하였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담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분석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특정 표본 집단을 선정한 후, 피 실험 대상의 실제 발화 시 실험자가 참여하여 자료를 발췌하고 또는 그 대화를 녹취 한 후, 여러 가지 실험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본 연구를 위해 위의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수집, 분류 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간의 실생활을 다루면서도 그 언어가 문자화 되어 분석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써 영화대본을 선택하였다.

26) Corpus linguistics is a long-established method which uses authentic language data, stored in extensive computer corpora, as the basis for linguistic research.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intuitive approach to linguistics, which used made-up examples, corpus linguistics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ll areas of the field. Until very recently, corpus linguistics ha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syntax and the lexicon; however corpus-based approaches to the other subfields of linguistics are now rapidly emerging.(Karin A. & Christoph R., 2015)

담화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 논문의 연구재료로 사용할 영화들은 다양한 영화장르 중 가장 대중적이고 실생활을 잘 반영하며 담화분석에 용이한 장르인 드라마 장르와 코미디 장르의 영화들로 선택 하였다. 그 외 역사물, 공포, 전쟁 영화 등의 장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가 많고, 최근 들어 많이 제작되고 있는 미래 공상영화나 판타지 장르 역시 실생활과 거리가 먼 언어적 요소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각 언어별 대화에서 일어나는 함축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 영화대본에서 Grice의 네 가지 대화격률, 즉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태도의 격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함축 실현 양상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는 미국영화 4편, 한국영화 4편, 그리고 스페인영화 4편, 총 12편의 대본이다. 대부분 비교적 최근의 영화들로 이 각각의 영화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장르, 주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우선 선정에 있어서 각국의 영화에 드라마, 드라마/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등의 비율이 일정하도록 선정하여 한 국가의 영화에 어떤 한 장르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담화 사건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영화를 선정하기 위해, 영화의 배경, 장소, 시대, 등장인물들의 연령, 관계 등이 다양한지를 고려하였다.

각 영화를 간략히 소개 하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영화부터 살펴보면, *LADYBIRD*는 2017년에 개봉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2002년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주인공은 동부의 뉴욕 같은 대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해 새크라멘토의 작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꿈이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갈등과 반항하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이를 이겨내는 성장이야기이다. 다음으로 *THE INTERN*(2014)은 드라마/코미디 영화로 주인공은 정년퇴임 후 70대의 나이에 시니어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 30대 CEO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어려운 관계적인 문제를 경륜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NOTTING HILL*(1999)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와 작은 서점 주인과의 사랑을 그린 내용이다. 다양한 담화 상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미국영화의 마지막 영화인 *YOU'VE GOT*

MAIL(1998)은 드라마/코미디 영화이고 주인공 남녀는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의 ID로만 알고 있는 사이이다. 고민을 채팅으로 털어놓으며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실한 관계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관계가 적대적 비즈니스 경쟁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결국 진심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된다.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이메일을 주제로 했다.

다음으로 한국영화로는 우선 2011년에 개봉된 *써니*로 드라마/코미디 장르이다. 학창시절의 우정과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어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돕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미나 문방구*(2013)는 드라마/코미디 영화로, 잘 나가던 한 공무원이 병든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문방구를 이어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2012년에 개봉된 *건축학개론*은 로맨틱 드라마 영화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건축사가 된 대학 시절 첫사랑을 찾아간 여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담은 집을 짓게 된다는 내용이다. *수상한 그녀*(2013)는 코미디 드라마 장르로 특별한 어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나와 보니 몇 십 년이 젊어지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로 타인으로 접근하게 되고,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관계안에서의 응어리를 풀게 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CIEN METROS*(2014)는 드라마/코미디영화이다. 성공한 광고회사 직원인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제목인 ‘*CIEN METROS(100미터)*’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100미터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재활을 위해 걷기 연습을 하다가, 결국 철인 3종 경기에 까지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우승이 아닌 완주에 도전하는 한 인간의 강한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MAR ADENTRO*(2004)는 드라마/코미디영화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26년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이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며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한 시각과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드라마 계열영화인 *TODO SOBRE MI MADRE*(1999)로 극적인 상황 속에서의 생의 의지와 활력,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HABLE CON ELLA*(2002)는 로맨스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코마 상태에

있는 두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를 소재로 기적과 우연은 동시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문화권의 사회, 문화적, 관습적인 면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본 논문에서 주요한 논의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영화 중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만을 선정하였고, 스페인영화 역시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20여 개국의 문화와 사회, 관습적 양상이 너무나 상이하므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칠레 등의 영화들은 제외하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영화만을 선정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대화함축을 연구 하는데 있어 Grice의 네 가지 격률에 따라 함축이 일어난 격률별 분석이 일상 대화의 함축양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 영화 대본의 전체 대화 수에서 각 격률위반별로 빈도수를 알아보고, 격률위반으로 실현되는 함축양상을 특징별로 분석하였다. 각 영화대본에서 나타난 총 대화수를 화자와 청자 간의 발언교체 적정지점(transition relevance point: TRP)인 대화자의 순서교대시점(turn-taking)으로 하여 전체 대화수를 알아본 뒤 각 격률 위반별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전이관련지점과 순서교대는 대화 분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Sacks, Schegloff 그리고 Jefferson(1974)²⁷⁾에 의해 제시된 대화 분석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이 개념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함축의 발생이 전이관련지점, 즉 청자가 화자가 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자와 화자의 상호 협력이라는 가정 하에 대화 참여자들이 추론을 하게 되어 대화 협력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대화에 초점을 두고 대화 함축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축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하나하나의 발화를 전체대화수로 산정하여 각 격률 위반 별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이관련지점에서 순서 교대 즉, 한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자신의 말을 끝내고 다른 이의 말을 듣는 입장으로 돌아가기까지 발화된 것을 횡수 단위로 세어 산출하였다. 또한 격률위반별 빈도수 산출시 그 예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사려 되는 것만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므로 한 특정한 담화사건에서 여러 가지 격률이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 그 예는 가장 유효적이라고 사려 되는 것만 빈도수에 합산 하였다.

각 분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본 연구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법 중 하나인 카이제곱검증(Chi-squared Test, χ^2 test)을 이용하였다.

27) The organization of taking turns to talk is fundamental to conversation, as well as to other speech-exchange systems. A model for the turn-taking organization for conversation is proposed, and is examined for its compatibility with a list of grossly observable facts about conversati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suggest that, at least, a model for turn-taking in conversation will be characterized as locally managed, party-administered, interactionally controlled, and sensitive to recipient design. Several general consequences of the model are explicated, and contrasts are sketched with turn-taking organizations for other speech-exchange systems(Sacks et al, 1974)

이 방법은 분류 간 비교에 활용되는 통계적 검증 기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진 방법으로 두 집단 또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유사점과 차이점의 판정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적 검증 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두 분류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후, 그 두 분류 사이의 연관성이 우연에 의한 연관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이 카이제곱검증의 통계검증 실시 결과 나오는 p-value²⁸⁾로 본 논문의 각 데이터의 통계 유의미성을 표시하기로 하겠다.

언어 연구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전산언어학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들은 적지 않다(Manning & Schütze, 1999). 한국어에서도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검증이나 통계적 정보 추출이 연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효필(2005)의 연구에서 카이제곱검증을 말뭉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 비교 시, 그리고 국가 별 격률위반 양상 비교와 한 국가 내의 영화별 격률위반 양상 비교와 관련하여 그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유의미성을 나타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격률위반을 통한 대화함축은 대화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다. 반어를 통해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은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며, 항진명제(tautology)라는 형식을 통해 그 논리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자랑하기, 감탄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대화 참여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는 것은 과장을 통해 실현 되고, 간접화행을 사용하면 요청을, 유머는 관련성 불일치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 공손한 표현으로 거절을 공손하게 할 수 있고, 중의적 표현을 통해 1차 함축 해석과 2차 함축 해석으로 대화 참여자의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격률을 위반하여 실현되는 함축의 하위 양상을 총 18가지로 분류하여 각 영화별, 국가 별로 분석하였다.

〈양의 격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함축으로 실현되는 양상 외에 양의 크기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국가 별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 분석을 시도

28)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적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매우 낮게 정해지고,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는 관례적으로 5%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어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데 어느 수치가 적정할 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립될 문제라고 판단되나, 언어연구에서는 보통 사회과학적 연구나 또는 언어 교육 연구에서 흔히 취하는 유의도 수준 5%를 택한다(최재웅, 2006).

하였다. 또한 격률위반을 분석할 때 공손성의 영향도 문화 별 분석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함을 관찰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위의 네 가지 격률에 항상 한 가지씩 위반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되기도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경우에 대부분은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격률위반과 함축에 있어서 각국에 실현 양상에 어떤 공통분모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한 영화 대본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나리오로서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 언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대본에서의 대화 함축 분석이 대화 함축의 현상을 총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물이나 공상과학 영화 등 특별하고 전문적인 대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상을 주 배경으로 하여 실제적인 대화들이 많은 영화들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일상의 대화를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에 사용한 영화 12편으로 세 국가의 문화를 포함한 언어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제한점도 있지만 본 논문이 표본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연구결과

이번 장에서는 미국, 한국, 스페인의 영화 대본을 통해 나타나는 격률의 위반과 격률위반으로 인해 실현되는 함축을 양상별로 살펴보고, 국가별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4.1 영화에 나타나는 격률위반과 특정함축의 실현양상

4.1.1 미국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우선 네 편의 미국영화 전체 대화수를 대화교환(turn) 횟수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 후 함축 개수와 각 격률별 위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개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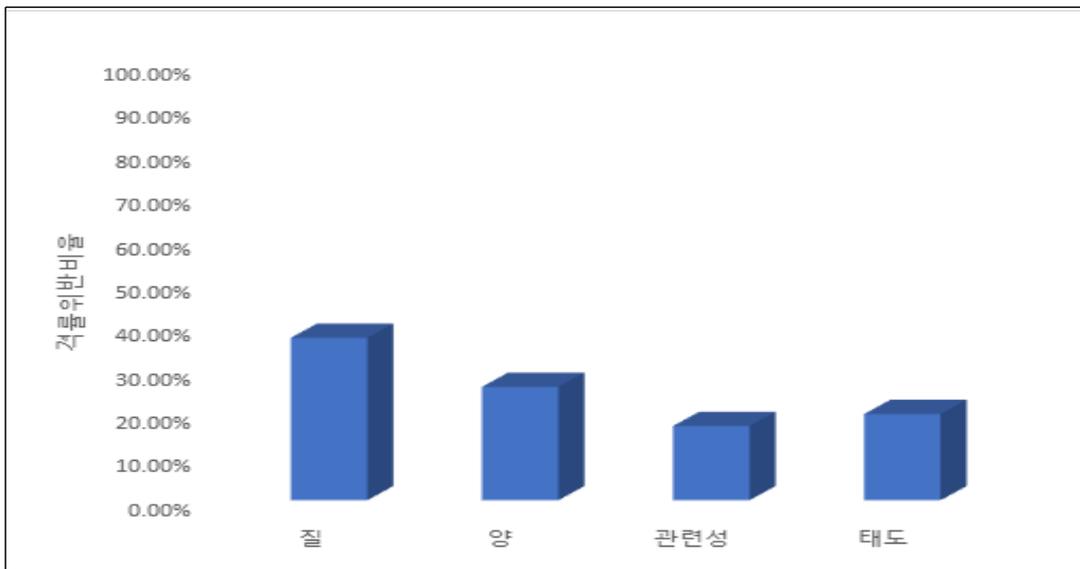
미국분석	i	ii	iii	iv	격률별 대화함축개수합계
영화별 총 대화수 (회)	851	987	926	889	3653
영화별 격률위반수 총계(회)	153(17.9%)	185(18.7%)	124(13.3%)	196(22.0%)	658(18.0%)
질의 격률	37(24.2%)	74(40%)	53(42.7%)	81(41.3%)	245(37.2%)
양의 격률	40(26.1%)	67(36%)	20(16.1%)	44(22.4%)	171(25.9%)
관련성의 격률	43(28.1%)	27(14.6%)	12(9.7%)	30(15.3%)	112(17.02%)
태도의 격률	33(21.6%)	17(9.1%)	39(31.5%)	41(20.9%)	130(19.7%)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위 〈표 1〉에서 보듯이 격률을 위반하여 함축을 나타내고자 하는 양상은 미국 영화에서는 〈질의 격률〉 위반이 37.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양의 격률〉 위반(25.99%), 〈태도의 격률〉 위반(19.76%) 그리고 〈관련성의 격률〉 위반(17.02%)의 순서로 나타났다. 격률을 위반한 횟수는 총 658회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격률인 〈질의

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난 함축은 245회 발생하였다. 각 영화별로 보면, *LADYBIRD*에서는 전체 대화 수 851회 중에 함축은 153회 발생하여 17.98%의 비율을 보였다. *THE INTERN*은 전체 대화 수 987회 중 185회 발생하였고 그 빈도는 18.74%였다. *NOTTING HILL*은 전체 대화 수 926회 중 124회로 13.39%, 마지막으로 *YOU'VE GOT MAIL*은 전체 대화 수 889회 중 196회로 22.04%의 함축 빈도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위반한 비율이 다른 격률위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되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인 과장, 반어 그리고 은유 등을 사용하여 위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자는 이 위반을 알고도 협력의 원리에 의해 추론으로 함축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도표 1>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격률위반 별 함축 빈도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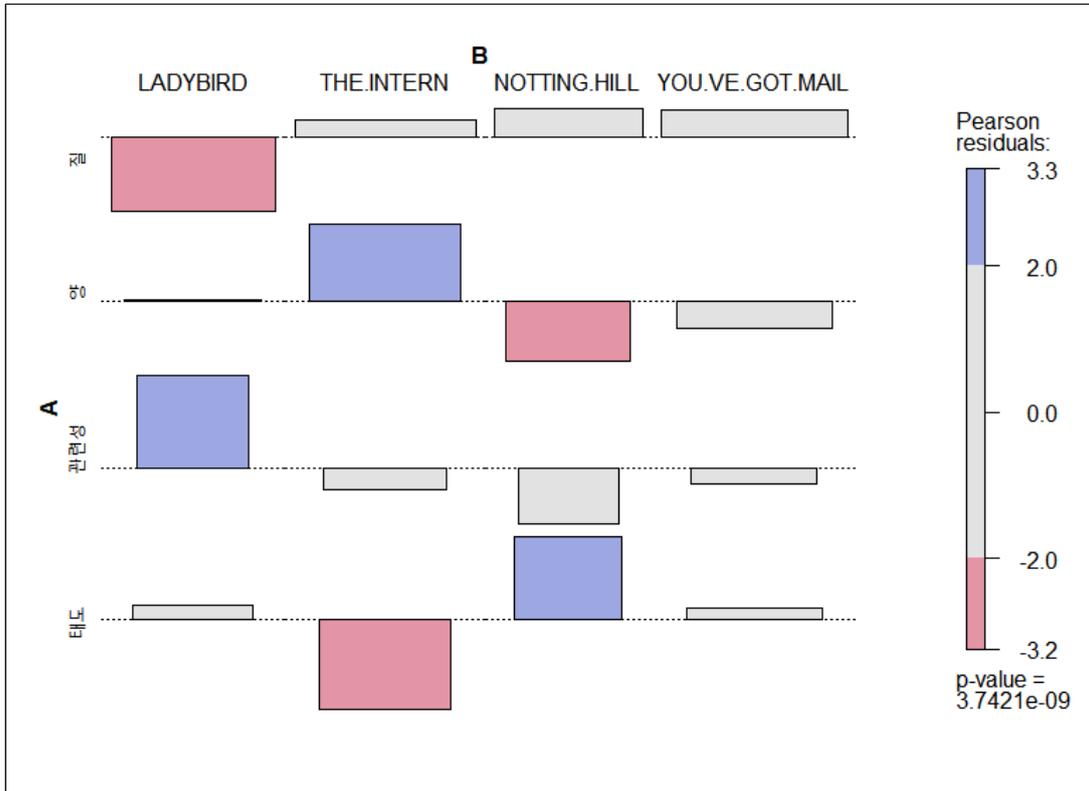
<도표 1>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빈도



위의 <표 1>에서 보여 지는 각 영화별 격률위반의 사례 빈도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d Test(카이제곱검증)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영화별 격률위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2) = 57.68, p < .001$). 즉, 카이제곱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은 p-value가 0.001 이하이므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도표 2〉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



그 패턴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위의 〈도표 2〉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각 격률위반의 중간 가로선의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 분포가 기대보다 높은 것을 표시하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빈도분포가 기대이하로 임을 나타낸다. 또한 진한 색으로 표시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분포는 유의미함을 표시하고 있고 흐린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차이는 있으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진한 표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영화에서는 〈질의 격률〉위반 빈도가 영화 *LADYBIRD* 에서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고, 〈양의 격률〉위반 빈도는 영화 *THE INTERN*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높았다. 그러나 영화 *NOTTING HILL*에서는 〈양의 격률〉위반의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의

빈도는 영화 *LADYBIRD*에서 빈도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영화들에 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위반은 영화 *THE INTERN* 에서 매우 낮았고, *NOTTING HILL*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

4.1.2 미국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다음으로 질, 양, 관련성 그리고 태도의 상위 격률의 하위 실현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반어는 94회, 은유는 90회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각 상 위 격률뿐만 아니라 하위 범주로 실현되는 함축양상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우선 미국영화에서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질의 격률위반 중에는 반어(94 회)의 수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슷한 비율로 실현되는 은유(90회)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 함축 실현 양상으로는 <양의 격률>위반 중 과 장(145회)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태도의 위반에서 중의성(96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은 한국과 스페인영화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영화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성 위반의 양상 중 가장 많은 것은 유머로 미국영화에서 보편적으로 높게 나왔다. 미국영화의 <관련 성의 격률>위반 중 유머로 나타나는 함축은 32%로 나타났다. 자세한 비교는 각 국의 양상을 개별 분석한 후 세 개 국가의 영화를 비교 분석하는 4.2장에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미국영화를 각 격률의 함축 실현 양상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질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은 다음의 <표 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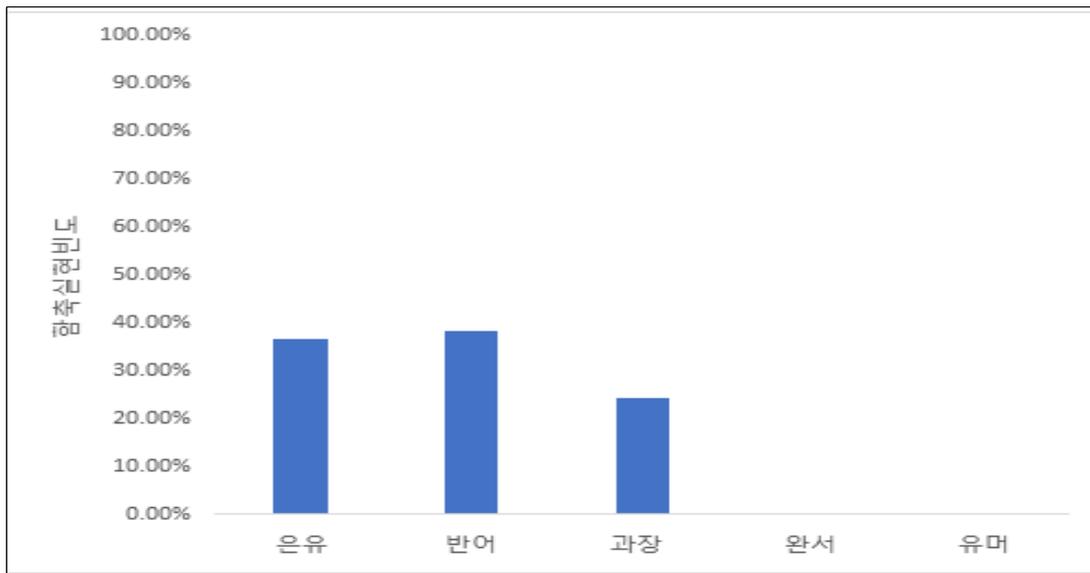
<표 2>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질의 위반 (총245회) (총37.2%)	은유	3	36	16	35	90 (36.7%)
	반어	23	21	23	27	94 (38.3%)
	과장	10	17	14	19	60 (24.4%)
	완서	0	0	0	0	0 (0%)
	유머	1	0	0	0	1 (0.4%)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첫 번째로, <질의 격률>위반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위의 <표 2> 를 보면 진리 여부와 관계가 있는 <질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245회로 37.23%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질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반어가 94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38.37%였고, 그 다음으로 36.73%인 은유 순으로 나타났다. 질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에 유머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의 질을 어기며 실현되기보다 보통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발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영화에서 역시 <질의 격률>에서 유머로 실현되는 양상은 0.41%로 매우 낮았다. 위의 <표 2> 를 비교에 용이 하도록 <도표 3> 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도표 3>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위반 빈도



이제 격률위반으로 인해 함축이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질의 위반 중에서 강한 ‘부정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하며 <질의 격률>을 어긴 예를 미국영화 ‘*INTERN*’의 한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63) ① Ben: I apologize but Becky said you needed something taken care of...on your jacket...

- ② Jules: Oh, right.
- ③ Candice: Thanks Ben. The VC's made up a list of potential CEO's. Let's look at the list, explore it, then decide. Baby steps. Jules struggles with how to respond.
- ④ Becky: Something big going on in there?
- ⑤ Ben: I couldn't say.
- ⑥ Becky: You were in there a long time.
- ⑦ Ben: (touches his left ear) I can't hear a thing.
(Becky doesn't believe him and returns to her typing.)

(THE INTERN, 2014)

한 신흥 회사의 CEO인 젊은 여성 Jules는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진으로부터 회사의 주인은 Jules 그대로 이지만, 회사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겨 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자신이 세우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경영인이 운영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제안에 몹시 당황한다. 그때 Becky라는 비서로부터 사장의 옷을 세탁소에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인턴 Ben이 사장의 사무실로 우연히 들어가다가 이 내용을 듣게 된다. 겨우 사장의 옷을 가지고 나온 Ben에게 Becky는 시간이 좀 걸리고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 안에서 벌어졌냐고 묻는다(④). Ben은 “I can't hear a thing(⑦).” 라고 하면서 청각 장애인도 아닌데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며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며 강하게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 하고자 한 것이고, 이를 듣고 Becky는 Ben이 Grice의 CP를 준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함축이 발생하여 말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추론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Ben에게 묻지 않고 하고 있던 타이핑을 계속한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즉, 비언어적 대화(non-verbal communication)²⁹⁾

29) Aside from what we say to one another through the verbal content and the prosody of spoken utterances, we can, in face-to-face communication, transmit less systematic messages to one another by means of audible and visible signs that are not part of language. Prosody which

로 서로가 대화가 성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 3>에서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양의 위반 (총171회) (총25.9%)	항진명제	2	0	0	3	5 (2.9%)
	과장	36	58	16	35	145 (84.8%)
	공손	1	8	3	1	13 (7.6%)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음	1	1	1	5	8 (4.6%)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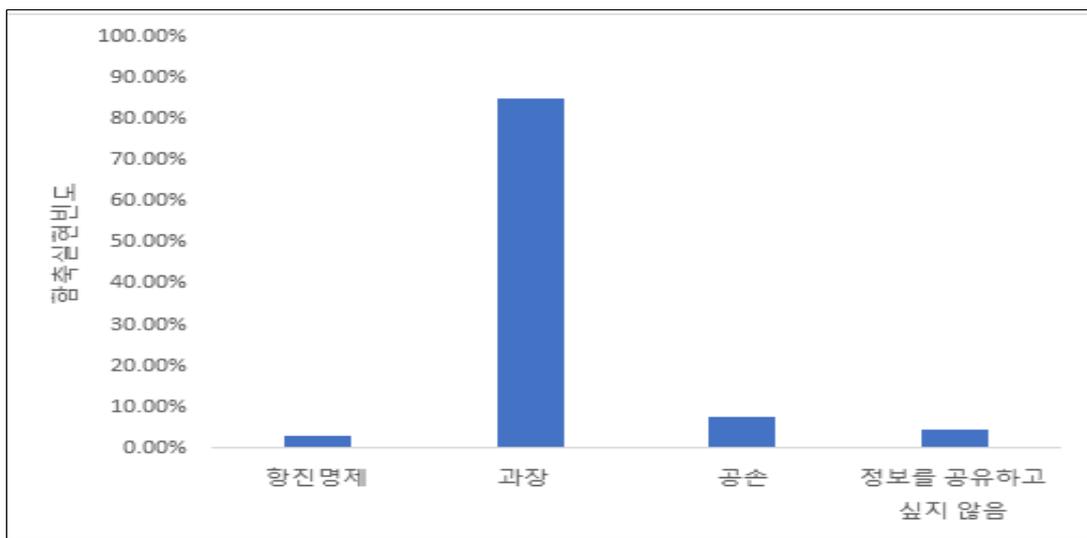
미국영화에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71회로 25.99%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양의 위반 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과장이 145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84.8%였고, 그 다음으로 공손으로 7.6%로 나타났다. 양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에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양을 필요 이하로 극도로 적게 표현하거나 항진명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항진명제란 앞서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명사를 나열하면서 주어와 술어가 바뀌더라도 절대 참인 경우이다. 항진명제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기보다 상대를 가르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매우 강하게 설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미국영화에서 역시 2.92%로 매우 낮았다. 아래 <도표 4>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양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첫째, <질의 격률>위반은 진리 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관련 특정대화함축은 그

consists of two parts, accent and intonation is usually considered as a part of verbal communication, however, is considered to be as a part of non-verbal communication. (Kreidler, 1998: 35)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76회로 34.04%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질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반어가 89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50.57%로 나타났다. 미국영화의 <질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반어는 38.37%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27.27%인 은유 순으로 나타났다. 질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 중에서 유머로 실현되는 경우는 앞서 미국영화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질을 어기며 실현되기보다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발생하는데, 미국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영화에서도 매우 낮은 0.57%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 4> 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양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4>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위반 빈도



미국영화의 <양의 격률>위반으로 가장 많이 함축으로 실현된 과장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영화 *LADYBIRD*의 한 장면으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 하라고 하는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청자는 그 이상의 양을 발화하고 있다.

- (64) ① Ladybird: I don't even want to go to school in this state anyway, I hate California. I want to go to the East Coast.

- ② Marion: Your dad and I will barely be able to afford in-state tuition.
- ③ Ladybird: There are loans, scholarships!
- ④ Marion: Your brother, your very smart brother, can't even find a job --
- ⑤ Ladybird: I want to go where culture is, like New York.
- ⑥ Marion: How in the world did I raise such a SNOB?
- ⑦ Ladybird: Or at least Connecticut or New Hampshire. Where writers live in the woods.
- ⑧ Marion: You couldn't get into those schools anyway.
- ⑨ Ladybird: MOM!
- ⑩ Marion: The way you work, the way you don't work, you're not even worth state tuition, Christine. You should just go to City College, with your work ethic. City College and then to jail then back to City College. Maybe you'd learn how to pull yourself up and not expect everyone to do everything for you...

(LADYBIRD, 2017)

위의 (64)의 대화에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는 부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과장의 함축이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대학을 준비하는 Christine은 캘리포니아의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집을 떠나 동부로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①). 그러나 엄마인 Marion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권한다. 아버지의 수입으로 학비 대기가 어렵다고 덧붙인다(②). 그러나 Christine은 대학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장학금도 있다고 하며 부탁을 한다(③). 여기서 갑자기 엄마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대학을 나온 Christine의 오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④). 그러나 이에 지지 않고 Christine은 뉴욕과 같은 적어도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며 더욱

강하게 주장한다(⑤). 이런 딸을 보며 어떻게 이런 속물로 자랐을까 하며 한탄을 한다(⑥). 여전히 Christine은 뉴욕이 안 되면 적어도 커네티컷이나 뉴햄프셔같이 작가들이 사는 곳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역시 관련성을 여기며 자신의 주장만을 이어간다(⑦). 엄마는 자신의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⑩번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를 길게 이야기 하고 있다. 딸의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정상 안 되겠다.’ 또는 ‘근처의 학교를 지원하자’ 또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던가 하는 것이 딸의 발화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답변이겠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는 딸에게 필요한 만큼을 훨씬 넘어서는 양의 정보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네가 일하거나 노는 꼴을 보면 주립대 등록금도 아까워, 크리스틴. 그런 정신 상태로는 시립 대학에 못 가. 시립대학과 감방을 들락대다 보면 자립할 힘은 생기겠지. 남 안 괴롭히고...”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엄마의 말을 참다못해 Christine은 갑자기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린다.

다음은 미국영화 *YOU'VE GOT MAIL*의 한 장면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공손으로 실현된 <양의 격률> 위반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 (65) ① Joe: Who is this?
- ② Gillian: Nanny Maureen. I brought her in case you couldn't handle the kids.
- ③ Annabel: She taught Matt to spell his name.
- ④ Matt: Fox. F-O-X.
- ⑤ Joe: Excellent, Matt. (to Maureen) Good work. You can have the day off. I'll take over from here. (to Gillian) You must be late for something. Volunteer work at the Henry Street Settlement. Packing bandages for Bosnian refugees. A course in Chinese literature at Colombia.
- ⑥ Gillian: I am. I'm having my eggs harvested.

(*YOU'VE GOT MAIL*, 1998)

Gillian은 Joe의 아버지의 새로운 여자 친구인데 아버지와는 나이차이가 너무 크고 오히려 Joe와 비슷하다. Joe에게 마음이 있는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유혹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눈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자, Joe는 먼저 보모인 Maureen에게 하루 휴가를 가지라고 하고, 자기가 함께 데리고 온 아이들인 Annabel과 Matt를 혼자서 데리고 놀겠다고 Gillian에게 말한다. 자기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 가보셔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손성’을 함축하며 필요 이상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로써 <양의 격률> 을 위반하게 된다. ⑤에서 “You must be late for something. Volunteer work at the Henry Street Settlement. Packing bandages for Bosnian refugees. A course in Chinese literature at Colombia(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있으면 뭘가에 늦을 수 있겠죠. 헨리거리 정착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보스니아 난민들을 위한 붕대 포장. 콜롬비아의 중국문학 코스요...)” 아무런 문맥 없이 이 발화를 들으면 도대체 이 만큼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어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Grice의 CP에 의해 대화 상대자인 Gillian은 이 발화가 말하고자하는 함축을 추론하게 되고, 자신의 의도를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오히려 여기서 Joe가 아이들은 내가 따로 돌 볼 테니 가셔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면 Gillian은 자신의 의도를 어필하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을지 모르나 함축을 통해 더 강하게 Joe의 발화는 힘을 가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Gillian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공손한 발화를 했기 때문에, Gillian은 해야 할 것들이 많긴 하다고 하며 역시 암묵적인 동의를 하며 대화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양의 격률> 을 위반하여 향진명제로 함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영화 *LADYBIRD*의 한 장면을 통해 향진명제를 통한 <양의 격률> 위반의 예를 보도록 한다.

- (66) ① Girl #1: Where’s Father Leviatch?
 ② Father Walther: Alright, let’s have everyone take a knee.
 ③ Miss Patty: Cozy sit.

④ Father Walther: So I know that you all miss Father Leviatch, all of the brothers do too, but I am going to give this my very best shot, okay? Usually I'm the J.V. football coach, but from what I can tell, a "play" is a "play."

(LADYBIRD, 2017)

학생들의 연극반을 맡고 있던 Leviatch 신부가 건강 문제로 도중하차하고, 그 뒤를 이어 Walther 신부가 곧 있을 연극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에서 한 여학생이 Leviatch 신부가 왜 오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새로 온 Walther 신부는 열정적으로 이 연극반을 잘 이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선을 다 하려는 마음으로 ④번의 발화에서 a 'play' is a 'play'라는 항진명제를 사용하여 하고자 하는 말의 양을 필요 이하로 적게 함축하여 말하고 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열정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play'는 연극을 말하고, 자신이 지금 원래 지도하고 있는 팀이 축구팀이라는 것에서 뒤의 'play'는 축구를 말한다. 자신을 신뢰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항진명제의 논리성을 가지고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 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관련성의 위반 (총112회) (총17.0%)	유머	8	10	5	13	36 (32.1%)
	간접화법	8	15	2	3	28 (25%)
	공손 또는 공손위배	13	2	5	11	31 (27.7%)
	풍자	14	0	0	3	17 (15.2%)
	은유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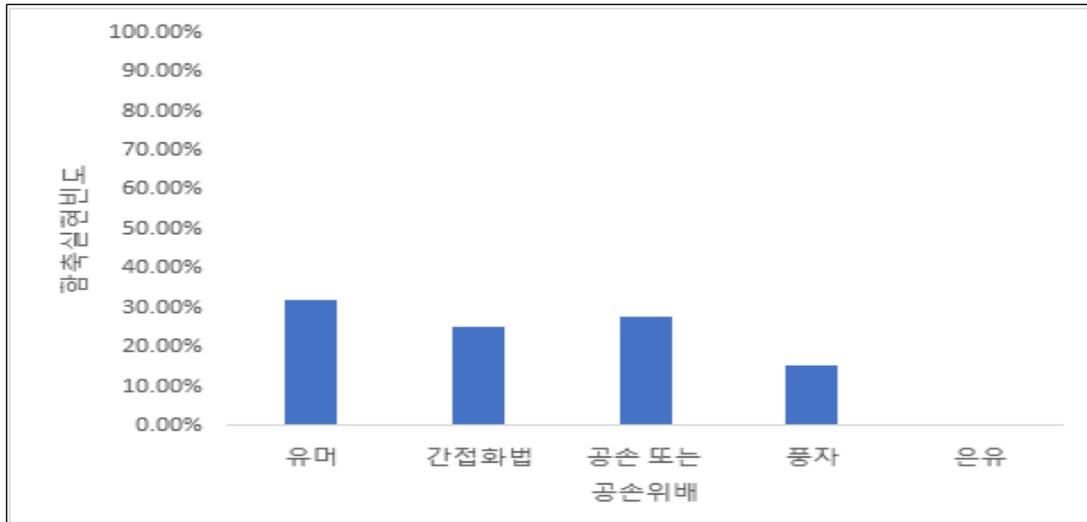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위의 <표 4> 를 보면, 미국영화에서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 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12회로 17.02%였다. 관련성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유머가 36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32.14%였고, 그 다음으로 공손 또는 공손위반으로 27.68%로 나타났다. 관련성을 위반하여 은유를 함축하는 양상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미국 영화에서도 그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간접화법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직접화법으로 발화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거나 사실을 열거 할 때 평서문의 형태, 또는 명령할 때 명령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직접화법인데 간접화법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화의 흐름을 갑자기 어기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며 요청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다음 주 까지 과제 끝내.’는 명령문이고 명령문의 내용은 요청하기 이므로 내용이나 형식의 대응관계가 일치하는 직접화법이다. 그러나 ‘다음 주 까지 과제를 끝낼 수 있겠지?’라고 하면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 요청이다.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야 하는 데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요청이라면 이는 간접화법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요청의 내용으로 “다음 주 까지 과제가 끝나 있다면 만족스러울 거야.”라고 하면 역시 진술의 기능을 해야 하는 평서문의 형식을 빌어 다른 기능인 요청을 하게 되므로 간접화법이다. 보통 간접화법을 사용하게 되면 직접화법보다 더 공손하게 여겨진다. Searle(1975)는 처음으로 간접화법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가 공손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문화나 특정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손성 측면에 있어서 한국 영화에서 간접화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문화가 덜 공손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동사의 어미 자체에 존대어미가 있기 때문에 공손이 문장 종결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어의 공손은 경어법³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김희숙, 1991). 이렇게 공손을 다루려면 경어법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어휘론적, 사회적 요소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 <도표 5> 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

30)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유형론 적으로 정밀한 문법체계를 갖고 있는 경어법 언어(honorific language)라 할 만한 문법범주로 되어있고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박성일, 2015)

를 대비 <관련성의 격률> 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5>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 위반 빈도



미국영화, *LADYBIRD* 중 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간접화법으로 요청을 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 (67) ① Sister: Some of the students were disturbed by your posters.
- ② Ladybird: It's just a bird head on a lady body or vice versa.
- ③ Sister: I think it's a little upsetting...
- ④ Ladybird: It's my tradition to run for office. Don't worry, I won't win.
- ⑤ Sister: That's not what I'm worried about.
- ⑥ Ladybird: This won't mess with my scholarship, will it?
- ⑦ Sister: No, you're okay there. You have a performative streak, I think.
- ⑧ Ladybird: I think that too.
- ⑨ Sister: Maybe you'd enjoy theatre arts. They are

having auditions for the fall musical.

(LADYBIRD, 2017)

자신의 예명을 Ladybird라고 부르는 Christine은 가톨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생회장에 출마하려한다. 엄격한 분위기의 이 학교의 교사인 수녀님(Sister) Sarah-Joan이 레이디 버드의 기이한 회장선거 포스터를 보고 상담을 하는 장면이다. 이 포스터를 보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①)고 하는 수녀님의 말에 그냥 새 머리에 어떤 여인의 몸이 있거나 그 반대의 모습일 뿐(②)이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자신은 그냥 출마만 할 뿐이지 당선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④)고 설득한다.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다(⑤)라고 말하는 수녀님에게 갑자기 이일로 선거나 포스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장학금 이야기를 꺼내며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다. 이 발화는 “이 포스터 때문에 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⑥)”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 일 때문에 장학금을 얻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 달라는 요청의 내용을 담은 간접화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청자는 CP의 기본 하에 이해하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그 이전 주제인 포스터 이야기로 돌아간다. 레이디 버드의 이런 기이한 발상이 긍정적으로 보면 연극이나 공연의 기질이 있는 것이므로 연결해 주고자 한다고 말한다(⑦, ⑨).

그러나 미국영화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실현되는 양상은 유머의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영화 *NOTTING HILL*의 한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68) ① William: And wait a minute... this is crazy behavior. Can't we just laugh about this? Seriously -- in the huge sweep of things, this stuff doesn't matter.
- ② Spike: What he's going to say next is -- there are people starving in the Sudan.
- ③ William: Well, there are. And we don't need to go anywhere

near that far. My best friend slipped -- she slipped down--stairs, cracked her back and she's in a wheelchair for the rest of her life. All I'm asking for is a normal amount of perspective.

- ④ Anna: You're right: of course, you're right. It's just that I've dealt with this garbage for ten years now -- you've had it for ten minutes. Our perspective are different.
- ⑤ William: I mean -- today's newspapers will be lining tomorrow's waste paper bins.
- ⑥ Anna: Excuse me?
- ⑦ William: Well, you know -- it's just one day. Today's papers will all have been thrown away tomorrow.
- ⑧ Anna: You really don't get it. This story gets filed. Every time anyone writes anything about me -- they'll dig up these photos. Newspapers last forever. I'll regret this forever.

(NOTTING HILL, 1999)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Anna는 우연히 만나게 된 작은 서점 주인인 William과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순수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알고 몰려온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Anna는 짐을 싸서 당장 나가려고 하고 온갖 심한 말을 하며 화를 낸다. 이에 William은 잠깐만 숨을 돌리자고 하며 그냥 웃어넘길 수는 없을까라는 말을 한다. 이건 엄청난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작은 일일수도 있다고 하면서...(①). 그러자 약간 영뚱한 친구인 Spike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수단에는 기아로 굶는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②)” 라며 갑자기 연기자로서의 인생이 끝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해 하는 Anna와 William의 진지한 대화에서 그 긴장된 분위기를 유머로 바꾸고자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 참여자들은 갑자기 나

온 수단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관련성이 먼 단어들에도 기저에 깔려 있는 CP에 의해 추론을 하게 되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친구가 유머를 시도 하고 있다는 함축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다음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하여 William은 그 반응으로, “그러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까지 멀리 수단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나의 누이가 집 계단에 굴러서 평생 반신불수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시야를 좀 넓게 가지는 건 어때요?(③)”라고 한다. 다시 그 전의 대화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물론 Anna는 서로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며 여전히 당황해 한다(④). 단순히 내일 이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그날 저녁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파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다(⑧).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 6>은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분석표이고 아래 <도표 6>에서는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태도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다.

<표 5>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사례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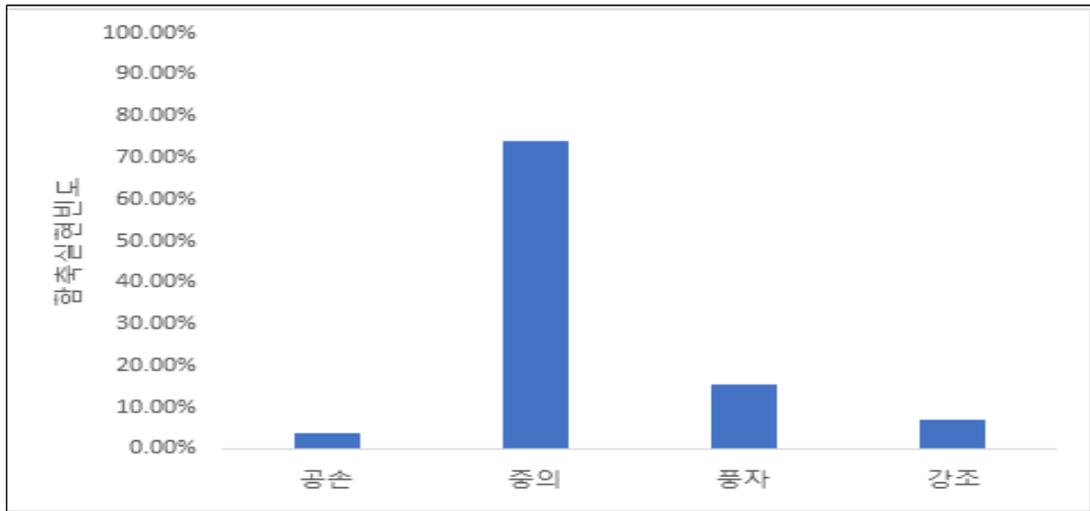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태도의 위반 (총130회) (총19.8%)	공손	0	3	1	1	5 (3.9%)
	중의	21	10	35	30	96 (73.95%)
	풍자	11	1	2	6	20 (15.4%)
	강조	1	3	1	4	9 (6.9%)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본 연구에서 이번에는 <태도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을 보면 <태도의 격률>위반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30회로 19.76%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태도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중의가 96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73.85%였고, 그 다음은 풍자로 15.38%로 나타났다. 미국영화에서 태도를 위반하여 공손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5회, 3.85%로 가장 낮았다. 아래 <도표 5> 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태도의 격률>합측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6>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위반 빈도



<태도의 격률>위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실현된 중의성의 사례를 영화 *THE INTERN*의 대본 안에서 보도록 하겠다.

- (69) ① Ben: Hi. I'm Ben. Whittaker. I have a 3:55 appointment with Miss Ostin.
- ② Becky: 3:55? I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 ③ Ben: That's me. How ya doin'?
- ④ Becky: I'm sorry, but how are you an intern?
- ⑤ Ben: It's a Senior Intern Program. Just started today.
- ⑥ Becky: Oh my God. How's that going to work? How old are you?
- ⑦ Ben: Seventy.

(In the conference room)

- ⑧ Ben: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⑨ Jules: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⑩ Ben: Be hard not to.
⑪ Jules: So, Ben I was going to say what's a nice guy like you doing in a place like this but Candice gave me the drill so can I just be honest with you?
⑫ Ben: Please.
⑬ Jules: I'm not going to have a lot for you to do.

(THE INTERN, 2014)

시니어 인턴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한 회사에 Ben은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출근 첫날 사장의 인턴으로 배정되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3:55분에서 4시까지 '5분간' 사장과 인터뷰하는 게 그날의 유일한 일정이었다. 시간이 다 되어 Becky라는 사장의 비서에게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3:55분 약속'을 확인시키며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①). Becky는 인턴의 나이에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시니어 인턴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②-⑤). 시간이 되어 사장 방으로 들어간 Ben이 인사로 "저는 당신의 새 인턴입니다(⑧)." 라고 한다. 이런 대화에서 반응은 보통 '반갑습니다' 또는 '열심히 해 보세요.' 등이 예상되는데, 사장은 모호하게 "선생님도 이 상황이 웃기시죠?(⑨)" 라고 인사를 대신한다. 명확하게 이야기 하라고 하는 <태도의 격률>을 어기며 사장이 함축하고자 하는 것은 부사장의 방침대로 하기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어떠한 일을 맡길 지 도무지 당황스럽고 70대 노인이 이 젊고 컴퓨터 기반의 벤처기업에서 견딜 수 있을 지였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청자의 반응을 화자가 원하는 식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화자의 모호한 발화에도 청자는 대화협력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추론을 하게 된다. 이에 "안 웃기면 이상한 거죠.(⑩)"라고 함축을 이해하여 무사히 어색한 대화를 넘긴다.

다음은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여 그 실현 양상이 '강조'로 나타난 경우의 예를 영화, *NOTTING HILL* 의 대본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 (70) ① Spike: Hey,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 ② William: This is important in comparison to, let's say, whether they should cancel third world debt?
- ③ Spike: That's right -- I'm at last going out on a date with great Janine and I just want to be sure I've picked the right t-shirt.
- ④ William: What are the choices?
- ⑤ Spike: Well... wait for it... (He pulls on a t-shirt) First there's this one...

(NOTTING HILL, 1999)

〈태도의 격률〉은 명확하게 말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것을 피할 것, 그리고 간결하며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이야기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 장면에서는 이 중에서 모호성과 중의성이 드러난다. 한 여성과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Spike는 친구인 William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①) 물어보는 스파이크에게 그 결정이 제3국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②)를 묻는다. 데이트 하는데 조언을 구하는 친구에게 ‘제3국’, ‘부채탕감’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지를 강조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대화 참여자는 서로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가정하며 추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만큼 중요하다고 답하고 원하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티셔츠 고르는 것을 도와 달라(③)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간다. 이어 William 역시 자연스럽게 어떤 티셔츠를 골랐는지 묻게 된다.

다음의 〈표 6〉은 미국영화의 격률위반 및 하위 범주인 함축 실현양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이고, 각 격률 위반 및 그 하위 함축 실현양상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 6〉 미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각 격률위반 빈도(전체)

격률위반 유형	영화제목	i	ii	iii	iv
	총대화수	851	987	926	889
질(37.2%)	1.은유	3	36	16	35
	2.반어	23	21	23	27
	3.과장	10	17	14	19
	4.완서	0	0	0	0
	5.유머	1	0	0	0
소계		37(24.2%)	74(40%)	53(42.7%)	81(41.3%)
양(25.9%)	1.항진명제	2	0	0	3
	2.과장	36	58	16	35
	3.공손	1	8	3	1
	4.정보공유 원하지 않음	1	1	1	5
소계		49(26.1%)	67(36%)	20(16.1%)	44(22.4%)
관련성 (17%)	1.유머	8	10	5	13
	2.간접화법	8	15	2	3
	3.공손 또는 공손위배	13	2	5	11
	4.풍자	14	0	0	3
	5.은유	0	0	0	0
소계		43(28.1%)	27(14.6%)	12(9.7%)	30(15.3%)
태도 (19.7%)	1.공손	0	3	1	1
	2.중의	21	10	35	30
	3.풍자	11	1	2	6
	4.강조	1	3	1	4
소계		33(21.6%)	17(9.1%)	39(31.5%)	41(20.9%)
영화별 총 격률위반수(%)		153(17.9%)	총185(18.7%)	총124(13.4%)	총196(22.0%)

* Note: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위의 〈표 6〉를 통해 미국영화의 함축양상을 정리해보면, 미국영화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격률의 위반은 〈질의 격률〉위반으로 오직 진실 된 것만을 말하라고 하는 격률을 어기며 함축을 실현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 격률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으로는 반어가 총 94회, 그 다음으로 은유가 총 90회로 출현하였다. 완서와 유머로 실현되는 빈도는 극히 낮았다. 다음으로 위반율이 높은 격률

은 <양의 격률>로서 주로 미국영화에서는 양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길게 발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실현되는 함축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과장이었는데 총 145회로 양의 격률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손이 총 13회, 상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필요이하로 적게 말하는 경우가 총 8회, 가장 낮은 것으로는 항진명제로 총 5회 출현하였다. <관련성의 격률> 과 <태도의 격률> 의 위반양상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이 두 격률 위반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각각 17%, 19.7%로 매우 낮은 빈도는 아니었다.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실현된 함축은 유머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공손성과 간접화법이었다. <태도의 격률> 위반에서는 중의성으로 나타나는 함축이 압도적으로 높은 횟수인 96회로 나타났다. 미국영화에 대한 격률위반 양상과 함축의 통계의 유의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카이검증법을 사용하였고, 분석의 결과 빈도 분포는 각각의 영화가 다른 분포로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 = 57.68, p < .001$).

4.1.3 한국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다음으로는 한국영화 네 편의 전체 대화수를 대화교환(turn) 횟수 단위로 세어 산출한 후 함축 개수와 격률별 위반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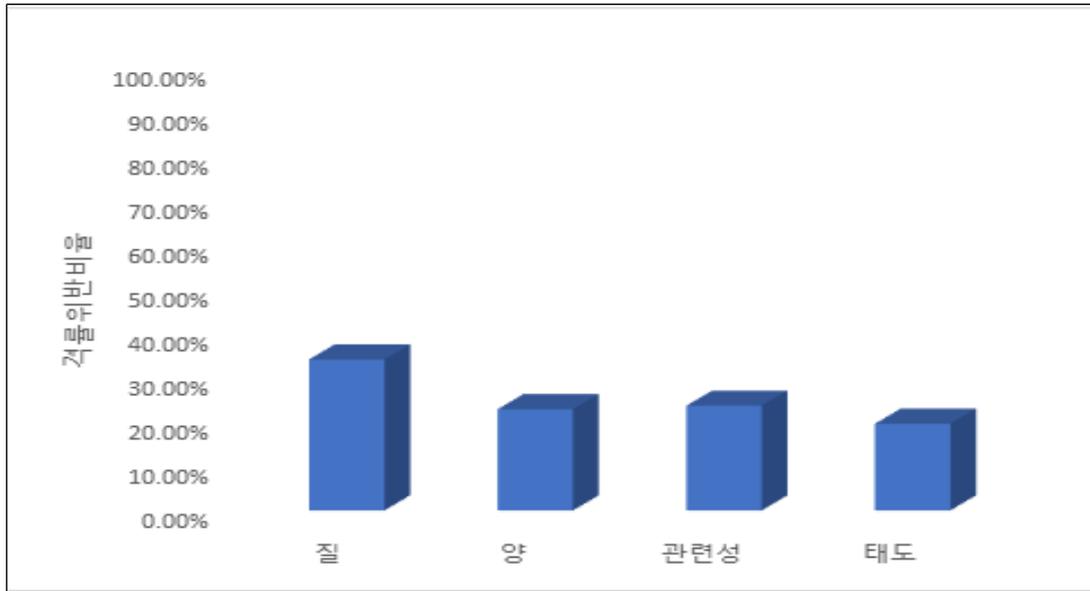
<표 7>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개수 분석

한국분석	i	ii	iii	iv	격률별 대화 함축개수합계
영화별 총 대화수 (회)	805	859	1054	843	3561
영화별 격률위반수 총계(회)	135(16.8%)	129(15%)	107(10.1%)	141(16.7%)	512(14.4%)
질의 격률	46(34.1%)	43(33.3%)	29(27.1%)	58(41.1%)	176(34.0%)
양의 격률	27(20%)	38(29.4%)	16(14.9%)	31(21.9%)	118(22.8%)
관련성의 격률	36(26.7%)	22(17.1%)	38(35.5%)	26(18.4%)	122(23.6%)
태도의 격률	26(19.3%)	26(20.1%)	24(22.4%)	25(17.7%)	101(19.5%)

* Note: i. 씨니, ii. 미나문방구, iii. 건축학개론, iv. 수상한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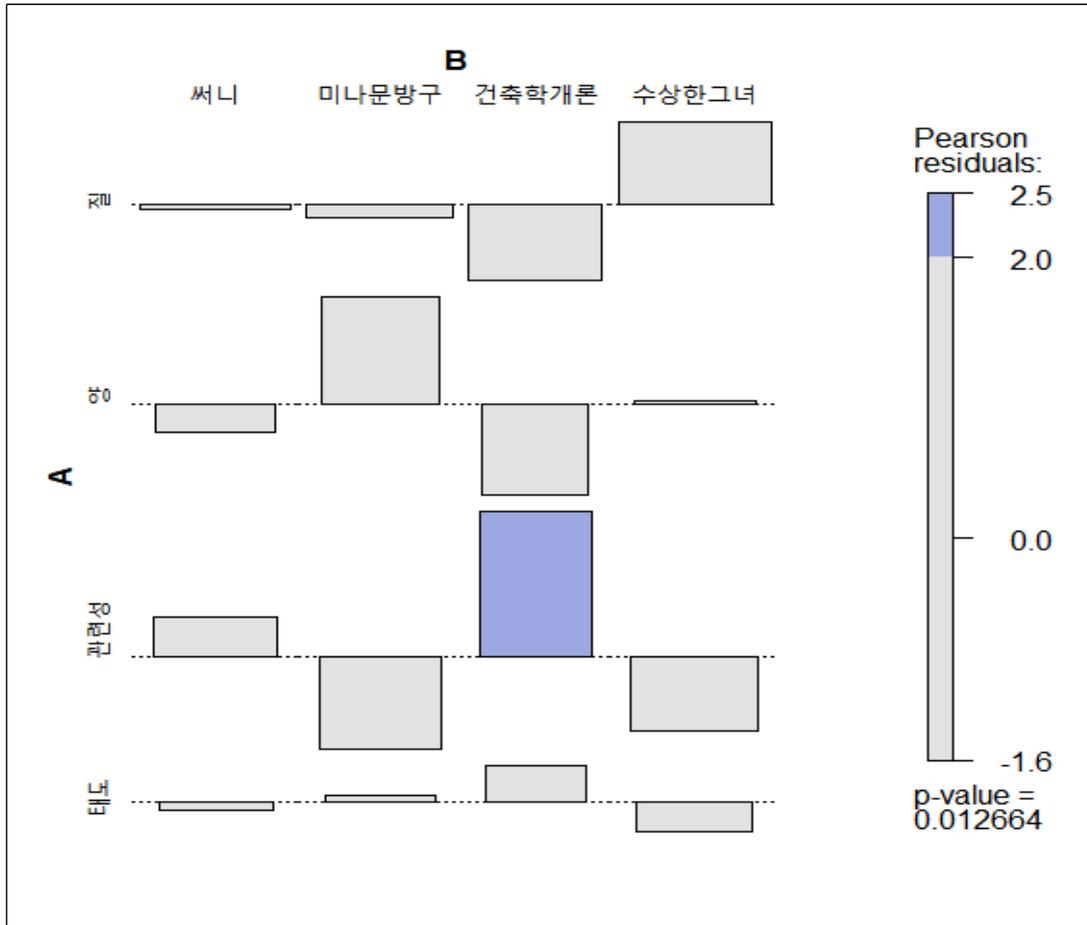
한국영화에서 격률을 위반한 횟수는 전체 대화 수 3,561회 중 517회였다. 한국영화에서 격률을 위반하여 함축을 나타내고자 하는 양상은 미국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의 격률>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4.04%의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23.60%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22.82%비율로 <양의 격률>위반이었으며, 태도(19.54%)순으로 위반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의 격률위반인 <질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난 함축은 176회 발생하였다. 각 영화별로 보면, *써니*는 전체 대화 수 805로 그 중에 격률위반으로 인한 함축은 135회 발생하여 16.77%의 빈도수를 보였다. *미나 문방구*는 전체 대화 수 859회 중 129회 발생하였고 그 빈도수는 15.01%였으며, *건축학 개론*은 전체 대화 수 1054회 중 107회로 10.15%, 마지막으로 *수상한 그녀는* 전체 대화 수 843회 중 141회로 16.72%의 함축 빈도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영화에서도 역시 <질의 격률>위반이 가장 높았고, 하위 함축실현양상에서도 미국영화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과장, 반어 그리고 은유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는 이 위반을 알고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화, 청자 간 협력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축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본 영화대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래 <도표 7>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격률위반 별 함축 빈도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7〉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빈도



한국영화 대본에 대해서도 〈표 7〉에서 보여지는 각 영화별 격률위반의 사례 빈도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Chi-squared Test(카이제곱검증)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격률위반의 빈도 분포는 각각의 영화에서 격률위반의 분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한국영화에서는 〈관련성의 격률〉위반이외에 다른 격률위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한국영화 전체적인 카이제곱검정 통계수치($\chi^2(9) = 21.00, p < .05$)는 .01 로 역시 미국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5 보다 작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도표 8〉 격률위반 빈도 그래프로 그 패턴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도표 8〉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



각 격률위반의 중간 가로선의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분포가 기대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빈도분포가 기대이하로 임을 나타낸다. 또한 진한 색으로 표시되면 출현빈도와 기대빈도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나타내며,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분포는 유의미함을 표시하고 있고 흐린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차이는 있으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으로 우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영화에서 영화 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축학 개론에서의 관련성 격률위반의 분포는 다른 영화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유의미 하였다. 영화 씨니에서는 <질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가 모두 기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고, 격률위반 별로 보면, <질의 격률>위반에 대해서는 영화, 수상한 그녀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성은 가지지 못하는 수치였다.

〈양의 격률〉위반 빈도는 영화 *미나 문방구*와 *건축학 개론*에서 기대보다 각각 높거나 낮은 분포를 보였으나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의 빈도는 영화 *건축학 개론*, *미나 문방구*, 그리고 *수상한 그녀*에서 높게 분포되었으나 유의미한 빈도 분포는 *건축학 개론*에서였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위반은 모든 한국영화에서 기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4.1.4 한국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질, 양, 관련성 그리고 태도의 상위 격률의 하위 실현 양상을 보면, 반어는 94회, 은유는 90회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반어로 실현된 양상은 89회였고, 그 다음으로 은유는 48회로 〈질의 격률〉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함축되는 양상이었다. 단일 함축 실현 양상으로 가장 높이 나타난 것은 역시 〈양의 격률〉 위반 중 과장이었으나 미국영화에서보다는 조금 낮은 96회로 실현되었다. 〈태도의 격률〉 중 중의를 통한 함축이 70회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한국영화에서는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위반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양의 격률〉위반의 경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를 위반 한 것으로 화자가 정보를 숨기고 싶거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를 어긴 경우는 화자가 청자를 이해시키려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나 자기주장을 피력하고 과시, 변명이나 핑계를 댈 경우이다. 또는 슬픔과 화남 등의 감정의 흥분 상태, 기쁜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많았는데 청자 또한 화자의 상태를 맥락으로 이해하는 함축으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 되고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주 범하게 되는 경우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의 경우는 한국영화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대화 함축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함축을 추론할 단초들을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기에 대화의 시점에서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은 충분치 않은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 할 수 있기에 함축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관련성의 격률〉위반 특징으로는 공손성 위반

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성 위반에서 공손성 위반이란 서로 어떤 맥락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하거나 주제 전환의 단초가 전혀 없이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발화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영화의 각 격률의 함축 실현을 양상별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질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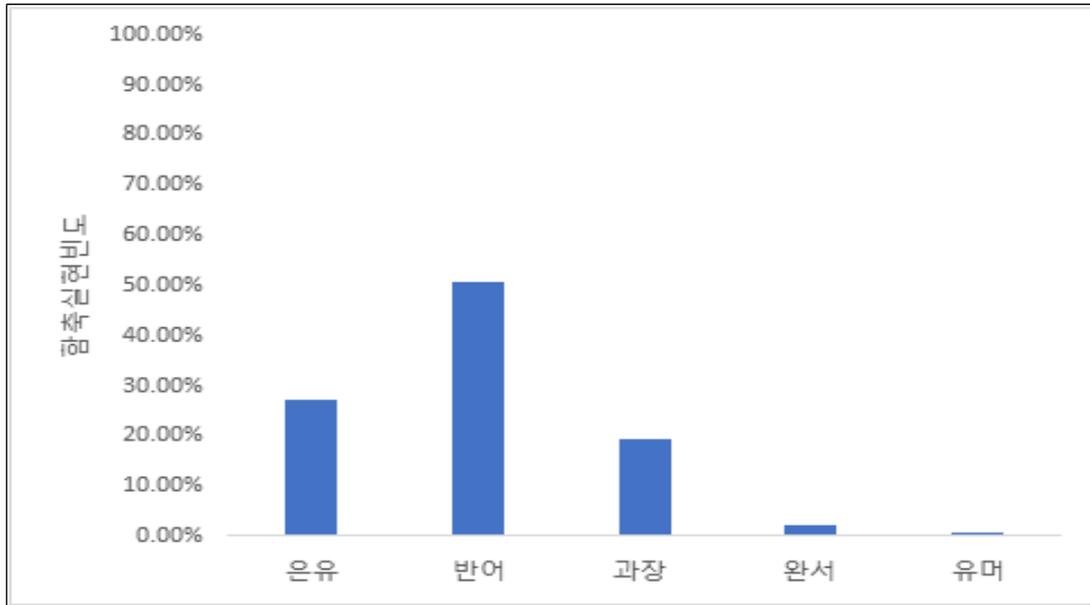
<표 8>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질의 위반 (총176회) (총34.0%)	은유	15	12	4	17	48 (27.2%)
	반어	25	21	21	22	89 (50.5%)
	과장	5	10	4	15	34 (24.5%)
	완서	1	0	0	3	4 (0%)
	유머	0	0	0	1	1 (0.4%)

* Note: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우선, <질의 격률>위반은 진리 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관련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서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76회로 34.04%의 비율을 보였다. 질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반어가 89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50.57%였다. 미국영화의 <질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반어는 38.37%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27.27%인 은유 순으로 나타났다. 질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 중에서 유머로 실현되는 경우는 앞서 미국영화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질을 어기며 실현되기보다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발생하는데, 미국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영화에서도 매우 낮은 0.57%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 9>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질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9〉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위반 빈도



두 번째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영화에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나는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 118회로 22.82%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양의 격률〉 위반 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과장이 96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81.36%였고, 그 다음으로 향진명제로 7.63%로 나타났다. 양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함축 중에서, 상대방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양을 필요 이하로 극도로 적게 표현되거나 향진명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향진명제란 앞서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명사를 나열하면서 주어와 술어가 바뀌더라도 절대 참인 경우이다. 향진명제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기보다 가르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매우 강하게 설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영화에서보다는 한국영화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손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13회로 7.60%였다. 아래의 〈표 9〉는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분석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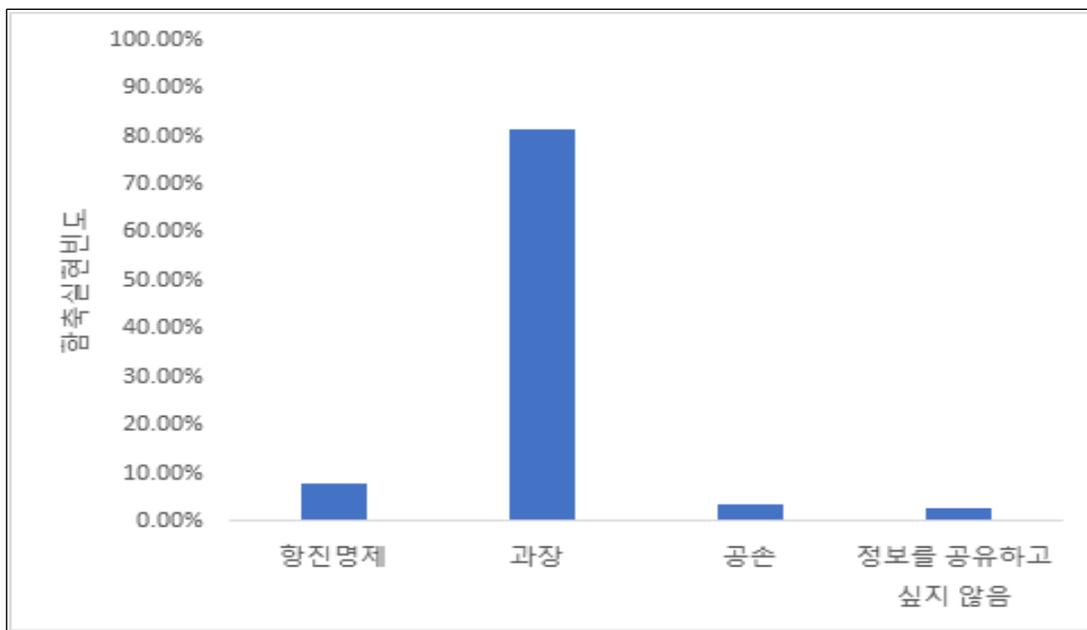
〈표 9〉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양의 위반 (총118회) (총22.8%)	항진명제	2	0	3	4	9 (7.6%)
	과장	24	37	11	24	96 (81.4%)
	공손	1		2	1	4 (3.4%)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음	0	1	0	2	3 (2.5%)

* Note: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아래 〈도표 10〉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양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나타내었다. 〈도표 10〉을 보면 양의 격률위반과 관련된 사례 중에서 〈양의 격률〉을 통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함축이 과장의 경우로 나타난다.

〈도표 10〉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위반 빈도



한국영화 *미나 문방구*를 통해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과장을 함축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다음 대화에서는 〈양의 격률〉위반 사례가 두 차례 등장한다.

- (71) ① 미나: 왜 그러냐고 왜?!... 왜 다른 차 다 보내고 하필 내 앞에서 끼어들어?...기집애라 만만해?!...
 ② 운전자: 아니...
 ③ 미나: 내가 어리고 예뻐서도 그랬을 거야?... 비싸고 좋은 차 탔어도 이랬을 거냐고?... 남자 놈들은 다 똑같애!! 여자가 가진 거 없고 나이 먹고 힘없으면 그래도 돼?... 니들 맘대로 갖고 놀다 차버려도 되냐고?!...
 ④ 운전자: 제가 언제...
 ⑤ 미나: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왜 이러냐고~~오!!
 (잠시 후 도청 사무실)
 ⑥ 미나: 그데요...
 ⑦ 과장: 에에... (손 저으며) 긴말 필요 없고.. 2개월 정직이야..
 ⑧ 미나: 과장님!!
 ⑨ 과장: 너, 인마.. 이거 살인미수야!! 찢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마터면 구속될 뻔했다고!.. 그나마.. 그동안 업무 착실했던 거 참작해서 이 정도로 끝난 거니까.. 괜히 관내에서 얼쩡거리다 피해자들 마주쳐서 승질 돋구지 말고.. 쉬어도 썩~어기 경기도 밖에 나가서 쉬어..
 (미나, 뭐라고 말하려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선다.)
 (미나 문방구, 2013)

공무원인 미나는 소식이 뜸하던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결혼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하지만 그날 해야 할 업무를 하러 나간다. 골프채를 가득 싣고 고급승용차에서 내리는 세금 체납자를 만난다. 제세공과금 납부하라는 말에 그 체납자는 미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쫓아낸다.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미나가 몰던 작은 공무수행차에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 외제차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접촉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서 ‘필요한 만큼만의 양’ 이상으로 발화를 하며 ‘풍자’, ‘비난’을 함축한다. 이 상황에서 <양의 격률>을 지키며 발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닐 것이다. 그 차를 몰고 다시 체납자의 집으로 가서 아까

본 그 비싼 외제차를 들이받고 돌아온다. 이에 직속 상사인 과장은 이러한 무모한 미나의 행동에 흥분하며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역시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미나에 대한 ‘비난’을 함축하는 필요한 만큼 이상의 긴 발화를 한다.

이번에는 한국영화의 <양의 격률>중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지만 공손성이 실현되는 양상의 예를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보도록 하겠다.

- (72) ① 두리: 근데 옥자, 그 붙여시는 어째 안 보인대? 하루라도 미국 커피를 안마시면 입에 가시가 돋힌다던 할망구가.
 ② 박씨: 며칠 전에 쓰러졌어... 뇌졸중이라...
 ③ 두리: ...어쩌다...?
 ④ 박씨: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나이 아녀... 아가씨 이제 해당사항 없지만...
 ⑤ 두리: ...
 ⑥ 박씨: (눈시울 붉어지며) 가서 행복하게 살아. 평생 고생만 했잖여. 이제 자식도 손자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잊어버리고... 아가씨 자신만 위해서 살아...

(수상한 그녀, 2013)

위의 (72)의 장면에서 <양의 격률>을 위반한 이유는 공손하게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옛 시절에 아가씨로 모시던 두리를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떠나가라는 말을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며 필요한 내용 이상을 이야기 한다. 떠나가기 어려운 상황의 두리 아가씨에게 과거의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긴 설명을 덧붙이며 <양의 격률>을 위반한다. 이는 <양의 격률>의 다른 실현 양상인 과장이나 항진명제와 구별된다. CP를 기반으로 청자는 화자가 자신을 깊이 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세 번째로,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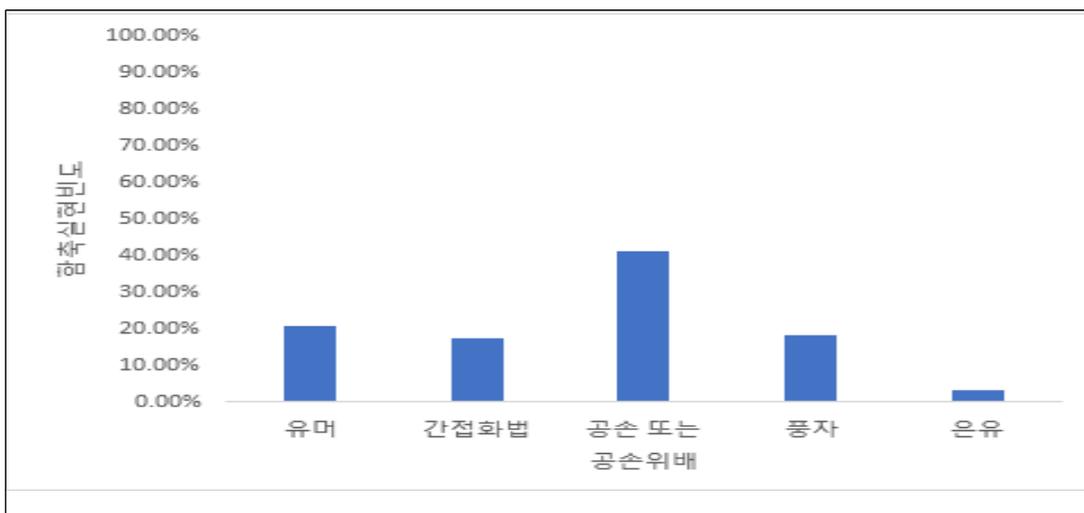
〈표 10〉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관련성의 위반 (총122회) (총23.6%)	유머	9	5	9	2	25 (20.5%)
	간접화법	8	6	3	4	21 (17%)
	공손 또는 공손위배	11	5	23	11	50 (40.9%)
	풍자	8	5	2	7	17 (15.18%)
	은유	0	1	1	2	0 (0%)

* Note: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한국영화에서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22회로 23.60%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관련성의 위반 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공손 또는 공손위배가 50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40.98%였고, 그 다음으로 유머로 20.49%로 나타났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지만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접화법은 17%였는데 대화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며 불손하게 요청하는 함축이다.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은유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했는데 한국영화에서도 역시 3.28%로 낮게 나왔다. 아래 〈도표 11〉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관련성의 격률〉 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11〉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위반 빈도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관련성을 어기며 함축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이 사례에서는 비난을 함축하고 있다.

- (73) ① 승민: 저기 ... 근데 ... 누구 ... 신지?
② 서연: 나 몰라? ... 세요?
③ 승민: ... ?
④ 서연: 저기 ... 옛날에 ... 대학 1학년 때 ... 어떻게 날 까먹어?
⑤ 승민: 에이. 까먹긴 뭘 까먹어. 하도 오랜만이니까 ...
⑥ 서연: 그래두. 나 별루 변한 것도 없는데.
⑦ 승민: 그래서 ... 무슨 일 해?
⑧ 서연: 그냥 방송일 조금.
⑨ 승민: 방송? 방송 뭐?
⑩ 서연: 케이블 같은데서 아침에 배도 타고 산도 오르고. 있어 그 런거.
⑪ 승민: 사는 덴 어디야?
⑫ 서연: 개포동.
⑬ 승민: 남편은 뭐하는데?
⑭ 서연: 동사무소에서 인구조사 나왔니? 지금.

(*건축학 개론*, 2012)

대학 졸업 후 몇 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승민은 서연에게 무슨 일(⑦)을 하는지, 그 일은 자세히 어떤 일(⑨)인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⑪),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⑬)까지 못자, 서연은 남편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신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없는 동사무소의 인구조사(⑭)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화 상대자가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 협력한다는 가정 하에 추론하게 되면 동사무소 이야기, 인구조사에 대한 발화는 너무 개인적인 것을 지나치게 자세히 묻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 11>은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을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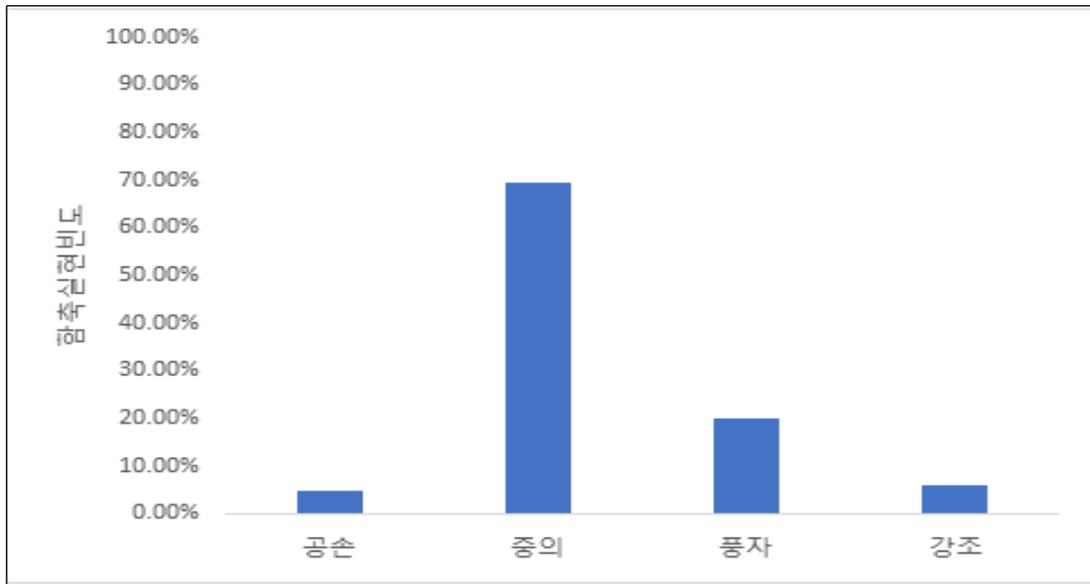
<표 11>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태도의 위반 (총101회) (총19.5%)	공손	0	0	1	4	5 (4.9%)
	중의	18	18	14	20	96 (69.3%)
	풍자	6	8	5	1	20 (19.8%)
	강조	2	0	4	0	9 (5.9%)

* Note: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태도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을 보면 <태도의 격률>위반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01회로 19.54%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태도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중의가 70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69.31%였고, 그 다음은 풍자로 19.80%로 나타났다. 한국영화에서 태도를 위반하여 강조로 실현되는 양상은 6회 5.94%, 공손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5회, 4.95%였다. 아래 <도표 12>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태도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12〉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위반 빈도



다음은 〈태도의 격률〉위반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실현된 중의적 함축을 영화, *써니* 중 한 장면에서 보도록 하겠다. 중의성은 1차 함축해석과 2차 함축해석으로 대화 참여자의 해석을 유도한다.

- (74) ① 장미: 어찌시려고?
 ② 진화: 미안하다 춘화야. 25년 만에 만나서 이딴 소리나 해대고.
 ③ 춘화: 친구끼리...아 이혼 해버려.
 ④ 진희: 누구 좋으라고... 일단 맞바람부터 좀 펴야지. 같이 필 사람?
 ⑤ 장미: 나는 좀 멧기긴 멧기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자료 못 챙기지 않나?
 ⑥ 진희: 아 또 그건 그래. 아 이 개새끼. 이거 어떻게 작살내지?
 ⑦ 나미: 찾아가서 깡판 한 번 쳐줘?
 ⑧ 장미: ?....
 ⑨ 나미: 우리 중에 하나 건드리는 건 전부 건드리는 거잖아.
 ⑩ 장미: 그런 거지.
 ⑪ 춘화: 말만 해. 어떻게? 확 뺏질러줘? 나 날 받아 논 여자야. 응?
 ⑫ 나미: 그렇게 하면 안 아파. 비틀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써니*, 2011)

이 영화에 나오는 장미, 진희, 춘화, 나미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 친구들은 사연들도 다양한데, 그 중에 진희는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하고 있다(②). 이에 친구들이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③,④,⑥,⑦,⑨). 대화는 점점 과격해 지고 힘을 합해 그 남편에게 뭔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식으로 거칠게 진행된다. 춘화라는 친구 역시 도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말만 해. ... 나 날 받아 논 여자야(⑩)”라고 이야기 한다. 이로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을 어기게 된다. CP에 의해 중의적 함축으로 2차 해석을 요구하며 대화 참여자의 해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춘화는 말기 암 상태여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는 1차 해석과 함께 2차 함축해석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친구 남편을 상대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추론하게 하여 대화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복수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이 발화에 청자인 나미는 대화협력의 기본 법칙에 의해 추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수전에 참여하는 반응(⑫)을 보인다.

다음의 <표 12> 는 한국영화의 격률위반 및 하위 범주인 함축 실현양상을 나타내며 이 표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영화의 격률위반과 함축양상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표 12〉 한국영화 전체대화 내의 각 격률위반 빈도(전체)

격률위반 유형	영화제목	i	ii	iii	iv
	총대화수	805	859	1054	843
질(34%)	1.은유	15	12	4	17
	2.반어	25	21	21	22
	3.과장	5	10	4	15
	4.완서	1	0	0	3
	5.유머	0	0	0	1
소계		46 (34.1%)	43 (33.3%)	29 (27.1%)	58 (41.1%)
양(22.8%)	1.항진명제	2	0	3	4
	2.과장	24	37	11	24
	3.공손	1		2	1
	4.정보공유 원하지 않음	0	1	0	2
소계		27 (20%)	38 (29.4%)	16 (14.9%)	31 (21.9%)
관련성 (23.6%)	1.유머	9	5	9	2
	2.간접화법	8	6	3	4
	3.공손 또는 공손위배	11	5	23	11
	4.풍자	8	5	2	7
	5.은유	0	1	1	2
소계		36 (26.7%)	22 (17.1%)	38 (35.5%)	26 (18.4%)
태도 (19.5%)	1.공손	0	0	1	4
	2.중의	18	18	14	20
	3.풍자	6	8	5	1
	4.강조	2	0	4	0
소계		26 (19.3%)	26 (20.1%)	24 (22.4%)	25 (17.7%)
영화별 총 격률위반수(%)		135 (16.8 %)	129 (15 %)	107 (10.1%)	141 (16.7 %)

* Note: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한국영화에서 〈질의 격률〉위반은 나머지 세 개의 격률 위반의 빈도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세 개의 격률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이 각각 22.8%, 23.6% 19.5%로 나타났다. 〈질의 격률〉을 여기며 사실만을 말하라고 하는 격률이 위반되며 나타나는 함축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 반어로 총 89회 출현되었다. 그 다

음 빈도로 은유가 총 48회 과장이 총 34회 나타났다. <양의 격률>을 여기면서 함축이 실현되는 경우 중 과장이 총 96회로 가장 빈번히 실현되었다. 나머지 항진명제와 공손, 정보를 상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의도의 함축의 양상은 각각, 총 9회, 4회 3회로 비슷하게 낮은 빈도로 실현되었다. <관련성의 격률>은 주로 유머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공손성을 위배하여 화제를 다른 것으로 갑자기 돌리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빈도도 높게 나타나 총 50회 실현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머가 총 25회로 나타났다. 풍자와 간접화법은 총 22회, 21회로 나타났으며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실현되는 은유의 함축 빈도는 매우 낮은 총 4회였다. 한국영화에 대한 격률위반 양상과 함축의 통계의 유의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역시 카이검증법을 사용하였고, 결과 역시 빈도 분포가 각각의 영화에서 다른 분포로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9) = 21.00, p < .05$).

4.1.5 스페인영화에 나타난 격률위반

네 편의 스페인영화의 전체 대화수를 대화교환(turn) 횟수 단위로 세어 산출한 후 함축 개수와 각 격률별 위반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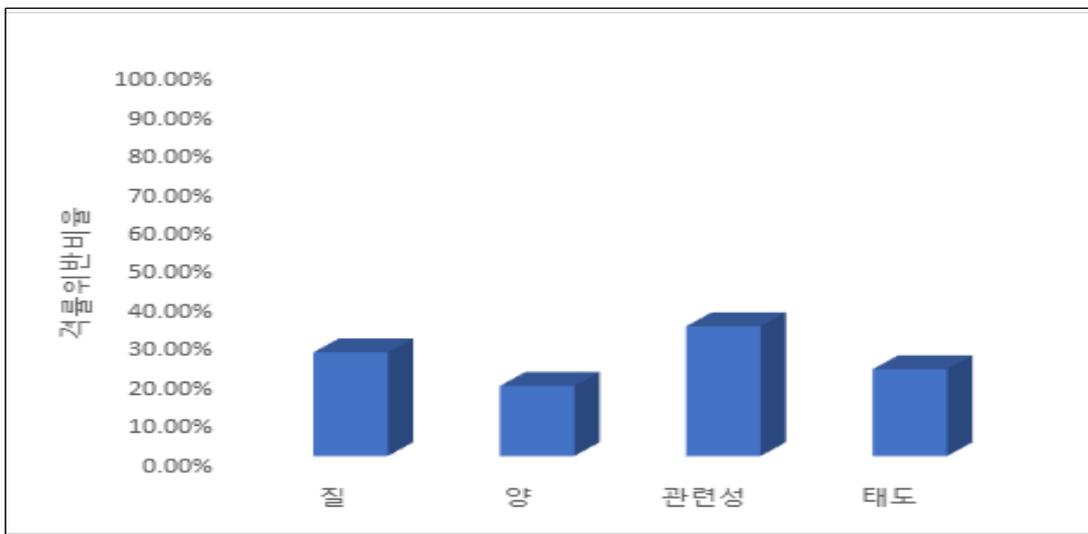
<표 13>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개수 분석

스페인분석	i	ii	iii	iv	격률별 대화함축개수합계
영화별 총 대화수 (회)	636	703	843	609	2791
영화별 격률위반수 총계(회)	139(21.9%)	139(19.8%)	106(12.6%)	68(11.2%)	452(16.2%)
질의 격률	47(33.8%)	33(23.7%)	21(19.8%)	14(20.6%)	115(26.0%)
양의 격률	24(17.3%)	27(19.4%)	22(20.8%)	17(25%)	80(18.1%)
관련성의 격률	49(35.3%)	48(34.5%)	34(32%)	17(25%)	148(33.4%)
태도의 격률	19(13.7%)	31(22.3%)	29(27.4%)	20(29.4%)	99(22.4%)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스페인영화에서 미국, 한국영화의 격률위반 양상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성의 격률>위반이 3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위반된 격률은 <질의 격률>로 26.02%였다. 그 다음으로는 태도(22.40%)의 격률, 마지막으로 가장 위반 비율이 낮은 것은 <양의 격률>위반(18.10%)이었다. 스페인영화에서 격률을 위반한 횟수는 전체 대화 수 2,791회 중 총 452회였다. 가장 높은 비율의 격률위반인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난 함축은 총 148회 발생하였다. 각 영화별로 보면, ‘CIEN METROS(100 METERS)’는 전체 대화 수 636로 그 중에 함축은 139회 발생하여 21.85%의 빈도수를 보였다. ‘MAR ADENTRO(SEA INSIDE)’는 전체 대화 수 703회 중 총 139회 발생하였고 그 빈도수는 19.77%였으며, ‘TODO SOBRE MI MADRE(ALL ABOUT MY MOTHER)’는 전체 대화 수 843회 중 총 106회로 12.57%, 마지막으로 ‘HABLE CON ELLA(TALK TO HER)’는 전체 대화 수 609회 중 총 68회로 11.16%의 함축 빈도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 13>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격률 위반 별 함축 빈도로 나타내었고 막대그래프를 통해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13>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별 함축 빈도



Chi-squared Test(카이제곱검증)를 통해 스페인영화에서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의 유의미성을 검증해 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영화에서 발견된 격률 위반의 빈도 분포는 .056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05 이라는 유의미성의 기준 수

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성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다($\chi^2(9) = 16.53, p < .0566$).

이를 <도표 14> 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질, 양, 관련성 위반에서는 분포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의 격률>위반에서 영화, *CIEN METROS*가 매우 낮은 빈도 분포도를 나타내어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진한 색으로 표시되었다.

<도표 14>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



유의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한색이 표시되고 가로 기준선의 위 아래로 큰 폭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각 격률위반의 스페인영화별 빈도 분포 차이는 기대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영화, *CIEN METROS*에서 <태도의 격률>위반이 유의미하게 낮은 분포를 보였고, 맨 위의 <질의 격률>위반 빈도가 비교적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4.1.6 스페인영화의 함축실현 양상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성의 격률>위반 중 가장 높게 나타난 함축양상은 공손성 위반(총 64회)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머(총 42회)가 높게 나타났다. 관련성 격률위반으로 유머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다. <태도의 격률>중에 중의가 가장 자주 실현되어 총 72회로 나타났다.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라'고 하는 <양의 격률>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다른 두 개 나라의 영화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질, 양, 관련성, 태도라는 상위 항목의 하위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것은 <양의 격률>위반 중에서 '과장'과 <질의 격률>위반의 '반어'이다. 스페인 문화에서 눈에 띄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함축 양상을 스페인 문화의 특징적인 면으로 설명한 연구가 있다. Lorenzo-Dus(2001: 118-119)는 과장된 반어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아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기지가 뛰어난('witty self')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회 공동의 기반(common ground)이라고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¹⁾.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면서 그 지나친 면으로 인해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Pomerantz, 1978; Herbert, 1989; Homles, 1988)고 하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건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충분히 용인된 의사소통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가속장치³²⁾라고 하였다. Hickey(1991: 5)에 따르면, 이 화행이 영국에서는 위선적으로 인식되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든다³³⁾라고 여겨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제 스페인영화를 각 격률의 함축 실현 양상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질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1) Lorenzo-Dus argues that the upgrading of compliment responses by the Spanish is a sign of positive politeness. The aim of the upgrading is to display a desired identity, as in a witty self, and claim common ground, hence establishing rapport.

32) "social accelera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and socioculturally sanctioned communicative practices"

33) 'a preference for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 is played out through a number of linguistic strategies, for example, personal reference, hedging and deictic anchorage, which typify a certain 'British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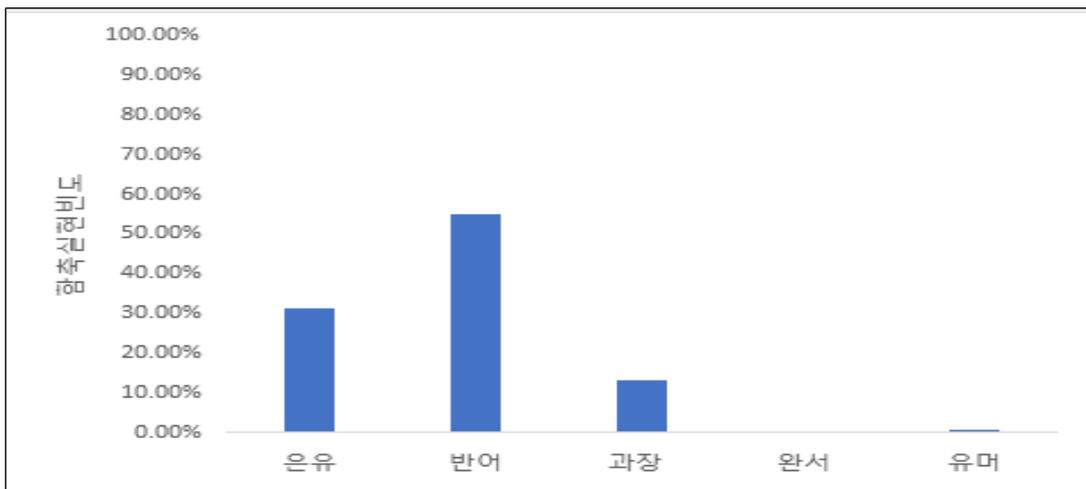
〈표 14〉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질의 위반 (총115회) (총26.0%)	은유	13	15	7	1	36 (31.3%)
	반어	31	13	10	9	63 (54.8%)
	과장	3	4	4	4	15 (13.0%)
	완서	0	0	0	0	0 (0%)
	유머	0	1	0	0	1 (0.9%)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진리 여부와 관계가 있는 〈질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총 115회로 26.02%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질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함축 양상은 반어로 총 63회, 54.78%였고, 그 다음은 31.30%로 은유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과장으로 13.04%로 함축이 실현되었고, 유머는 0.87%,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네 개의 스페인어 영화에서 〈질의 격률〉을 어 기며 실현된 완서의 함축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표 15〉에서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 격률 대비 〈질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다.

〈도표 15〉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질의 격률〉위반 빈도



다음 대화에서 반어법의 ‘강한 비난’을 표현하는 <질의 격률> 위반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TODO SOBRE MI MADRE* 라는 스페인영화의 한 장면이다. 스페인영화의 대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같은 어원을 가진 영어대본 정보를 함께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75) ① Rosa: Mi trabajo es ayudar a la gente aunque acabe de conocerla. (My work is to help people... even if I've just met them).
- ② Madre: Pues, el mio, no. No pongas esa cara eso. No significa que sea intolerante. Voy a proponerle un trato. (Well, mine isn't. Don't look at me like that. It doesn't mean I'm intolerant. I'll make you a deal).
- ③ Rosa: ¿Un trato? (A deal)?
- ④ Madre: Estoy dispuesta a darle una oportunidad de esa mujer si tu no te vas a El Salvador. (I'll give that woman a chance if you don't go to El Salvador).
- ⑤ Rosa: Mama, no me crees más dudas. Es bastante. (Mom, don't give me any more doubts. I've got enough).
- ⑥ Madre: Y así es. ¡Ese viaje es un suicidio! ¡Mejor dicho un parricidio! (And so you should. That trip is suicide! No, it's parricide!)
- ⑦ Rosa: Bueno, te dejo. Que Manuela está esperando. (Well, I have to go. Manuela's waiting)
- ⑧ Madre: ¡Eso es! Es cualquier puta, cualquier Salvador y no son más importantes que tu madre y tu madre! (Sure! Any whore, any Salvadoran, is more important than your parents!)
- ⑨ Rosa: No la empieza, mama. (Don't start, Mom).
- ⑩ Madre: En vez ir a un psiquiatra. (You should go see a

psychiatrist).

(*TODO SOBRE MI MADRE*, 1999)

사회의 소외 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Rosa는 방금 사회구제 센터에서 만난 한 여인 Manuela를 도와주기 위해 어머니(Madre: Mother) 집으로 간다. 어머니에게 이 여인을 요리사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돕는 딸이 못마땅한 엄마는 곧 분쟁지역인 엘살바도르로 떠나려는 딸에게 일종의 거래를 하자고 한다. ④번(Estoy dispuesta a darle una oportunidad de esa mujer si tu no te vas a El Salvador.)에서 그 거래의 내용은 딸이 엘살바도르로 떠나지 않으면 그 떠돌이 여인을 요리사로 쓰겠다는 것이다.

⑤(Mama, no me crees más dudas. Es bastante.)에서 딸은 어머니에게 이런 태도를 그만해 달라고 부탁한다. 엘살바도르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이 어미도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는 ⑥번 대화(Y así es. Ese viaje es un suicidio! Mejor dicho un parricidio!)에서 뒤에 설명하게 될 양(지나친 강도)의 격률을 위반하며 자신의 심정을 과장하며 토로한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길어지자 아래층에서 기다리겠다고 내려간 Manuela를 언급하며 이제 그녀에게 가보겠다(⑦ Bueno, te dejo. Que Manuela está esperando.)고 하는 딸에게 엄마는 어떤 창녀(엄마는 Manuela를 창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나 엘살바도르 사람도 이 엄마보다 중요하구나(⑧Eso es! Es cualquier puta, cualquier Salvador y no son más importante que tu madre y tu madre!)라며 딸에게 강한 비난을 표현함으로써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화자는 CP를 준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함축이 발생하여 자신을 강하게 비난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된다. 더 이상 Rosa는 어머니와 대화 할 수 없음을 추론한다. 그리하여 딸은 또 이런 대화가 시작되는 것(⑨No la empieza, mama)에 대해 상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어머니는 낯 정신과에 가 봐야해(⑩En vez ir a un psiquiatra)라는 심한 말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또 다시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강한 비난을 반복 함축하고 있다.

<질의 격률>위반의 다른 양상의 함축의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이번에는

은유의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다.

- (76) ① Madre de Rosa: No me gusta cualquiera que bese al bebé.
¿Quién era esa mujer en el bar contigo? (I don't like just anyone kissing the baby. Who was that woman in the bar with you?)
- ② Manuela: Esa mujer es su padre. (That woman is his father.)
- ③ Rosa's Mother: ¿Qué dijiste? (What did you say?)
- ④ Manuela: Ese era su padre, y está muy enfermo. (That was his Father, and he's very ill.)
- ⑤ Rosa's Mother: ¿Ese monstruo es el que mató a mi hija? (That monster is the one who killed my daughter?)
- ⑥ Manuela: No pienses en eso. (Don't think about that.)
- (*TODO SOBRE MI MADRE*, 1999)

〈질의 격률〉을 위반하며 은유를 사용하는 함축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주장하고자 사용된다. 위의 (76)의 영화장면에서도 역시 사람에게 괴물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Rosa는 에이즈에 걸린 줄 모르고 동성연애자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된다. 임신과 함께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결국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된다. 로사의 어머니(Madre de Rosa)는 손자를 로사의 지인이었던 Manuela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키우고 있다. 어느 날 로사의 어머니는 한 카페에 Manuela가 손자와 함께 이상한 모습의 여자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자가 자신의 손자를 안고 이마에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다. 집에 돌아온 Manuela에게 아무나 손자에게 키스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며 그 여자가 누군지 묻는다(①). Manuela는 그 여자가 바로 손자의 아버지라고 말한다(②). 어머니는 매우 놀라고, Manuela는 이는 분명 사실이고 역시 에이즈에 걸린 그는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④). 이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죽게 한 그 괴물이냐고(⑤)고 <질의 격률>을 위반하며 은유로 분노를 극대화 한다. 역시 청자는 대화의 협력 원리에 따라 상대방의 분노의 정도가 극에 달한 표현이라고 추론하며 어머니를 이해하고 진정시키려한다(⑥).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은 다음의 <표 15>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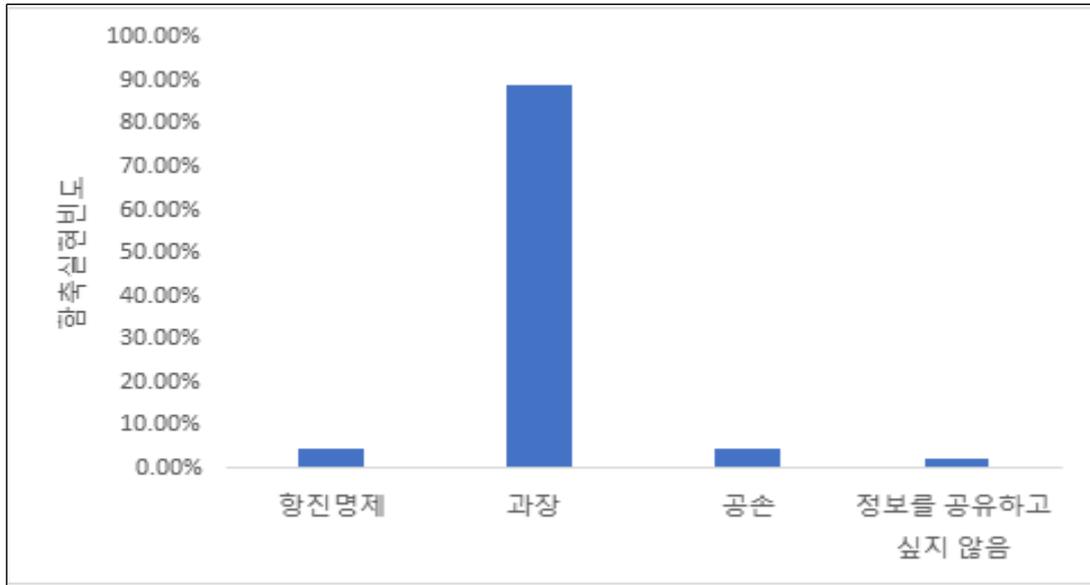
<표 15>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양의 위반 (총90회) (총18.1%)	향진명제	0	3	1	0	4 (4.4%)
	과장	24	21	21	14	80 (88.9%)
	공손	0	1	0	3	4 (4.4%)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음	0	2	0	0	2 (2.2%)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스페인영화에서 <양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90회로 18.10%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양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과장이 80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88.89%였고, 그 다음으로 공손과 향진명제가 같은 비율인 4.44%로 나타났다.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음으로 인해 양을 극도로 적게 하여 발화한 <양의 격률>위반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영화의 경우 2.22%로 나타났다. 아래의 <도표 16>은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 격률 대비 <양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를 보여준다.

〈도표 16〉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양의 격률〉위반 빈도



다음은 영화, *MAR ADENTRO* 중에서 상대방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음으로 〈양의 격률〉을 위반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 (77) ① Javi: ¿Que esta pasando? (What's going on?)
- ② Ramon: Veamos. ¿Qué dice aquí? (Let's see. What does it say here?)
- ③ Javi: ...
- ④ Ramon: "La muerte es mi amiga", ¿dónde está el colon? ¿Qué te están enseñando en la escuela? Tienes que prestar atención a lo que te doy ... Incluso tu abuelo lo haría mejor ... Mira, Javi, si así es como vas a ayudar, prefiero que no lo hagas, ¿vale? Porque me haces trabajar dos veces ... Dame el palo. Dame el palo ... Pon un poco más de atención, ¿de acuerdo? ("Death is my friend,"

where's the colon? What are they teaching you in school?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I give you... Even your grandpa would do it better... Look, Javi, if this is the way you are going to help I rather you didn't do it, ok? Because you make me work twice... Give me the stick. Give me the stick... Put a little more attention, ok?)

⑤ Madre de Javi: Javi, ¿que pasó? (Javi, what happened?)

⑥ Javi: Nada. (Nothing.)

(MAR ADENTRO, 2004)

안락사를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는 Ramon은 26년 전 사고로 목 아래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다. 막대를 입에 물고 그동안 수많은 시와 자신만의 글을 써오고 있으며 지금은 자신의 자서전에 몰두해 있다. 조카인 Javi에게 도움을 청해 글을 타자에 옮겨 적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수차례 실패를 하고 변호사와 여러 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역시 합법화가 통과 되지 못하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Ramon은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조카를 불러 타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생긴 것에 대해 심하게 질타한다. “도대체 ‘콜론’ 문장 부호는 어디로 갔고,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건지, 신경을 써 주지 않으니 차라리 늙은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할 것 같다(④)”며 화를 낸다. 심하게 혼이 난 하비는 그 자리를 뛰쳐나오다가 자신의 어머니(Madre de Javi: Javi's Mother)와 마주친다. 어머니는 표정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⑤) 묻는다. Javi는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Nada(Nothing(⑥))”라고 말하며 <양의 격률>을 위반한다. 지금 으로서는 자신이 부당할 정도로 심하게 혼이 난 상황을 어머니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양의 격률>위반으로 함축하고 있고, 어머니는 표정으로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인지했지만 “아무 일도 아니에요.”라는 아들의 부족한 정보 양에도 불구하고 CP하에 이 대화의 흐름을 추론을 해보려 하며 아들을 바라보기

만 한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침묵한다.

〈양의 격률〉위반이라고 할 때 필요이상의 많은 양을 말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필요 이하로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필요 이하의 양을 제공하며 〈양의 격률〉을 어기지만 위의 (77)번 장면에서 나타나는 함축과는 다르게 공손을 나타내며 상대를 배려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78) ① Ramon: Lo que tengas que decir me lo dices y punto.
(Whatever you... ..have to tell me, do it and be done with it...)

② José: Voy a decirte una cosa. Yo soy tu hermano mayor.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Ramon. I am the older brother...)

③ Ramon: Escuchame un momento. Que pasa si tienes un accidente mañana y te mueres? No es ninguna tontería. ¿Es que que pasaria conmigo? Tiene que pensar en mi mismo con un miseria de pension. Que mas bien al veves. ¿Si viviendo para poner las cosas mas dificiles? (Listen to me, listen to me for a moment... What if you have an accident tomorrow and you die? Have you thought about it? What would happen to me? I would have to take care of the family, right? Of your wife, your son, dad... With that miserable pension of mine... If I stay alive, I'll make things a lot more difficult...)

④ José: Soy un hermano mayor. Y mientras yo este vivo.
Aqui no se va a matar nadie. En esta casa no se va a matar nadie. ¿Me oyes? Metetelo Ben en la cabeza. Ramon. Nadie!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Ramon. I am the older brother... I am the older here. And while Im alive, no one is getting killed here... No one in this house is getting killed. Put that in your head, Ramon... No one!

⑤ Padre: Bueno, hijo. Yo me marchó. (Ok, son. I'll leave.)

(MAR ADENTRO, 2014)

26년째 전신마비 환자로 타인에게 절대 의존하며 살고 있는 Ramon은 끊임없이 안락사를 주장하고 그 타당성을 사적, 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오랫동안 간호해 오고 삶을 부양하고 있는 친형과 그 가족들은 안타까워할 뿐이다. 이 대화에서 형은 점점 더 죽음을 원하고 있는 동생에게 슬픔을 넘어선 분노를 느끼며 아버지(Padre: Father)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의견을 묻는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들의 논쟁에 묵묵히 듣기만하다가 그 소란이 잦아들고 소리 없이 우는 작은 아들 곁에서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참을 쳐다 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나는 간다(Bueno, hijo. Yo me marchó.(⑤))” 라는 말로 그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CP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견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간다고 하는 말로 일어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이 짧은 함축으로 그 복잡한 심정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배려한다는 내면의 공손성을 청자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즉, 필요 이하의 양으로 대화를 이끌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손성을 극대화하는 실현양상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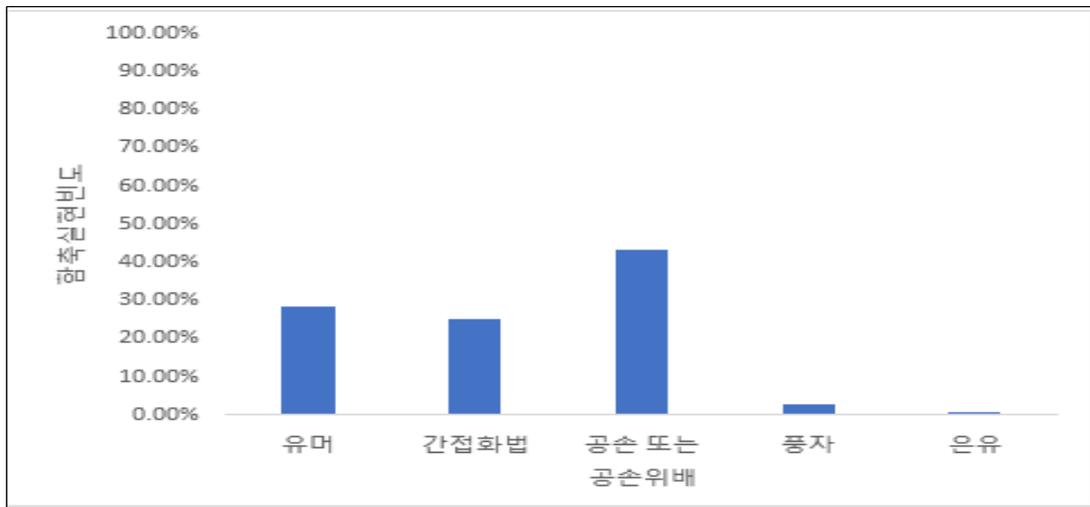
〈표 16〉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관련성의 위반 (총148회) (총33.5%)	유머	6	24	11	1	42 (28.4%)
	간접화법	19	6	10	2	37 (25.0%)
	공손 또는 공손위배	21	16	13	14	64 (43.3%)
	풍자	3	1	0	0	4 (2.78%)
	은유	0	1	0	0	1 (0.7%)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스페인영화에서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148회로 33.48%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관련성의 격률〉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공손 또는 공손위배가 64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43.24%였고, 그 다음으로 유머로 28.38%로 나타났다. 관련성을 위반하여 은유를 함축하는 양상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스페인영화에서도 그 양상은 미국영화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았다. 간접화법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간접화법은 직접화법으로 발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거나 사실을 열거 할 때 평서문의 형태, 또는 명령할 때 명령문의 형태를 취하는 직접화법의 형태를 벗어나서, 간접화법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스페인영화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인 25%로 실현되었다. 아래의 〈도표 17〉은 위의 분석 수치를 전체 격률 대비 〈관련성의 격률〉함축 양상의 빈도를 보여준다.

〈도표 17〉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관련성의 격률〉위반 빈도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유머가 함축되는 예를 영화 *CIEN METROS* 중에서 보도록 한다.

- (79) ① Doctor: Ramon, hoy hemos tenido suerte. Esos son los corticoides. Te ayudarán pero estarás hinchado y cansado. Más adelante probaremos con un medicamento comparable a las anfetaminas. (Ramon, today we've been lucky. Those are corticoids. They'll help you but you'll get swollen and tired. Later on we'll try with a drug comparable to amphetamines.)
- ② Ramon: ¡Justo lo que necesitaba! (Just what I needed!)
- ③ Doctor: Eso es bueno, un sentido del humor. (That's good, a sense of humor.)
- ④ Ramon: ¿Aquí hay un departamento de comedia? (Isn't there a comedy department?)
- ⑤ Doctor: No. Bueno, sí, el departamento de nóminas. Ramn, tu cuerpo ha rechazado el tratamiento. Tenemos

que empezar con otro. Lo recibirás una vez al mes en el hospital. (No. Well, yes, the payroll department. Ramn, your body has rejected the treatment. We have to start with another one. You'll receive it once a month in hospital.)

⑥ Ramon: ¿Qué voy a hacer con mi vida ahora?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now?)

(CIEN METROS, 2016)

이 장면에서는 관련성을 어기는 대화가 여러 번 이어지며 유머로 실현되고 있다. Ramon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이 병은 언제 재발될지 모르고 어떤 증상으로 발현 될지 모르는 심각한 병이다. 이 장면에서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쓰면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사용한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약간의 부작용도 알려주고 있다. 약간 붓고 피곤해 질 수 있으니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며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이라는 것이라며,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몸 전체의 작용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지는 각성제 암페타민(amphetamine)에 해당하는 약을 써보자고 한다.

Ramon은 이에 반가운 듯이 “그게 바로 제가 딱 원했던 거예요(¡Justo lo que necesitaba!②)”라며 관련성을 어긴다. 힘든 심리 상태를 이겨보고자 관련성을 어기며 유머로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다. 역시 청자인 의사도 이에 협력하여 마찬가지로 관련성을 어기는 분위기에 동조하여 유머적인 함축을 만들어내는 발화를 한다. 바로 지금이야 말로 유머감각이 필요(③)한 때라고 하며 말하자 Ramon은 다시 한 번 유머로 이어간다. “이 병원에 코미디 부서도 있나 봐요(¿Aquí hay un departamento de comedia?④)?”라고 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협력하여 대화가 성사 되도록 노력한다는 CP의 법칙 하에 의사는 “있긴 있죠. 급료부서요(Bueno, sí, el departamento de nóminas.⑤).” 여기서 코미디 부서에 대해 이어지는 대화에 이어 또 한 번 관련성이 어겨진 ‘급료부서’라는 발화를 만약 대화협력 원칙의 기본 원리를 청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다. 청자는 이를 추론하여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한다면 추론을 하게 될 것이다. 코미디 부서와 연결하여 관련성을 어긴 급료부서에 대한 언급은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머 함축에 의해 ‘급료가 너무 적어 웃음이 나온다’는 해석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결국 힘든 일에 비해 급료가 적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다음 영화 *MAR ADENTRO*의 장면 역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공손성을 위반하는 함축을 보여주고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안락사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Ramon이 변호사를 만난 첫날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이다.

- (80) ① Jamon: Pues, vamos a ver. Primero desayuno ...(Well, let's see. The first thing is breakfast...)
- ② Julia: ¿A que hora? (What time?)
- ③ Jamon: 9:30. Me gusta levantarme temprano. Y despues de esto, escucho la radio por poco... (9:30. I like to wake up early... After that, I listen to the radio for bit...)
- ④ Julia: ¿Que te gusta escuchar? (What do you like to listen to?)
- ⑤ Jamon: Un poco de todo. Sobre todo debates. (A little of everything. Mostly debates.)
- ⑥ Julia: ¿Te gustan los debates? (You like debates?)
- ⑦ Jamon: Sí Sí. Me gusta la fiesta ... Ver. Esta es mi computadora personal ... (Yes, yes. I like the party... See. This is my personal computer...)
- ⑧ Julia: ¿Lo diseñaste? (Did you design it?)
- ⑨ Jamon: Sí, me gustan los inventos. Mi padre o mi sobrino los construyen ... De repente eres muy serio ... (Yes, I like inventions. My Father or my nephew builds them... You are so serious all of a sudden...)

- ⑩ Julia: Ramon. ¿Por qué morir? (Ramon. Why dying?)
- ⑪ Jamon: Bien, veamos. Quiero morir porque ... para mí, la vida de esta manera ... no es digna ... puedo entender si otros tetraplégicos podrían ... sentirse ofendidos cuando digo que una vida así no es Digno ... Pero no juzgo a nadie. ¿Quién soy yo para juzgar a los que quieren vivir? Por eso pido que no me juzguen ni a la persona que me ayuda a morir ... (Well, let's see. I want to die because... ...for me, life in this way... is not worthy... I can understand if other tetraplegic could... ...feel offended when I say life like this is not worthy... But I don't judge anyone. Who am I to judge those that want to live? That's why I ask not to be judged nor the person that helps me to die...)
- (MAR ADENTRO, 2014)

Ramon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①Pues, vamos a ver. Primero desayuno ...)고 하면서, 그 이후에 라디오를 들으며 보통은 토론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설명한다. 화자와 청자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생각해낸 컴퓨터라며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기계를 소개한다. ①번 대화에서 ⑦번 대화까지 그리고, 변호사는 발명하는 것을 좋아하냐(⑧¿Lo diseñaste?)는 질문과 자신의 발명 취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⑨Sí, me gustan los inventos. Mi padre o mi sobrino los construyen ... De repente eres muy serio ...)하는 Ramon의 대화까지 일상 대화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변호사는 Ramon의 지금까지의 일상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⑩Ramon.¿Por qué morir?)”고 묻는다. 물론 ⑧번까지의 대화에서 전혀 죽음에 대해 물을 만한 배경이 전혀 없었는데 변호사의 머리에 갑자기 이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떠오르자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대화를 이

끝었다. 관련성은 없지만 청자인 Ramon은 CP의 바탕을 두고 변호사라는 직업과 찾아온 목적을 추론하고 전혀 지연됨 없이 죽으려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나가며 대화는 무리 없이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대화함축이 일어날 때 청자는 추론의 형성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 참여자 모두 상호 협력으로 대화의 배경과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 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 17>은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 분석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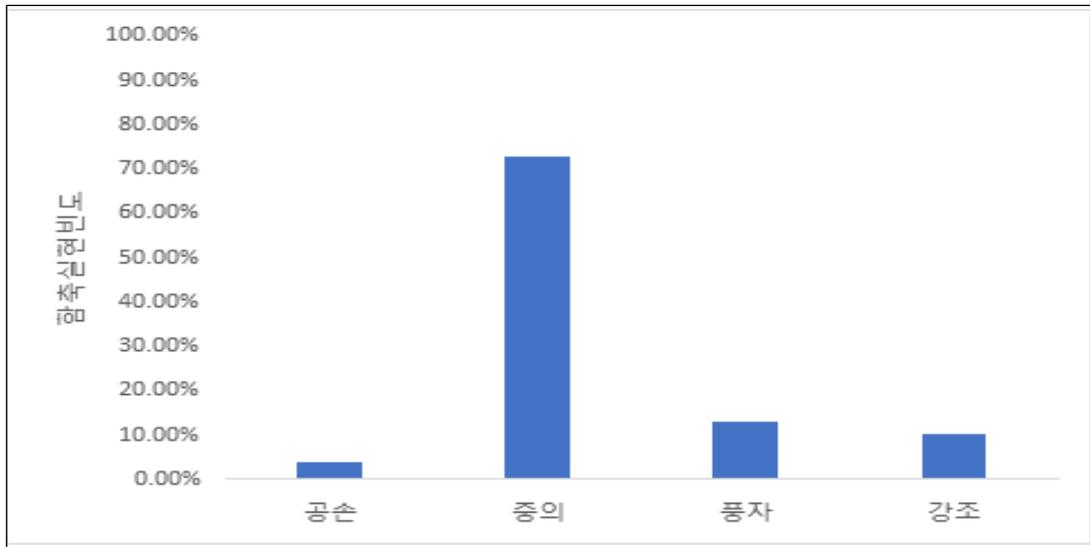
<표 17>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 사례 빈도수(%)

대화격률 위반유형	함축실현양상	i	ii	iii	iv	계(%)
태도의 위반 (총99회) (총22.4%)	공손	0	0	3	1	4 (4.0%)
	중의	12	26	19	15	72 (72.7%)
	풍자	3	3	5	2	13 (13.1%)
	강조	4	2	2	2	10 (10.1%)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이번에는 <태도의 격률>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특정대화함축을 보면 <태도의 격률>위반은 그 빈도에 있어 전체 총 격률위반 중에서 99회로 22.40%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태도의 위반비율 중 하위 함축 실현 양상을 보면 그 중에서 중의가 총 72회로 가장 높은 비율인 72.73%였고, 그 다음은 풍자로 13.13%로 나타났다. 태도를 위반하여 강조로 실현되는 양상은 총 10회 10.1%, 공손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총 4회, 3.85%로 가장 낮았다. 아래 <도표 18>에서는 분석 수치를 전체격률 대비 <태도의 격률> 함축 양상의 빈도로 나타내었다.

〈도표 18〉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태도의 격률〉 위반 빈도



영화, *HABLE CON ELLA* 중에서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여 풍자를 함축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 (81) ① Marco: Buenos días. Soy amigo de Benigno. (Good morning. I am Benigno's friend.)
- ② Landlady: Tu eres Marco. Benigno me llamó. ¿Tomarás su apartamento? Estará sucio. Él no me dejó entrar para limpiarlo. (You are Marco? Benigno called me. Will you take his apartment? It will be dirty. He wouldn't let me in to clean it.)
- ③ Marco: Está bien, me encargaré de ello. (It's OK, I will take care of it.)
- ④ Landlady: ¿Te doy la llave? ... Iré a buscarla ... ¿Lo viste?
 ¿Como es el? Bien. Pobre chico, ni siquiera tuvo suerte durante su encarcelamiento. No hay publicidad! No hay televisión, no hay periodistas. Nadie vino aquí. ¡No condescendieron! ¡Y muestran

tal basura! ¡Les daría una entrevista! ¡Los medios son una mierda en este país! (Shall I give you the key?... I will go look for it... Did you see him? How is he? Well. Poor guy, he wasn't even lucky during his imprisonment. No publicity! No TV, no reporters. No one came here. They didn't condescend! And they show such garbage! I would give them an interview! The media is shit in this country!)

⑤ Marco: Tiene razón. Las llaves...(You are right. The keys...)

(HABLE CON ELLA, 2002)

의식불명상태인 코마에 빠진 여자 환자를 간호하던 Benigno는 이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외국으로 떠나 있던 친구 Marco는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한다. Benigno가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처음으로 Benigno의 집에 가게 된다. 한동안 비우게 된 이 집의 건물주인인 노인은 감옥까지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자들도 안 오고 언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 한다. TV나 라디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나라의 언론은 쓰레기라고 풍자를 한다(④). 처음 본 사람에게 집 열쇠를 건네 달라는 말에 갑자기 언론을 풍자하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는 것에는 풍자를 통해 자신이 TV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며 유명세를 타고 싶다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다. 이에 청자인 Marco는 명료하지 못한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CP에 기반하여 이 노인의 심리를 추론을 통해 이해하고 간단히 “맞습니다. 열쇠 좀...”이라고 대화를 마무리 한다.

다음의 <표 18>은 스페인영화의 격률위반 및 하위 범주인 함축 실현양상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표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스페인영화의 격률위반과 함축양상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표 18〉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각 격률위반 빈도(전체)

격률위반 유형	영화제목	i	ii	iii	iv
	총대화수	636	703	843	609
질(26%)	1.은유	13	15	7	1
	2.반어	31	13	10	9
	3.과장	3	4	4	4
	4.완서	0	0	0	0
	5.유머	0	1	0	0
소계		47 (33.8%)	33 (23.7%)	21 (19.8%)	14 (20.6%)
양(18.1%)	1.항진명제	0	3	1	0
	2.과장	24	21	21	14
	3.공손	0	1	0	3
	4.정보공유 원하지 않음	0	2	0	0
소계		24 (17.3%)	27 (19.4%)	22 (20.8%)	17 (25%)
관련성 (34.5%)	1.유머	6	24	11	1
	2.간접화법	19	6	10	2
	3.공손 또는 공손위배	21	16	13	14
	4.풍자	3	1	0	0
	5.은유	0	1	0	0
소계		49 (35.3%)	48 (34.5%)	34 (32%)	17 (25%)
태도 (22.4%)	1.공손	0	0	3	1
	2.중의	12	26	19	15
	3.풍자	3	3	5	2
	4.강조	4	2	2	2
소계		19 (13.7%)	31 (22.3%)	29 (27.4%)	20 (29.4%)
영화별 총 격률위반수(%)		139 (21.9%)	139 (19.8%)	106 (12.6%)	68 (11.2%)

* Note: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스페인영화의 격률위반 양상을 정리해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격률의 위반은 <관련성의 격률> 위반으로 진행되는 문맥과 화제와 관련된 말을 하라는 격률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 64회 출현되었다. 이를 어기면서 가장 많이 실현되는 것은 공손의 위배로 진행되던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갑자기 자신이 대화하고 싶은 화제로 전환을 시도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관련성의 격률>

를>을 위반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빈도로 유머가 총 42회였다. 풍자와 은유는 매우 낮은 빈도였다. 그 다음으로 위반되었던 격률은 <질의 격률>로 이로 인해 실현된 가장 높은 함축은 반어로 매우 높은 빈도인 총 63회였다. 그 다음으로는 은유로 총 36회였다. 역시 완서와 유머는 매우 낮은 빈도였다. <태도의 격률> 위반의 경우 중의적인 표현으로 실현되는 함축이 총 7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빈도로 스페인영화에서는 <양의 격률>이 위반되었고 이를 통한 함축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부풀려 표현하는 과장이 총 64회로 그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풍자, 강조가, 그리고 가장 낮은 빈도로 공손으로 함축되었다. 카이검증법을 이용한 스페인 영화의 격률위반 및 함축에 대한 통계의 유의미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도 분포 0.566으로 유의미성의 기준 수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유의미성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chi^2(9) = 16.53, p < .0566$).

4.2 세 문화의 대화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함축의 차이 비교 및 보편성

4.2.1 격률위반의 문화 간 양상 비교

격률의 위반을 통해 나타나는 대화함축의 다양한 실현 양상들을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영화 자료와 함께 살펴보며 경험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격률위반 시 나타나는 반어적 표현, 은유적 표현, 항진명제, 과장된 표현, 간접화행, 유머, 공손한 표현, 중의적 표현이 대화 격률위반과 함께 각 문화권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19>는 전체 세계 국가의 12개 영화의 총 대화 수 10,005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계 나라의 격률위반 함축 양상을 국가별, 영화별, 격률별, 위반에 따른 함축실현 양상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 19>에서 우선 미국, 한국영화에서 각 격률과 관련한 차이를 살펴 보면, 그 빈도 유형은 미국(37.23%)과 한국(34.04%) 영화에서는 비율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질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양의 격률위반이 두 번째로 많이 위반 되었다(미국(25.99%), 한국(22.82%)). 이와 대조적으로 스페인영화에서 나타난 격률위반의 양상은 관련성(33.48%)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질(18.10%)의 위반이었다. 태도 격률위반은 각 국가 별로 거의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19〉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비교분석(종합)

격률위반 유형	함축실현양상	미국영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				
		i	ii	iii	iv	총합(%)	i	ii	iii	iv	총합(%)	i	ii	iii	iv	총합(%)
질	1.은유	3	36	16	35	245(37.23%)	15	12	4	17	176(34.04%)	13	15	7	1	115(26.75%)
	2.반어	23	21	23	27		25	21	21	22		31	13	10	9	
	3.과장	10	17	14	19		5	10	4	15		3	4	4	4	
	4.완서	0	0	0	0		1	0	0	3		0	0	0	0	
	5.유머	1	0	0	0		0	0	0	1		0	1	0	0	
양	1.향진명제	2	0	0	3	171(25.99%)	2	0	3	4	118(22.82%)	0	3	1	0	80(18.10%)
	2.과장	36	58	16	35		24	37	11	24		24	21	21	14	
	3.공손	1	8	3	1		1	0	2	1		0	1	0	3	
	4.정보공유 원하지 않음	1	1	1	5		0	1	0	2		0	2	0	0	
관련성	1.유머	8	10	5	13	112(17.02%)	9	5	9	2	122(23.60%)	6	24	11	1	148(33.48%)
	2.간접화법	8	15	2	3		8	6	3	4		19	6	10	2	
	3.공손 또는 공손위배	13	2	5	11		11	5	23	11		21	16	13	14	
	4.풍자	14	0	0	3		8	5	2	7		3	1	0	0	
	5.은유	0	0	0	0			1	1	2		0	1	0	0	
태도	1.공손	0	3	1	1	130(19.76%)	0	0	1	4	101(19.54%)	0	0	3	1	99(22.40%)
	2.중의	21	10	35	30		18	18	14	20		12	26	19	15	
	3.풍자	11	1	2	6		6	8	5	1		3	3	5	2	
	4.강조	1	3	1	4		2	0	4	0		4	2	2	2	

* Note: 미국영화: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한국영화: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스페인영화: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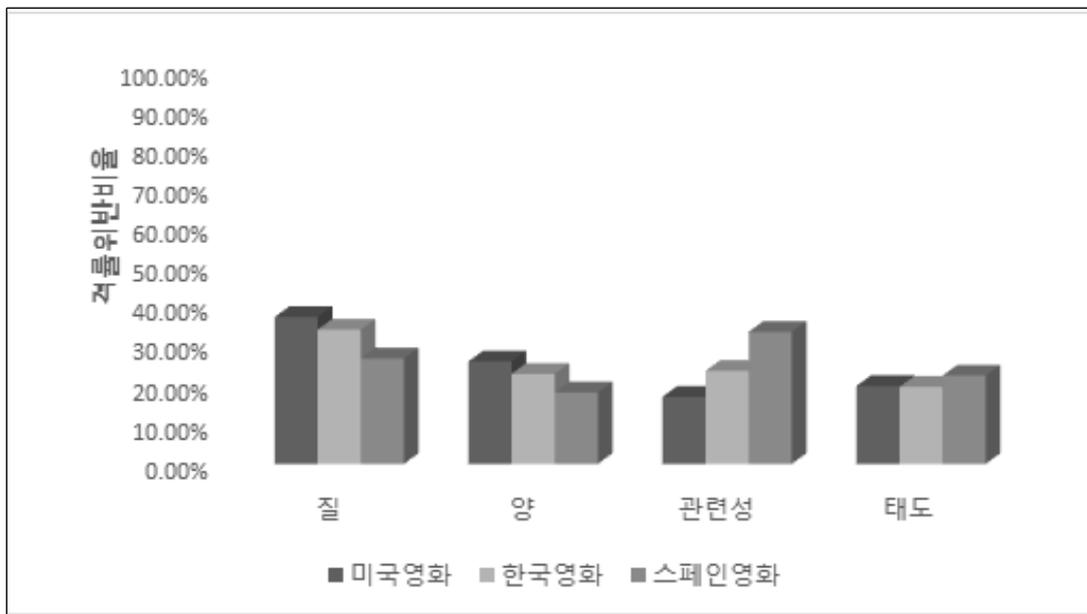
이 표를 상위 격률 비교를 위해 간단히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표 20〉 과 〈도 표 19〉 로 나타내었다. 우선 상위 격률위반에 대해서, 세 나라의 영화 12편의 전체 대화수를 대화 교환 횟수로 산출한 후 격률별 위반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0〉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격률위반별 비율 비교

격률위반	미국영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
질	37.23%	34.04%	26.75%
양	25.99%	22.82%	18.10%
관련성	17.02%	23.60%	33.48%
태도	19.76%	19.54%	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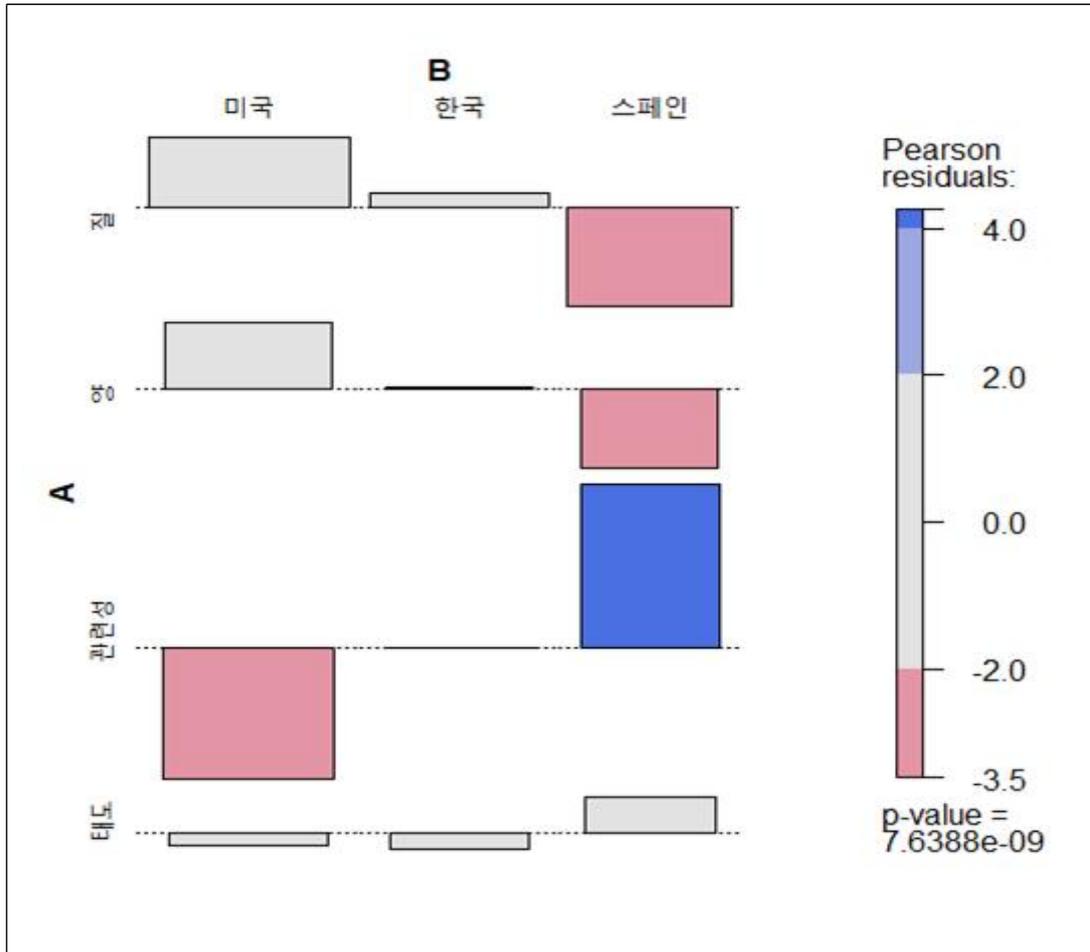
위의 〈표 20〉을 비교에 용이하도록 막대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 〈도표 19〉와 같다.

〈도표 19〉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격률별 위반 빈도수 비교



위의 〈표 20〉에서 보여 지는 각 영화별 격률위반의 사례 빈도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에 대해서도 Chi-squared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유의미 하였다($\chi^2(6) = 48.94, p < .01$). 그 패턴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도표 20〉의 세 나라 영화의 격률위반 빈도분포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도표 20〉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 전체대화 내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



위의 〈도표 20〉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격률위반의 빈도 분포는 각각의 국가 별로 그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경우 네 가지 격률위반의 빈도가 거의 기대수준의 수치를 보이는 양상이다. 각 격률위반의 중간 기준 가로선의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분포가 기대보다 높은 것을 표시하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빈도분포가 기대이하 임을 나타내는 이 통계 그래프는 그 폭이 크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진한 색으로 표시된다.

우선 〈질의 격률〉위반 빈도 분포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스페인영화에서였고 기대보다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영화에 비해 스페인영화에서 기대수준 보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더 낮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영화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질의 격률〉을 기대보다 상

대적으로 많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의 격률>위반의 빈도를 보면 역시 스페인영화에서 유의미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영화에 비해 기대보다 훨씬 <양의 격률>을 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위의 <표 20>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격률위반별 비율 비교에서, <양의 격률>위반율이 스페인영화의 경우 18.10%로 위반 사례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영화의 25.99% 그리고 한국영화의 22.82%의 위반율 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이다. <관련성의 격률>위반 양상을 보면 한국영화는 보통 관련성에 대해 위반하는 기대수준 정도의 분포로 격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영화와 스페인영화의 경우 매우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영화는 기준 가로선보다 훨씬 아래로 그래프 막대가 표시되고 진한 색으로 나타나서 <관련성의 격률>을 기대 수준보다 위반율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 반면 스페인영화는 관련성의 기준 가로선을 크게 넘어서 기대보다 훨씬 많이 어기고 있으므로 역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표 20> 에서 스페인은 33.48%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고 미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17.02%이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위반 양상은 그 분포에 있어서 미국, 한국, 스페인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스페인영화가 약간 기준선을 넘어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지만 통계 그래프 상 유의미하지 않다.

지금까지 각 국가 별로 나타나는 격률위반함축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그리고 <관련성의 격률>은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영화 분석결과 <질의 격률>위반은 37.23%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양의 격률>위반(25.99%)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격률위반은 관련성(17.02%)이었다. 반면 미국영화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관련성의 격률> 위반이 스페인영화에서는 가장 높게(33.48%) 나타났다. 또한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질의 격률>위반 비율(32.23%)이 가장 높고, 양, 태도, 관련성의 비율로 나타나는 미국영화 양상과 다르게 한국영화의 격률위반은 <질의 격률>위반(34.04%)이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는 <관련성의 격률> 위반(23.60%), <양의 격률> 위반(22.83%) 그리고 <태도의 격률>위반(19.54%)의 비율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관련성 격률의 위반(33.48%)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여 일어나는 함축의 빈도가 높은 것은 대화참여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서 CP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믿어지며, 청자나 화자 모두 대화의 시점에서 발언이 대화의 목적과 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관련성의 격률>위반이나 활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2 하위 함축 실현의 문화 간 양상 비교

이제 세 국가 별 영화대본에 격률위반을 통해 나타나는 함축양상에 대해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국가 별, 양상별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표 21>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함축 실현 빈도비교(%)

격률위반	함축실현양상	미국영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
질	1.은유	13.7	9.3	8.1
	2.반어	14.3	17.2	14.3
	3.과장	9.1	6.6	3.4
	4.완서	0	0.8	0
	5.유머	0.2	0.2	0.2
양	1.항진명제	0.8	1.7	0.9
	2.과장	22	18.6	18.1
	3.공손	2	0.8	0.9
	4.정보공유 원하지 않음	1.2	0.6	0.5
관련성	1.유머	5.5	4.8	9.5
	2.간접화법	4.3	4.1	8.4
	3.공손 또는 공손위배	4.7	9.7	14.5
	4.풍자	2.6	4.3	0.9
	5.은유	0	0.8	0.2
태도	1.공손	0.8	1	0.9
	2.중의	14.6	13.5	16.3
	3.풍자	3	3.9	2.9
	4.강조	1.4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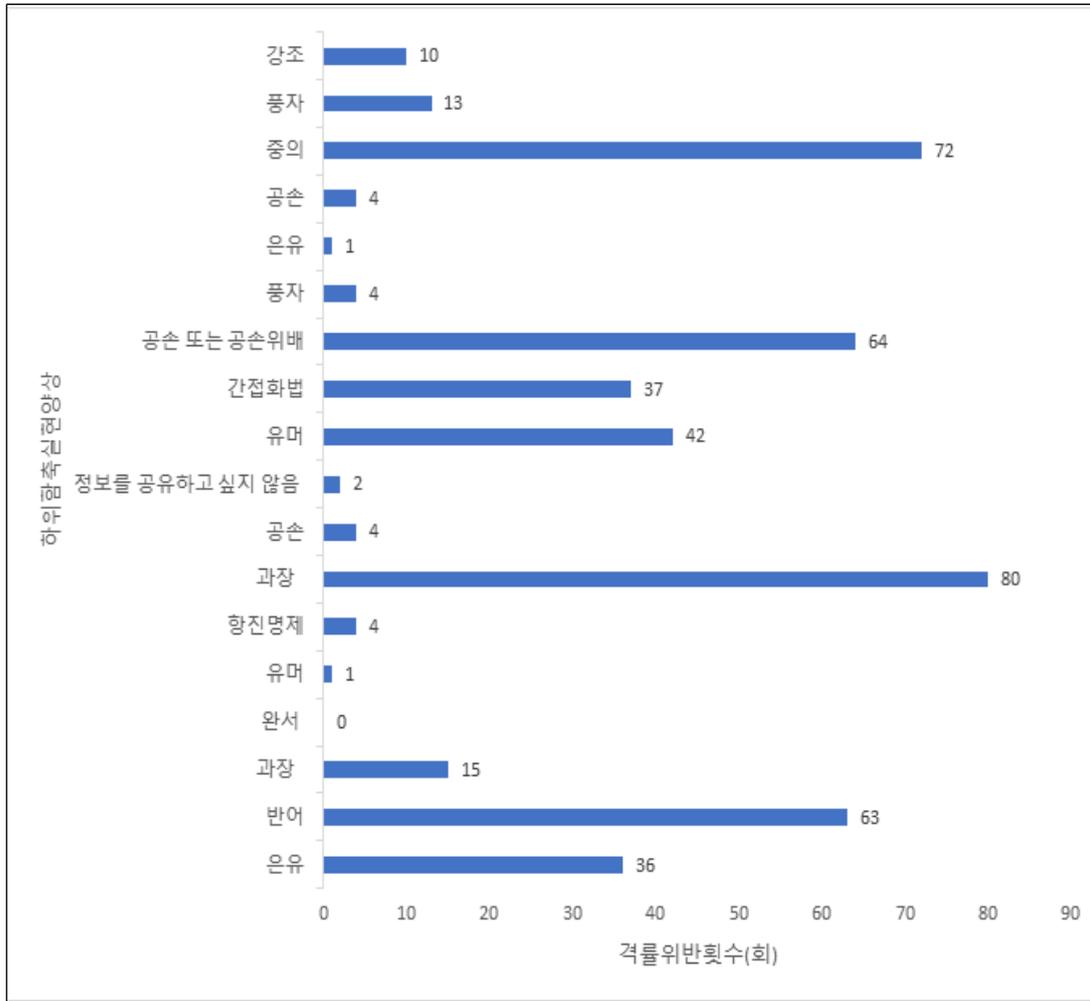
격률을 위반하여 실현되는 함축의 양상을 비교한 <표 21> 을 통해 격률위반별

대표적인 함축은 세 국가 모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양상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의 격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함축은 은유, 반어, 과장, 완서, 유머인데 미국, 한국, 스페인 영화에서 모두 ‘반어’가 각각 14.3%, 17.2% 그리고 14.3%로 가장 그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양의 격률>에서도 항진명제, 과장, 공손, 정보공유를 원하지 않는 의도 중 모두 ‘과장’의 함축이 가장 높아서 각각 22%, 18.6%, 18.1%의 빈도를 보였다. <태도의 격률>의 격률 역시 공손, 중의, 풍자, 강조의 함축 중 ‘중의’가 모두 높은 빈도로 나타나, 14.6%, 13.5%, 그리고 16.3%로 각각 출현되었다. <관련성의 격률>의 경우에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에서 ‘공손’과 관련된 함축이 유머, 간접화법, 풍자, 은유보다 높게 나타나고, 미국영화에서만 유머가 공손 관련 함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역시 세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함축 양상은 ‘공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격률위반 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함축양상 외에 다른 함축 항목에 있어서는 국가 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위의 <표 21>를 참조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함축에 대해 특이한 점으로, 아래의 <도표 21> 통해 볼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Lorenzo-Dus (2001: 118-119)의 연구에 따를 스페인 문화의 한 특징적인 양상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하여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즉, 스페인 문화에서 과장,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아의 표현이고 기지가 뛰어난(‘witty self’)을 보여준다고 하여 스페인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한 부분이, 본 영화 분석을 통해서도 이 부분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도표 21>는 상위 격률범주인 <질, 양, 관련성, 태도의 격률>을 제외하고 하위 함축항목만을 비교한 그래프로, 함축 간 비교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도표 21〉 스페인영화의 각 격률위반에 해당하는 전체 함축실현양상(횟수)



위의 〈도표 21〉에서는 하위 해당 함축실현 양상 18가지만을 도표에 넣어 함축의 실현양상만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는데, Lorenzo-Dus (2001: 118-119)가 주장한 바처럼 가장 높은 함축 양상이 과장으로 80회, 그리고 반어 역시 63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Lorenzo-Dus는 과장, 반어법은 스페인공동의 기반(common ground)의 바탕이 되고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건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의사소통적 관행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가속 장치라고 주장했다. 대화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과장성은 스페인 문화에서는 용인되는 것이나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과장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Pomerantz 1978,

Herbert 1989, Homles 1988). 스페인과 영국의 문화 및 언어를 연구한 Hickey(1991: 5)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이러한 스페인의 과장성과 반어적인 면을 위선적이라고 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스페인에서는 평균적인 사회 행동이라고 하였다.

4.2.3 양의 격률 유형 비교

이번에는 <양의 격률>을 위반하는 유형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의 격률>위반의 양상은 향진명제, 과장법, 공손 그리고 청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함축으로 실현되지만, 다른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양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념의 크고 작음으로 양을 분류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양의 격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므로 화자는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할 것과 동시에 요구되는 것 이상의 과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이하의 정보로 말하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발화하였을 때 CP에 기본하여 의도적 위반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저의 함축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론하게 된다.

아래의 <표 22> 와 <도표 22> 는 <양의 격률>을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양상과 함께 양 자체의 특성인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도 분류해 보았고, 국가 별 양상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2〉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양’의 격률위반 함축 발생횟수(회)

양의 격률 위반 실현양상	미국영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				
	i	ii	iii	iv	소계	i	ii	iii	iv	소계	i	ii	iii	iv	소계
TOO MUCH	30	56	14	32	132	2	22	8	10	42	6	18	7	12	43
TOO LITTLE	4	8	5	5	22	0	1	0	3	4	1	5	0	0	6
TOO BIG	4	1	0	2	7	14	16	3	13	46	16	3	13	5	37
TOO SMALL	2	2	1	0	5	8	0	2	1	11	1	1	0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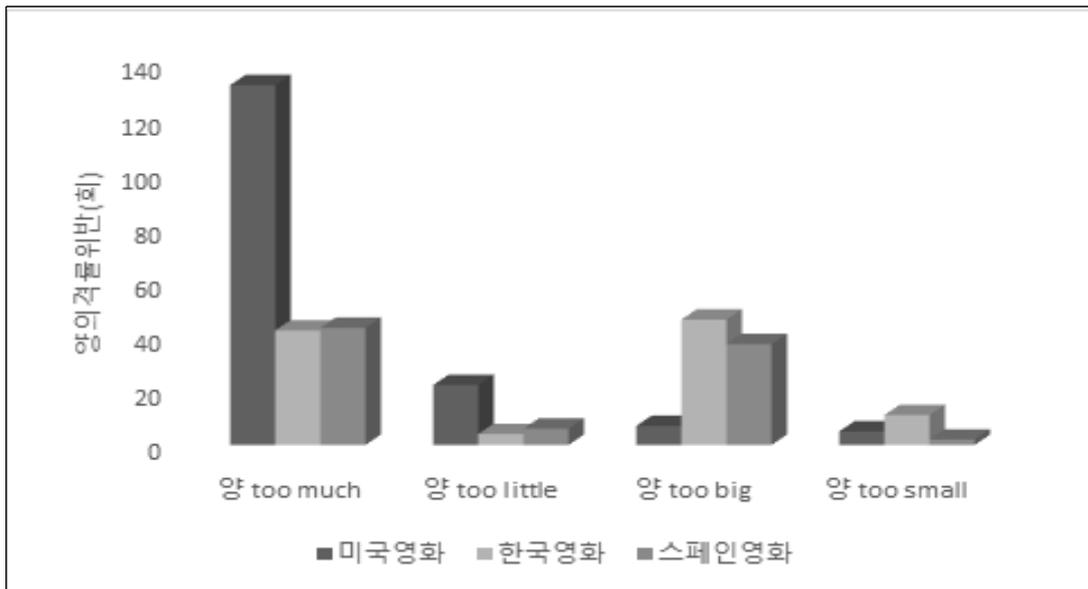
* Note: 미국영화: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한국영화: i. 씨니, ii. 미나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스페인영화: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미국영화에서는 한국영화와 스페인영화와는 다르게 〈양의 격률〉의 측면에서 대화의 길이가 긴(too much)양상이 나타나고 그 길이에 있어서 길이가 너무 짧은(too short)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과 스페인영화에서는 대화의 길이가 너무 긴(too much)양상도 나타나지만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내용적으로 그 양이 매우 큰(too big) 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 22〉를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도표 22〉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양’의 격률위반 함축 발생



또한 <양의 격률>을 이용해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고자하는 함축은 표에서 보듯이 과장(자신의 믿음을 부풀려 표현하고, 기쁨, 당황, 슬픔, 분노, 변명, 핑계, 과시, 주장, 동조, 이해, 공감을 유도)이므로 양의 적고, 작음 보다는 양이 많고, 크게 하는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의 격률>의 위반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사용(too much)하는 양상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미국영화 *YOU'VE GOT MAIL*의 한 장면이다.

(82) ① Joe: Matt, look at this dinosaur book. Annabel, maybe you could read this book Matt while I wrap things up here. (To Kathleen) And the dinosaur book, too, please. ... Oh, it costs too much.

② Kathleen: The world is not driven by discounts, believe me. I've been in business forever. I started helping my Mother here after school when I was six years old. I used to watch her, and it wasn't that she was selling books, it was that she was helping people become whoever they were going to turn out to be. When you read a book as a child it becomes part of your identity in a way that no other reading in your life does. ... I, I've gotten carried away a little bit."

③ Joe: Yeah, you have. You've made me feel enchanting.

(*YOU'VE GOT MAIL*, 1998)

Joe는 오래된 작은 동네 서점의 바로 앞에 대형 건물을 지어 그 건물 전체를 대형서점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물 공사 중이던 Joe는 휴일에 우연히 이 작은 서점을 조카들과 함께 잠시 들러 책을 구입하려고 한다. 대형 유통망과 거대 자본으로 주변의 작은 상권들을 전혀 무시하며 책을 싸게 팔 것이라는

대형서점이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작은 서점 주인인 Kathleen은 걱정하고 있지만 Joe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Joe는 조카들과 책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기에 나온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다고 한다(①). Grice의 격률에 따르면 손님이 비싸다고 하였을 경우 가격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될 상황이다. 그러나 Kathleen은 대형 서점이 바로 앞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에 걱정이 크던 상황이어서 <양의 격률>을 어기며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세상은 가격할인 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왔죠. 여섯 살 때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도와 이 일을 했어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단순히 책만을 팔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죠. 어머니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걸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읽은 책들은 지금까지 읽은 어떤 책들도 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분이 되니까요.(②)”라고 말한다. <양의 격률>을 위반하며 과장, 즉 화자의 당황함을 표현하고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청자는 이를 조용히 들으며 Kathleen이 과장을 하며 필요 이상의 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CP에 따라 추론한다. Joe는 Kathleen과 이 서점을 알고 있기에 그녀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감을 얻고자 하는 함축을 이해한다. 그리하여 Kathleen이 발화 끝에 “제가 좀 흥분했죠.”라는 말에 이해한다고 말하며 이 열정이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대화는 성공적으로 끝난다.

개념을 크게(too big)하여 <양의 격률>을 위반하는 양상을 스페인영화 *CIEN METROS*의 한 장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83) ① Ramon: ¿Hay un gimnasio acerca por aquí, no? (Is there a gym around here?)
- ② Manolo: ¿Vienes a un duelo medieval? Por aquí. ¿Puede ser mejor gimnasio? Tenemos campo, carretera, la playa y el hureto. (Are you attending a medieval duel? Here. Is there a better gym? We've got the countryside, a road, the beach, and the garden.)

- ③ Ramon: El huerto. Podría atrapar algo peor que la esclerosis en ese huerto. Vamos a correr un poquito. Me estoy congelando. (The garden. I could catch something worse than sclerosis in that garden. Come on, let's run a bit. I'm freezing.)
- ④ Manolo: Vas a correr mañana. Ahora, vamos a coger a dar la pala y el rastrillo. (You'll run tomorrow. Today you're getting a spade and a rake.)

(CIEN METROS, 2016)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치료법이 없는 중증에 걸린 Ramon(라몬)은 100미터라도 제대로 걷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지자 기약 없는 우울한 투병생활을 이겨내고자 노력한다. 그러던 중 광고에 나오는 ‘철인 삼중경기’를 보고 이에 도전장을 던진다. 부인은 연습도중에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르는 남편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자전거 선수생활을 했던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연습을 하면 동의하겠다고 한다. 평소에 장인과 사이가 안 좋은 Ramon이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연습 첫날, 장인의 시골집에 가서 몸을 풀고 연습할 마음이 간절하여 부근에 체육관이 어디지 묻는다(①).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장인은 ‘중세시대의 결투(vuelo medieval)(②)’라도 할 태세라고 개념의 크기를 필요이상으로 크게 하여 <양의 격률>을 위반한다. 청자인 Ramon은 이에 대해 과장을 함축함을 추론하고 이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는다.

<양의 격률>의 위반 중에서 필요 이하로 적은(too short)양을 제공하며 위반하는 다음의 (84)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84) Dear Sir, Mr X's command of English is excellent, and his attendance at tutorials has been regular. Yours, etc,

(Grice, 1975: 52)

Grice가 제시한 예문으로 철학과 교수는 제자 X의 부탁으로 취업에 관련된 쓴

추천장이다. 그러나 추천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수가 X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함축을 수신인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개념을 작게(too small)하여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를 한국영화 *써니*에서 두 장면을 그 예로 들어 보겠다.

- (85) ① 나미: 한 입만 먹고 가.
 ② 미진: 아, 진짜 엄마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③ 나미: 아까 계속 깨웠잖아. 양말 신고 가야지!
 (과거, 나미의 집 - 아침, 양말 든 손으로 장면 전환되며 과거 나미의 집. 소녀 나미도 지각인 듯 정신없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 밥그릇을 들고 서 있는 나미 엄마의 모습이 현재 나미와 흡사하다.)
 ④ 나미엄마: 당뇨끼 땀시 한 끼만 건너도 별별 떠는 년이. 아 한 숟가락만 물어.
 ⑤ 나미: 그걸 아는 양반이 딸 잡을 라고 안 깨웠소?
 ⑥ 오빠: 어무니. 재 밥 주지 마쇼. 지금 민주열사들은 독방에서 소 죽 한 그릇이라도 먹...
 ⑦ 나미엄마: 아, 시끄러! 감옥이 콩밥이지 무슨 소죽이여?

(*써니*, 2011)

중학생인 딸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 할 것 같아 밥을 안 먹고 나가려고 한다.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급히 토스트를 챙겨 먹으려는 엄마 나미는 “한 입만 먹고 가(①)”라고 하면서 양의 정도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이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꼭 아침 식사를 한 입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고 가기를 바라면서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자신의 생각을 부풀려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딸의 동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한 예로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간 나미는 자신의 어머니도 역시 “아 한 숟가락만 물어(④)”라고 했던 기억을 돌이키며 그 어머니가 함축하던 강조의 느낌을 받는다.

이때 옆에서 한창 민주 학생운동을 하던 오빠는 동생의 모습이 복에 겨웠다고 생각하여 “어무니. 재 밥 주지 마쇼. 지금 민주열사들은 독방에서 소 죽 한 그릇이라도 먹...(6).”이라며 역시 개념의 크기를 필요이하로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함축을 실현하고 있다.

4.2.4 격률의 동시적 위반

이번에는 네 가지 격률이 항상 한 가지씩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두 가지 이상 위반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율은 낮지만 세 나라의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은 관련성과 <양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몇 가지 그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많이 출현하는 동시 위반 양상인,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된 양상을 한국영화 *써니*의 한 장면에서 보도록 하겠다.

- (86) ① 수지: 너 술도 못 마시냐?
 ② 나미: 나도 힘들어. 솔직히 우리 오빠, 민주투사.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몰라. 울 할무니, 나보고 언니래. 응? 근데 내가 왜 그래도 춤을 추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야. 수지. 정 수지. 들어? 듣고는 있냐고? 후~. 아줌마. 꼬막은 없죠? 꼬막? 지금 꼬막 철인데.
 ③ 수지: 그래도 난 너 싫어.
 ④ 나미: 그래도 난 너 좋아.
 ⑤ 수지:왜?

(*써니*, 2011)

시골에서 강남으로 전학 온 나미는 친해지고 싶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같은 반 학생인 수지에게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집안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감을 얻어내고자 자신도 상황이 어렵지만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친구가 되길 요청한다(2). 그러나 수진이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대

화의 흐름과는 관련 없는 꼬막 이야기를 꺼내며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다. 동시에 꼬막이라는 단어를 세 번 연속으로 반복(②)하며 필요 이상의 양을 제공한다.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화의 협력원칙의 기본 하에 청자는 꼬막에 대한 갑작스런 주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고 그 배경인 공감을 유도하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이어지고 있던 대화의 흐름에 맞게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며(③) 다음 대화로 이어간다.

다음은 <관련성의 격률> 과 <질의 격률> 을 동시에 위반한 예를 스페인영화 *CIEN METROS*의 한 장면에서 ‘관련성과 <질의 격률> 이 동시에 위반’된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87)의 사례에서는 <관련성의 격률> 을 위반하면서 풍자의 함축을 의도하였고 <질의 격률> 을 여기면서 은유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 (87) ① Un Instructor ¡Vamos, dale todo! ¡Uno, dos, tres, cuatro!
 de Baile: ¡Foto! ¡Foto! Sexy, sexy, vamos! ¡Foto! ¡Foto!
 ¡A ver ese culo! Veamos ese culo! (Come on, give it all! One, two, three four! Photo! Photo! Sexy, sexy, come on! Photo! Photo! Let's see that ass! Let's see that ass!)
 ② Manolo: ¿Dónde me has traído? (Where have you brought me?)
 ③ Ramon: Cállate, hombre de las cavernas. No estás acostumbrado a salir de la cueva. (Shut up, caveman. You're not used to leaving the cave.)
 (*CIEN METROS*, 2016)

불치병을 앓고 있는 Ramon과 그의 훈련을 돕는 장인은 시골의 야외에서만 훈련을 할 수는 없으므로 Ramon이 사는 도시의 헬스장을 찾는다. 여기서는 헬스기구들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재미있게 운동하게 하도록 댄스 강사(Un Instructor de Baile)가 이끄는 수업도 있다. 나이든 장인은 이 모습이 도무지 진정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어디로 날 데려온 건가?(①)”라고

묻는다. 정상적인 대화에서의 대답이라면 장소를 묻는 질문이므로 장소에 대한 정보로 답을 해야 하지만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는 장인에게 원시인, ‘hombre de las cavernas(caveman)’ 이라고 하며 “동굴을 떠나 봤어야 이런걸 알죠.(③)”라고 하며 장소와의 상관이 없는 발언을 한다. 이로써 <관련성의 격률> 을 어기고 있으며 동시에 시골에서는 살고 있지만 동굴에 살고 있지 않는 장인에게 동굴을 언급함으로써 <질의 격률> 을 위반하고 있다. 관련성을 어기면서 화자가 함축하고자 하는 것은 장인의 고지식함을 풍자하고자 함이고 동굴에서 살고 있는 원시인이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질을 위반하며 함축하는 것은 은유법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영화 *THE INTERN*의 한 장면에서 <양의 격률> 과 <질의 격률> 이 동시에 위반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 (88) ① Jules: What? Say it. What's everyone worried about?
- ② Dandice: That it's all going so fast, it can get away from us. The VC's think a seasoned CEO will take things off your plate -- that's all -- free you up to do what you do great. You come up with the ideas and let someone else make the trains run on time. They're not only our investors, Jules, they're our partners -- they do want what's best for us. They want us to make it.
- ③ Jules: But Candice, that new person is going to run things their way. Technically be my boss. How can I do what I do and have to report to someone else, run every idea I have by this person? Can you see that working?

(*THE INTERN*, 2014)

초고속으로 성장해 나가는 신흥기업의 CEO인 Jules에게 부사장은 외부 CEO

를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의견을 전한다. 전문 경영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현 CEO인 Jules는 “모두들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①)”고 한다. 부사장인 CADICE는 이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의 격률>을 위반한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련한 CEO가 경영에 참여하길 원해요.”라고 하면서 뒤이어 노련한 CEO가 줄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에 “The VC’s think a seasoned CEO will take things off your plate(②).” 즉, ‘가득 차 넘치는 접시에서 물건들을 좀 덜어 낼 것이다’ 라는 은유를 동시에 사용하여 <질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즉 경영을 하면서 회사에 접시가 놓여 있고 거기에 음식이 가득 차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질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은유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발화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인이 복잡한 경영을 맡게 되면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고 이 시간에 Jules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차가 제 시간에 맞추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You come up with the ideas and let someone else make the trains run on time)(②).” 라고 한 번 더 은유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 즉, 여기서 기차는 회사를 은유로 상징하여 경영이 잘 되어 가도록 하자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로서 한 번의 대화사건에서 <질의 격률>과 <양의 격률>을 동시에 위반하여, 은유와 과장의 함축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청자 역시 추론을 통해 접시와 기차, 그리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진의를 협력원칙에 의해 이해하고 관련된 대화를 이어나간다.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나면 자신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③)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는 성공적으로 격률위반에도 불구하고 함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동시 격률위반의 양상인 <태도의 격률>과 <질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되어 함축을 유도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페인영화 *MAR ADENTRO*에서 찾아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 (89) ① Ramon: Mire, ganaremos el cielo, porque ... hemos pasado toda nuestra vida en el infierno ... Grabo esta imagen para que los jueces o ... los políticos o quien sea que decida ... entender mejor... Apparently, no pueden identificarse con el dolor psicológico de la ... persona, entonces tal vez así entenderán que esto no es la vida ...(Look, we will win Heaven, because we... ..have spent our whole lives in Hell... I tape this image so the judges or... ..politicians or whoever has to decide... ..understand better... Apparently they can't identify with the psychological pain of the... ..person, then maybe this way they'll understand that this is not life...)
- ② Un Reportero: ¿Por qué sonríes tanto, Ramon? (Why do you smile so much, Ramon?)
- ③ Ramon: Cuando no puedes escapar y depender constantemente de los demás ... Aprendes a llorar riendo ... (When you can't escape and depend constantly on others... You learn to cry by laughing ...
- (MAR ADENTRO, 2004)

위의 (89)의 사례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여 중의성의 함축으로 실현되고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은유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온몸이 불구 상태여서 움직일 수 없는 Ramon을 한 TV 방송국 기자(Un Reportero)가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Ramon은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지옥에서 보냈으니깐요(Mire, ganaremos el cielo, porque ... hemos pasado toda nuestra

vida en el infierno①).”라는 모호한 말로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다. 화자인 그의 말은 명료하게 말하라고 하는 격률을 어기며 함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특히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삶을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락사의 합법화를 판사들, 정치가들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발화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명백히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격률>역시 위반하고 있다. 은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자인 기자는 이 모호성과 은유에 대해 추론하여 바로 다음 대화로 이어간다. “왜 그렇게 자주 웃나요?(②)”라는 대답으로 화자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Ramon은 “도망갈 수 없고 남들에게 계속 의지 할 수도 없을 때 웃음으로 울게 되지요.(③)”라고 말한다. CP라는 더 큰 범주의 규칙에 의해 추론으로 이어지고 대화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4.2.5 격률위반에 미치는 공손성의 영향

이번에는 또 다른 양상의 각 국가 별 비교 측면인 ‘공손성’을 보도록 하겠다. 공손성의 측면에 대해서 세 국가 별 차이가 예상되는 이유는 미국문화는 평등과 친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지만, 한국어 문화권은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존대법 체계와 관련된 언어 구조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 행위가 위계적임으로 인해 상위자는 하위자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함축을 통해 간접표현을 하는 사례가 적을 수 있다. 반면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서 존대법체계가 동사 어미, 형태소 등으로 표시되는 등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추는 표현이 없으므로, 말다툼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표현하기 위해 간접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어의 경우는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간접화법인 함축의 발생 빈도가 낮을 수 있다.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 중에서 화용적 특성과 양태를 언어적 공손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김영실(1996)의 연구를 보면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언어적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파악하여 화용 능력과 원리는 대화의 원리(Grice, 1975)와 공손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김현섭(1999)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던 공손표현의 정의를 종합, 재정의하고 공손의 보편 원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및 영어 공손 표현의 언어적 책략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공손표현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주로 직설법보다는 가정법이, 특정 주어 인칭보다는 비인칭 주어, 단정문이나 의문문보다 부가 의문이, 일반 동사보다 사역동사가, 같은 시제라도 과거 시제가 더 공손한 형태임을 살펴보면서 다른 연구들보다 영어의 구조적인 측면의 공손표현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각 언어마다 공손의 표현은 모든 언어 층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다.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모든 부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공손이 언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손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별, 국가별 차이가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개별 언어는 그 선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일본어는 문법화 된 의존 형태소를 갖고 있는 반면 영어는 따로 그림 문법적 장치가 없다. 대신 영어에서도 예를 들어 요청 화행의 경우, 특정 어휘나 형태소가 아닌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문을 선택함으로써 공손이나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가를 떠난 직원에게 급히 회사로 돌아와야 될 일이 생겨서 돌아오라고 전화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발화 형식이 가능하다.

- (90) A. Come back, now! Just come to the office immediately, OK?
 B. David, I want you to come to the office right now.
 C. Why don't you come to the office right now?
 D. Do you mind coming to the office right now, please?
 E. I'm sorry to interrupt your vacation, but would you please come to the office right now?

(이성범, 2012: 159)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대적 파워와 거리감 및 요청하는 일의 난이도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

적인 면에서 위의 (90)의 예문들은 다른 형태들이지만 모두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90A)는 명령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90B)는 평서문, (90C)는 ‘Why don't you~?’ 청유문, (90D)는 의문문이지만 매우 공손한 구조인 ‘Do you mind~?’구문과 힌트어인 ‘please’를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90E) 역시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태를 조합한 구조로 매우 공손한 느낌을 전하며 요청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손성과 관련하여 관찰된 것은 <관련성의 격률>위반으로 실현되는 함축 양상 중에서 간접화법을 통한 함축에서였다. 즉 간접화법이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사실은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평서문이나 질문을 위한 의문문의 문장형식을 빌어, 실제로는 진술이나 질문이 아닌,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 23〉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간접화법 빈도수(%)

간접화법	미국영화					한국영화					스페인영화				
	i	ii	iii	iv	소계(%)	i	ii	iii	iv	소계(%)	i	ii	iii	iv	소계(%)
	8	15	2	3	28(32.6%)	8	6	3	4	21(24.4%)	19	6	10	2	37(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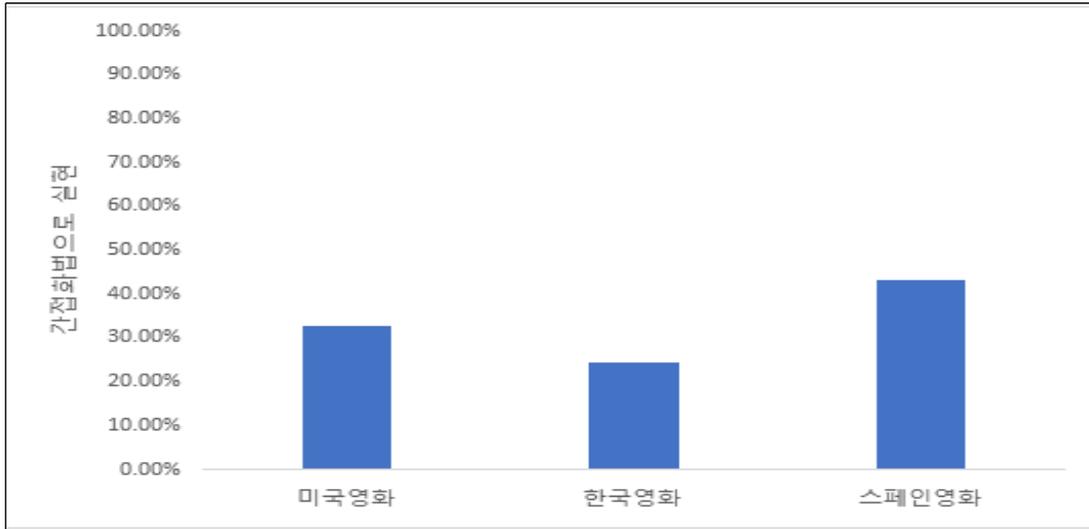
* Note: 미국영화: i. LADYBIRD, ii. THE INTERN, iii. NOTTING HILL, iv. YOU'VE GOT MAIL

한국영화: i. 씨니, ii. 미나 문방구, iii. 건축학 개론, iv. 수상한 그녀

스페인영화: i. CIEN METROS, ii. MAR ADENTRO, iii. TODO SOBRE DE MI MADRE, iv. HABLE CON ELLA

위의 <표 23> 에서 보듯이 세 국가 간 비교 시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스페인영화(43.02%)나 미국영화(32.56%)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한국영화(24.42%)에서의 간접화법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비교에 용이하도록 아래 <도표 23> 의 막대그래프를 통해 나타내었다.

〈도표 23〉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간접화법 함축 발생 비율



한국 문화에서 직접적 요청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 구조 자체적인 면을 고려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즉 한국어가 다른 두 언어에 비해 덜 공손한 언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는 동사의 어미를 ‘존대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손함의 정도를 표시하는 문법적 체계가 형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간접화법의 사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손성 규범은 의사소통의 최상위 규범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규범을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사용자들은 이 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강창우, 2017: 315-337)³⁴). 그렇게 때문에 한국어 영화에서 한국어 자체에 있는 존대형으로 공손성을 표현하는 것이 상위에 있는 상황에서 간접화법으로 함축하기 위해 격률을 위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문장 구조적인 부분 외에도 요청을 함에 있어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한 연구(윤이령, 2004)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경우 힌트어, 예를 들어 ‘por favor(please)’ 를 사용한 평서문이나 의문문과 같은 간접적 전략이 전략적으로

34)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공손성과 관련한 언어적인 수단들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어에서는 평칭과 존칭의 선택, 준언어적인 요소들의 사용, 호칭의 선택, 어휘의 선택, 발화형태의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도 평칭과 존칭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적인 수단들은 공손성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도 한국어에서는 화계, 조사, 존대어 등의 적절한 사용도 공손성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강창우, 2017).

많은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령형이나 요청하는 청유형 같은 직접적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4.2.6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격률위반의 보편성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각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Lipp-Green, 2012)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³⁵⁾. 실제 언어 사용 시 Grice의 대화의 격률은 위반(flouting)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상의 대화에서 격률을 위반하여 추론과 함축이 일어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23>에서 각 나라의 영화 대본의 총 대화 수 중 함축이 일어난 비율을 보도록 하겠다.

<표 24> 미국, 한국, 스페인영화의 함축 발생빈도(%)

	총 대화수(회)	함축발생수(비율%)
미국	3,652	658 (18.0%)
한국	3,561	517 (14.5%)
스페인	2,791	452 (16.2%)

위의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나라의 영화에서 함축의 발생 빈도는 미국 18.01%, 한국 14.51% 그리고 스페인 16.19%로 평균 16.24%였다. 이로서 격률위반으로 함축을 통해 대화하는 방식은 결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Grice의 대화의 원칙이 준수 되지 않는 경우는 Grice의 이론이 연구된 서양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권이거나, 동일 문화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격률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격률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제3의 언어 사용 적 측면의 요소가 대화 원리에 앞서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공손성의 원리(politeness theory)’이다. 사례를 보면, 어떤 문화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의 법칙을 지키는 것 보다, 공손성의 원리가 우선

35) The language phenomena discussed here are relevant to every language community and every human being. To understand these bigger issues, you will need to be familiar with some of those basic universal facts ab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language. - 'English with an Accent', Lippi-Green, 2012: 5) (All spoken languages are equal in terms of linguistic potential. 'English with an Accent', Lippi-Green, 2012: 6).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규범이 있다.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려면 보통 <질의 격률>을 어기게 된다. 공손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내용 어 외에 추가로 문장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발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는 <질의 격률>은 위반되는 것이다.

보편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주목 할 만 한 것은 <태도의 격률>로서, 그 위반 빈도수에 있어서 미국(19.76%), 한국(19.54%), 스페인(22.40%)으로 세 국가 별 분포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상위 격률인 <태도의 격률>의 네 가지 하위 격률 중 ‘모호한 것을 피할 것,’ ‘중의적인 것은 피할 것,’ ‘간결할 것’은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확신이 없을 때에 그 위배나 활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마지막 하위 격률인 ‘순서대로 말할 것’은 격률위반이나 활용이 의사소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무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발화 한다 라기 보다 인간 무의식에 작용하는 본성적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의 수치를 통해 이 부분에서 격률위반의 보편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 격률의 위반이 어떤 함축으로 실현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 그 실현양상을 문화 간 비교하는 것이다. 동일 문화권에 속하는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는 어떤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작용한다는 것은 화행에 있어서 문화 간 비교를 행한 다수의 연구 결과나 문화 간 접촉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언급한 연구들³⁶⁾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사소통 시 해당 상황 맥락에서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화자의 의도, 다시 말해 표현된 의미를 어떻게 함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화 함축 이론의 대전제는 Grice(1975)의 협력 원칙이다. 협력 원칙은 대화의 매 단계마다 그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만큼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의사소통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일부러 격률을 어기는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사람들은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화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며 이때 함축이 발생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국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 화행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화행의 문화 간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분석 재료로 사용하였다. 함축이 인간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언어 사용이면서, 청화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창의적이면서도 우리의 일상과도 가깝고 언어사용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영화의 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한국, 스페인 세 국가의 함축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각 문화 공동체의 언어 사용 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 분석의 범위는 자유롭고 독창적인 언어 사용으로 일어나는 함

36) Blum-Kulka 외(1989)가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캐나다 프랑스어, 독일어, 덴마크어, 러시아어, 이스라엘어 등 모두 여덟 개 언어의 요청과 사과 화행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문화 간 화행 실현 비교 연구(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가 대표적이다.

축으로 한정하기 위해 맥락에 따라 비 고정적인 대화함축에 한정하였다. 또한 실제 대화에서 Grice의 격률 활용으로 일어나는 대화함축 중 의도적 격률위반으로 인한 특정대화함축에 한정하여 그 발생횟수를 조사하였다. 함축현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함축의 특성을 격률위반의 양상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함축 실현 양상 별로 나누었다.

〈질의 격률〉위반은 은유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 과장과 완서적 표현, 〈양의 격률〉위반은 향진명제, 공손한 표현, 상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심리의 표현으로, 〈관련성의 격률〉위반은 유머, 간접화법, 공손성의 위배, 풍자나 비난으로, 〈태도의 격률〉위반은 중의적 표현과 강조, 공손한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화자의 대화함축 의도와 발화 전략에 따른 대화 참여자의 추론 과정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격률위반의 양상을 국가 별로 분석한 결과 그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선 격률위반의 빈도순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영화는 〈질의 격률〉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의 격률〉그리고 가장 비율은 〈관련성의 격률〉위반이었다. 반면 미국영화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난 〈관련성의 격률〉위반이 스페인영화에서는 가장 높게 위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질의 격률〉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성의 격률〉, 〈양의 격률〉순의 비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격률은 〈태도의 격률〉 위반이었다.

둘째, 각 격률위반으로 실현되는 함축의 문화 간 양상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선 미국영화에서는 반어와 은유가 〈질의 격률〉을 어기며 주로 나타나는 함축 양상으로 나타났고, 단일 함축 실현 양상으로는 〈양의 격률〉위반 중 과장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태도의 위반을 통한 중의성의 비율이 높았다. 〈관련성의 격률〉위반은 한국과 스페인영화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영화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성의 격률〉위반의 양상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머로 실현되는 함축의 비율이 한국과 스페인영화에서보다 미국영화에서 보편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국영화의 함축 양상은 반어, 은유적 표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단일 함축 실현 양상으로 가장 높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양의 격률〉위반

중 과장이었으나 미국영화에서보다는 조금 낮게 실현되었다. <태도의 격률> 중 중의적 함축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영화의 특이성으로 다른 영화에 비해 가장 높은 위반 빈도를 보인 <관련성의 격률>위반을 보면, 공손성 위배의 함축과 그 다음으로 유머가 높게 나타났다. <태도의 격률> 중에는 중의적 표현이 높은 빈도로 실현되었다.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라’고 하는 <양의 격률>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다른 두 개 국가의 영화들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셋째, <양의 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함축 실현 이외에 <양의 격률>위반을 다른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양’ 자체의 특성인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도 분류해 보았고, 국가 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한국, 스페인 영화에서는 대화의 길이 자체가 너무 긴(too much)양상도 나타나지만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내용적으로 그 개념의 크기가 매우 큰(too big)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영화에서는 개념의 크기 자체보다, 대화의 길이가 길거나(too much), 너무 짧은(too short) 양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넷째, 격률의 위반은 한 번에 반드시 한 번씩 위반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격률이 위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함께 위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외에 <관련성의 격률>과 <질의 격률>이, <양의 격률>과 <질의 격률>이, 그리고 <태도의 격률>과 <질의 격률>이 동시에 위반 되는 경우들이고, 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격률위반에 미치는 각 국가 별 공손성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접화법의 함축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간접화법이란 사실은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평서문이나 질문을 위한 의문문의 문장형식으로 실제로는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영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영화가 미국영화와 스페인영화에서보다 간접화법 함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공손의 표현 자체가 동사의 어미에 ‘존대형’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가 있어서 공손하게 요청할 때 문장의 구조 자체를 변형해 함축 할 필요가 없이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간접화법인 함축의 발생 빈도가 낮을 수 있고 실제 연구 결과도 간접화법의 비율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격률위반으로 나타나는 함축의 국가 별 다양성 외에 보편성도 나

타났는데 우선, 세 국가 모두 어느 정도 빈도 이상으로 함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격률 위반을 통한 함축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화의 하나의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Grice의 대화 협력의 원리(CP)와 격률 준수가 의사소통의 최대 경제성과 최대 효율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격률위반, 즉 격률 활용으로 발생하는 함축이 국가 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이고 이런 격률의 활용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격률위반으로 인한 함축의 빈도수에 있어서 미국(19.76%), 한국(19.54%), 스페인(22.40%)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는 문화별로 격률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각 국가의 공손성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태도의 격률>이 세 나라 영화에서 거의 비슷하게 위반 된다는 점이다. 그 위반 빈도수에 있어서 미국(19.76%), 한국(19.54%), 스페인(22.40%)의 분포를 보였다. 상위 격률인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고 간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 한다 라기 보다 인간 무의식에 작용하는 본성적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의 수치를 통해 이 부분에서 인간 심리적 보편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주장을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격률의 위반 양상과 함축의 양상을 각 문화를 담고 있는 영화 분석을 통해 차이 및 보편성을 찾아봄으로써 점점 더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이외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하려는 연구를 시도를 하였다. 지금까지 각 국가 별로 자체 내의 격률위반 분석과 한국과 미국의 격률위반 분석, 또는 같은 영어권인 미국과 영국의 격률위반 비교 등의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는 미국, 한국, 스페인 세 국가의 격률위반 양상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앞으로 대화함축에 대한 다양한 문화 간 언어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경. (2001). 함축의미이론의 비교연구, G-이론과 SW-이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창우. (2017). 공손성 규범의 의도적인 위반에 대한 상호문화적 고찰, *독일어문화권연구*, 26: 315-337.
- 강형석 외. (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 김경애. (2012). *영어화용론*, 서울: 종합출판Eng.
- 김영실. (1996). 언어적 공손 현상의 화용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하수. (2008). *문제로서의 언어1: 사회와 언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섭. (1999). 영어의 공손표현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 (1995). 현대국어의 공손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일. (2015). 한국어와 중국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51-81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1*, 서울: 한신문화사.
- 신효필. (2005). 언어자료의 통계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들. *어학연구*
- 양용준. (2003). 간접화행과 대화함축의 비교 분석. *영어영문학*, 9: 63-83.
- _____. (2009). 정중성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5. 3: 183-204.
- 윤이령. (2004). 한국어와 스페인어 화행 대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평현. (2008). *국어의미론*, 서울: 역락.
- 이민행. (2000). *광고카피와 대화함축-센스, 카피 그리고 거짓말*. 독일언어문학
- 이성범. (1999). *언어와 의미*, 서울: 태학사.
- _____. (2012). *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 서울: 소통.
- _____. (2015). *언어의 무례함에 대한 실험 화용적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
- 이지원. (2005). 특정 대화함축의 분석, 부산대학교.

- 이혜승. (2008). 문화적 함축으로 야기되는 번역문제 고찰,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127-141.
- 최명원 외 공저. (2002). *화용론연구*, 서울: 태학사.
- 최재웅, 김동성, 전지은. (2006). 통계적 검증을 이용한 어휘분류 목록 비교 -한국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언어와 언어학*. 38:185-211.
- 허상희. (2012).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서울: 소통.
- Amer A. & Razlina R. (2018). The flouting of Grice's Conversational maxim: Examples from Bashar Al-Assad's Interview udring the Arab Spring, *IOS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3. 5: 43-47.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 Blome-Tilman, M. (2013). Conversational implicatures and how to spot them, *Philosophy compass*, 8. 2: 170-185.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 Brown, P., & Levinson, S. C. (1978). Universals of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a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nap, R. (1938). Foundations of logic and mathematics, In O. Neurath, R. Carnap & C. W. Morri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1: 139-214.
- _____. (1942). *Introduction to Seman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Dobrzyńska, T. (1995). Translating metaphor: Problems of meaning, *Journal of pragmatics*, 24: 594-604
- Fasold, R. (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Anchor Book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5). Utterer's meaning, sentence-meaning, and word-meaning. In S. Davis (Ed.),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 Y. (1990). Politeness phenomena in moder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14, 2: 237-257.
- Gumperz, J. (1982). *Discourse strategies*. London: Edward Arnold.
- Herbert, R. K. (1989). The ethnography of English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a contrastive sketch. In W. Olesky (Ed.) *Contrastive pragmatics*. Amsterdam: Benjamins.
- Holmes, J. (1988). Paying compliments: A sex-preferential politeness strategy. *Journal of Pragmatics*. 12: 445-508.
- Horn, L. R. (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In D. Schiffrin (Ed.), *Georgetown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uang, Y. (2007).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dson, T., Detmer, E., & Brown, J. D. (1992). *A Framework for Testing Cross-cultural Pragmatics*, USA: Natl Foreign Lg Resource.
- Ide, S. (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 8: 223-248.
- Karin A. & Christoph R. (2015). *Corpus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ttunen L. and & Peters. S. (1979).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Oh,

- C. -K and Dineen, A. D. (Eds.)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 London: Academic Press.
- Kempson, R. (1975). *Presupposition and the delimitation of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Khosravizadeh, P. & Sadehvandi, N. (2011). *Languages and Linguistics*, Singapore: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 Kreidler, C. (1998). *Introducing English Semantics*. London: Routledge.
- Kusssmaul, P. (1995).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pi-Green, R. (2012). *English with an Acc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orenzo-Dus, N. (2001). Compliment responses among British and Spanish university students: A contrastive study. *Journal of Pragmatics*, 33. 1: 107-127.
- Manning, C. D, and Schütze H. (1999). *Foundations of Statistic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ambridge: MIT Press.
- Mao, L. R. (1994). Beyond politeness theory: 'Face' revisited and renewed. *Journal of Pragmatics*, 21. 5: 451-486.
- Matsumoto, Y. (1988). Reexamination of the universality of face: Politeness Phenomena in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12. 4: 403-426.
- _____. (1989). Politeness and conversational universals: Observations from Japanese. *Multilingua*, 8: 207-221.
- _____. (1995). The Conversational Condition on Horn Scal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21-60.
- Mey, J. L. (1993). *Pragmatics*. Oxford: Blackwell.

- _____. (1997). *Pragma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ss: Blackwell.
- Mooney, A. (2004). Co-operation, Violations and Making sense. *Journal of Pragmatics*, 36: 899-920.
- Morgan, C. (1975). *Conversational Postulate, Syntax and Semantics*, 3. New York: Academic Press.
- Ochs, E. (1979). Introduction: What child language can contribute to pragmatics, In E. Ochs & B. B. Schieffelin, (Eds.),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Parker F. & Riley K. (2010).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 a primer with exercises*, Boston, Mass. : Allyn & Bacon.
- Pomerantz, A. (1978). Compliment responses: Notes on the cooperation multiple constraints. In J. Schenkein (Ed.) *Studies in the organization of conversational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Texas Christian University.
- Sacks H., Schegolff, E.A., & Ja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0).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ordrecht: Redel.
- Sperber, D. & Wilson, D. (1986). Pragmatics and modularity. In S. Davis,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 cognition*. Oxford: Blackwell.
- Thomas, J. (1995). *Meaning in interaction*, New York : Travis, L. (Ed.), *Meaning and interpretation*. Oxford: Basil Balckwell.
- _____.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 2: 91-112.

-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Berlin; New York: Mouton-De Gruyter.
- Wierzbicka, A. (1985).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speech acts: Polish vs.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9. 2: 145-178.
- _____. (1991). *Cross-cultural pragmatics*. Mouton de Gruyter.
- Wolfson, N. (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Cambridge: Newbury House/HarperCollins.
- Yu, M-C. (2003). On the Universality of Face: Evidence from Chinese Compliment Response Behaviour. *Journal of Pragmatics*, 35. 10: 1679-1710.

Abstrac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in the Movies of America, Korea and Spain

Kyong-hee K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Prof. Yong-Joon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implicatures among three cultures, America, Korea, and Spain through flouting maxims of conversation developed by Grice (1975). To this end, I tried to analyze and categorize pattern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are in violation of Gricean four maxims of quality, quantity, relevance and manner, and to examine how each maxim functions as an interpretative framework for different implicatures. I also demonstrated how basic concepts of pragmatics, including irony, metaphor, tautology, hyperbole, indirect speech acts, humor, polite expressions, and ambiguous expressions, can be explained by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hapter 2, I reviewed Grice's theory of implicature and his concept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and provided examples of English, Korean and Spanish sentences to illustrate them. As this study aim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xim and show their individual value as an interpretative framework, I limited the scope of this study to implicatures that violate conversational maxims because those inferred from the hearer's pragmatic competence, not those arising from the constituents of sentences, are only within the area of pragmatics.

The movies from three countries were used to present actual example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classifying and analyzing its type and frequency an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the everyday life of speakers. Twelve movies were selected as the analysis data from three countries which well involved their native speakers' daily conversation, then, turn-takings are counted through all the texts, and the turn-takings includ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 are also counted to reveal the ratio.

The aspect of maxim viol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in each country's movie. In addition, when analyzing frequency of maxim violation, American movies showed the highest violation of maxim of quality, followed by quantity and most ratio violation of relevance. On the other hand, the lowest violation of the relevance of the US films was the highest violation in Spanish films. In the case of Korean film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the flouting maxim of quali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at of relevance and quantity, and the lowest rate was violation of relevance.

There were several examples related to more than two Gricean maxims at the same time, of which conversational implicature by both the maxim of relation and quantity has the largest portion.

It was shown that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is not rare but

common in three countries. The people know the violation of conversational maxims and understand the intention of speakers clearly. Despite their knowledge about the violation of conversational maxims, the violation occurred in their communica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applied the theoretical arguments to the actual language data and tried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maxim violation and the implicature of three countries by analyzing the films which contain each culture. Thi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more about elements other than language in this globalized world. Until now,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f one's own nation's maxim violation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maxim violation of Korea and the US, and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violations of the U.S. and the U.K. In this alternative study, however, I tried to study various inter-cultural aspects about conversational implicature.

감사의 글

박사 논문을 시작하던 때를 돌이켜 보면 과연 ‘내’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완성된 논문을 생각하며 기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논문을 완성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이 논문에 감히 ‘나’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우선 양용준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고 전 일정을 책임지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제가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격려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논문의 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깨우침을 주시고 감각을 일깨워 주신 이기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으로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옥 교수님께서 제 논문의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자문을 주시고 제가 논문에 의문을 가지거나 확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제나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긍정의 응원을 해주시며 논문 완성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종훈 교수님과 배대권 교수님께서 마지막 논문 수정에 큰 도움을 주시고 섬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진심어린 지도와 성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했던 박사, 석사 과정 동료들의 응원에 감사를 전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같은 시기에 함께 논문을 쓰며 동고동락 했던 조미나 선생님께 특히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물리학 박사인 친구 김현동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자신이 박사논문 쓰던 시기의 모든 경험과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고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큰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군대에 있는 대학생 큰 아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생활하고 글과 전화로 엄마를 응원해 주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둘째아들 역시 멀리 타지에서 힘든 유학생생활을 하면서도 엄마에게 오히려 힘을 주며 그곳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매일 기꺼이 들어주며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응원과 일치를 보내주고, 모든 상황에서 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준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고경희